



"월간내일" (고용노동부)

23.9.29. 기준 업데이트



목차

※ 클릭 후 파란 글씨 클릭하면 해당 주제로 이동합니다.!

목차	1
들어가기 전에...	1
월간내일(기관지)	1
23년 9월	1
2023년 08월	1
2023년 07월	1
2023년 06월	1
2023년 05월	1
2023년 04월	1
2023년 03월	1
2023년 02월	1
2023년 01월	1
22년 10월	1
22년 9월	1
22년 8월	1
22년 7월	1
22년 6월	1
21년 12월	1

들어가기 전에...

※ 타 직렬이나 혹은 기타 다른 문서가 궁금하시다면

 "아카이브  " 참조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공공누리 관련 공지 또한 위 링크에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https://open.kakao.com/o/sSL8zGSd>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저작권자 : <https://www.moel.go.kr/site/copyright/copyrightList.do>

공공누리: 4

월간내일(기관지)

23년 9월

2023
VOL.580
09

기회와
준비의
만남,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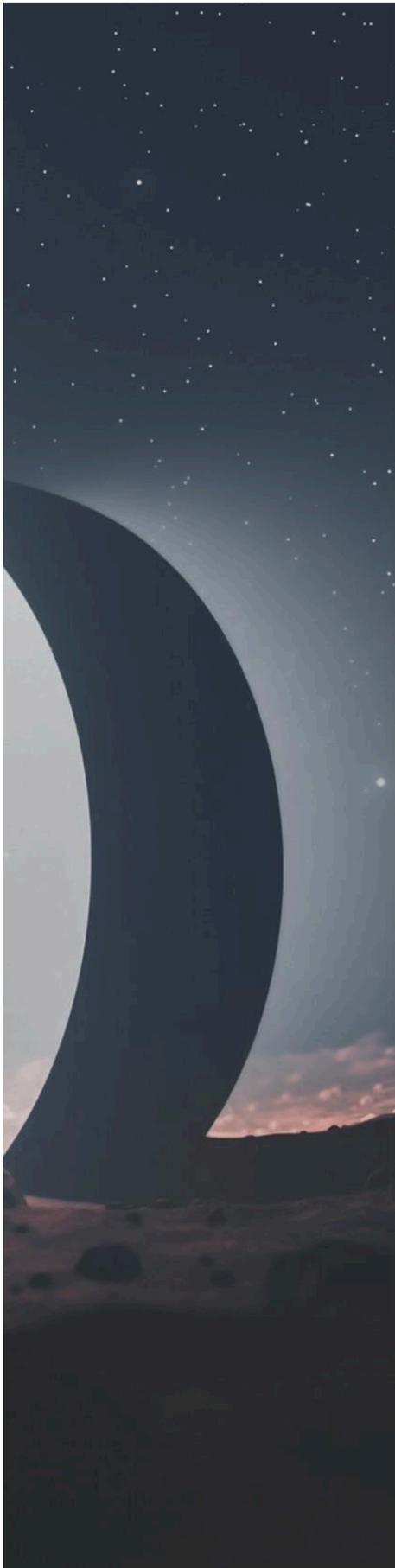


로봇공학자 한재권

월간 기업과 직원 모두 행복한 세상
내일

미래는 오늘의 노력과
내일의 기대로 만들어집니다





CONTENTS

2023 September VOL. 580

- 04 내일을 열며**
- 지금 우리는 미래를 위한 퍼즐 조각을 만들고 있습니다.
- 06 고용 아카이브**
- 12 멘토크**
-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로봇 이야기
- 16 레벨업 스토리**
- 기술! 과거에도 미래에도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사)대한민국숙련기술인총연합회 배명직 회장
- 20 슬기로운 회사**
- 노사관계가 국순당에 미치는 영향
- 24 기자단이 간다**
-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방문기
- 26 MOEL News**
- 30 잡 큐레이션**
- 인공지능과 언어로 소통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
- 34 취업 시크릿**
- 알아서 잘, 깔끔하고 센스있는
이력서로 딱! 붙어보자
- 36 시네마 클래스**
- 이 가족이 살아가는 법 <고령화 가족>
- 38 워커북**
- 직장인 생활백서!
한 번에 결재받는 보고서를 위한 비법!
- 40 널튼**
- 42 고용한입**
- 43 MOEL letter**

고용노동부 소식지 <내일>

통권 강남 라 00389(통권 580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한국애드

내일을 열며

과거의 걸음이 현재를 만나 미래의 가능성을 키웁니다. 오래된 시간의 흔적은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이 됩니다. 과거의 경험이라는 퍼즐 조각을 손에 든 우리는 이 조각을 다듬고 퍼즐을 맞추며 새로운 길을 찾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꿉니다.

미래의 모습으로 상상만 했던 로봇이 지금 우리 생활 곳곳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어찌면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현재의 시간에 집중하고, 목표를 향해 노력한다면



미래는 조금씩 더 또렷한 그림으로 다가오겠지요.
우리의 시간은 여전히 퍼즐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로,
미래를 이루는 중요한 퍼즐 조각으로 우리는 오늘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미래를 맞이하고 싶은지 상상하며 최선을 다해 오늘이라는
퍼즐을 완성해야 합니다.

지금, 그대는 어떤 미래를 위해 퍼즐 조각을 만들고 있나요?

지금 우리는
미래를 위한
퍼즐 조각을
만들고
있습니다



변화를 응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함께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미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생명공학기술 등 산업계의 변화는 점점 더 빨라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전통적인 일 자리를 대신하는 로봇이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영역에서 두각을 보이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의 직업을 빼앗는 시대가 가까이왔다고도 하지요. 실제로 노동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생산환경이 스마트해지면서 고속 노동이 중요해졌고, 기계·로봇과의 협업도 늘어났습니다. 노동시간과 장소는 유연해졌지만 더 많은 디지털 기기를 조작해야 하는 부담은 늘었어요. 이렇게 산업계 안팎으로 변화의 바람이 매섭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과 기업이 유연하고 안전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따뜻한 바람막이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 변화에 발맞춘 직무전환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는 신기술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직업
능력개발훈련 및 공유·개방 플랫폼이에요. K-디지털플랫폼,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첨단산업 공동
훈련센터가 있어요.

❶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

고용노동부가 2022년에 신설한 공동훈련모델로 대기업 등
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동종업계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전환 진행단계에 맞춰 직무전환 훈련 등을 제
공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하는 공동훈련모델이지요.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미래산업변화에 맞추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 전환**
을 돕는 곳입니다. 미래에 필요한 직업능력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차
원에서는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
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힘을 모았습니다. 공동훈련센터 협약(컨소시엄)
을 통해 대기업 등의 공동훈련센터 훈련·연수시설에서 협약기업의 근로자들에
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합니다.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에서는 먼저 기업을 진단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훈련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말 그대로 기업 맞춤형 훈련입니다. 또 원활한 직무
전환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2023년 현재 산업별 선도대기
업을 중심으로 총 20곳이 운영 중인데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까지 35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❶ K-디지털 플랫폼은 ?

고용노동부가 2021년에 신설한 공동훈련모델로 중소기업 재직자뿐만 아니라 청년 구직자 등 지역 내 다양한 훈련 수요자에게 디지털 융합훈련이 가능한 훈련시설을 개방 공유하고 디지털 융합훈련을 제공합니다.

K-디지털 플랫폼은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훈련생을 대상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 K-디지털 첫걸음(크레딧)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직자 대상으로도 디지털 융합훈련 등 다양한 훈련과정을 운영합니다. 훈련뿐만 아니라 지역기업과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디지털 분야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누구나 예약을 통해 훈련시설·장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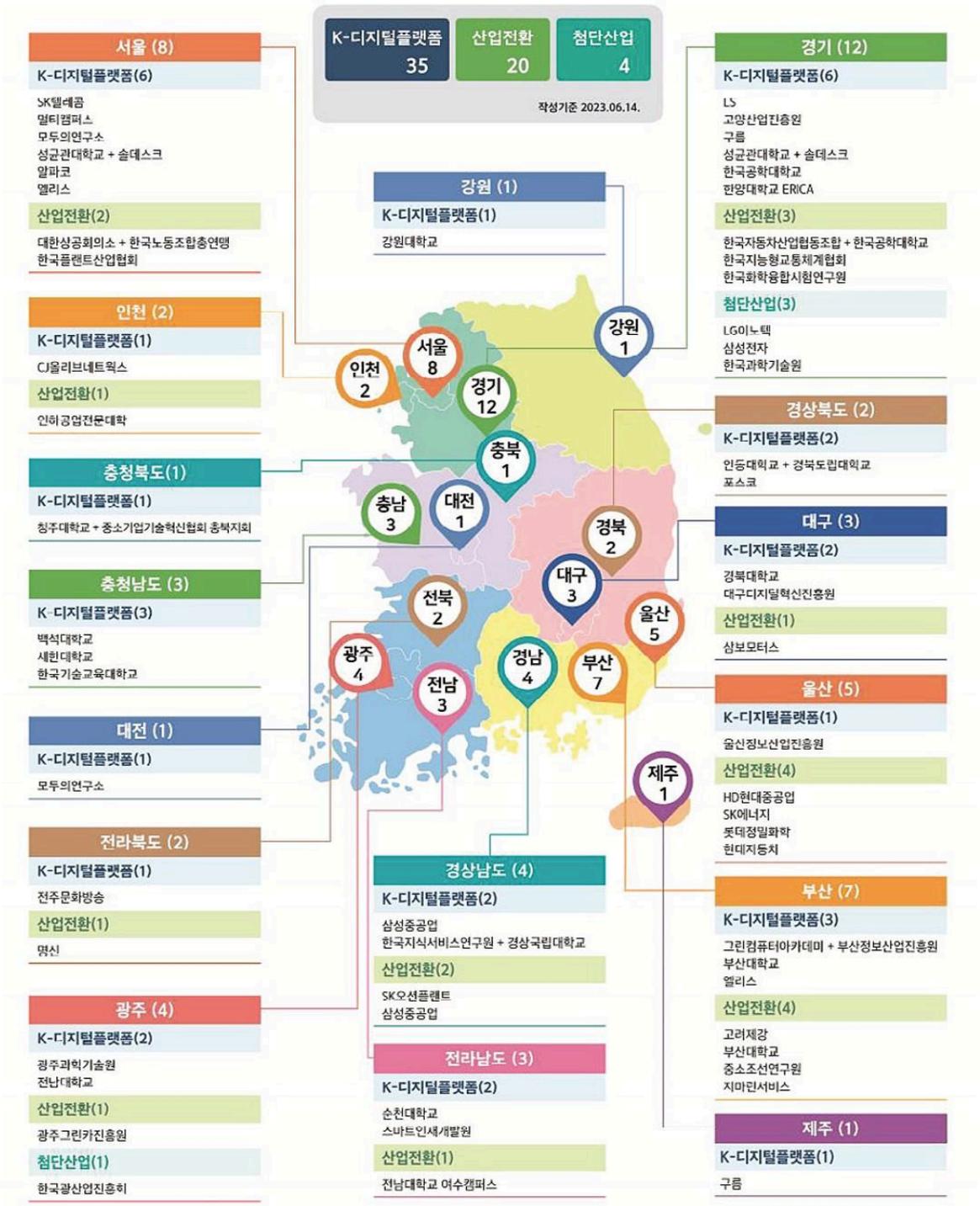
고용노동부는 2022년까지 개소된 20개의 K-디지털 플랫폼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2025년까지 전국에 60개의 다양한 규모의 K-디지털 플랫폼을 만들 계획입니다.

※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는 반도체 및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첨단인력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직무 훈련을 제공합니다.**

구분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K-디지털 플랫폼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분야	반도체, 바이오, AI, AR·VR 등 첨단산업 및 디지털전환산업 분야	미래차, 저탄소, 친환경 등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신산업 분야
대상	재직자·채용예정자 구직자·학생·일반시민 등	재직자·채용예정자
운영 과정	첨단산업 맞춤형 훈련과정 및 디지털 융합 체험 프로그램 제공, 시설·장비 공유 등	수요조사 외 체계적인 기업진단, 사후관리지원 프로그램(경력설계, 심리상담 등), 실습 중심의 직무 전환 신산업 분야 훈련 제공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1644-8000 /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 (www.hrdkorea.or.kr)

2023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 현황



미래 산업전환을 살피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영향평가

❶ 고용영향평가는 ?

매년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사회변화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부부처 정책 등을 평가과제로 선정해 일자리 창출 경로, 고용효과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정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고용시장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고용영향 평가는 2010년 처음 시작되었고, 2022년까지 총 290개 과제를 평가했어요. 2022년에는 탄소중립, 혁신성장, 산업활성화, 공정경제 및 사회구조변화,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의 5개 분야에서 24개 과제를 진행하고 최종결과보고서를 관계부처와 소관 자치단체에 전달하였습니다.

2023년 고용영향평가는 산업구조전환, 지역균형발전, 혁신성장, 민간 주도 산업 활성화, 제도 및 기반 시설 개선, 재정사업 등 6개 분야로,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고용 및 산업 전문가, 관계 부처, 자치단체, 산업별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과제를 선정하였는데, 특히 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정책 과제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여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에 기반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산업구조전환'에서 에너지수요 효율 혁신, 물류산업 혁신,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산 등 4개 과제, '지역균형발전'에서 울산, 경북, 전남 지역의 주요 정책을 포함한 5개 과제, '혁신성장'에서 반도체산업, 배터리산업, 도심항공교통(UAM) 등 5개 과제를 포함하여 총 24개 과제입니다.

매년 진행된 고용영향평가 결과보고서는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등에 전달되어 정책개선과 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정책 제언에 대한 조치계획과 추진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영향평가 결과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 누리집(고용영향평가센터 www.kli.re.kr/eia)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수급대책과 ☎ 044-202-7963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2023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목록

정책 분야	과제명
산업구조전환	에너지 수요 효율 혁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물류산업 혁신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제조업의 서비스화 혁신 정책의 고용영향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산의 고용영향
지역균형발전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의 고용영향
	스마트관광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울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정책이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북형 생활경제권 일자리전략이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
혁신성장	김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이 전남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반도체산업 성장 전략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배터리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도심항공교통 상용화에 따른 고용영향
	메타버스 산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민간 주도 산업활성화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조성의 고용효과
	현장 중심 인력양성정책의 고용효과: 일학습병행제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중심
	대학·공공연 지식재산의 민간 이전 및 사업화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
	TIPS 프로그램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제도 및 인프라 개선	산학협력사업의 고용효과: LINC 사업 중심
	페플라스틱 재활용 등 순환경제의 고용영향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의 고용영향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원 정책의 고용효과
재정사업	연금제도가 고령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도로 건설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중소기업 R&D 지원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로봇 이야기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미래, 로보토피아



한재권 멘토와의
더욱 자세하고 생생한
인터뷰는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

로봇 기술 발전은 인간을 돕는 것에서
시작되어 현재 우리 생활 속에서 로봇의 역할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로봇과 함께 살아갈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요리와 청소 등 집안일을 돕는 로봇이 등장하는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은 2005년이 배경입니다. 원작을 쓴 아이작 아시모프는 이미, 1976년 발표한 동명의 소설에서 이런 로봇의 등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2035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아이, 로봇'에서는 로봇이 물건을 배달하고, 개를 산책시키는 미래의 생활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미래의 어디쯤에는 항상 로봇과 함께 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로봇과 함께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호텔, 공항 등에서 서빙을 하고 길을 안내하는 로봇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로봇과 함께 살아갈 미래는 이미 당연한 내일이 되었습니다. 로봇공학자 한재권 박사님을 만나 인간과 로봇이 함께 만들어갈 변화를 들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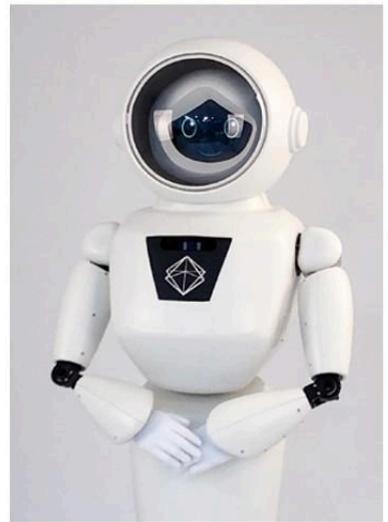
Q. 로봇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로봇공학'은 다소 생소합니다. 로봇공학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로봇을 만들기 위한 기술적인 분야를 모두 다루고 있는 학문입니다. 전통적인 공학하고는 다른, 여러 공학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어요. '로봇'은 공학의 많은 요소들을 필요로 하는 특이한 제품이에요. 예를 들면 기계가 움직이니까 기계 공학이 필수겠죠? 코딩으로 명령어를 만들어야 하니까 컴퓨터 공학도 필요하고요. 로봇이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비스를 하는 존재이다 보니 외형도 중요하므로 디자인을 전공하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로봇공학이지만, 이제는 공학에서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장하고 있어요. 로봇공학이 아닌 '로봇학'이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Q. 로봇공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소양이 필요할까요?

로봇공학자는 말 그대로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예요. 로봇은 복잡한 기계라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죠. 그러니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로봇공학자가 될 수 있어요. 자격에 구분을 짓는 것 자체가 의미 없어요. 로봇에 관심이 있고, 만들고 싶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 정도라면 가능할지도. 토니는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가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겠어요?(웃음)
로봇공학은 어떤 분야보다도 협업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본인의 생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팀워크의 핵심이겠죠. 정반합의 변증법적으로 결론을 유추해낼 수 있는 사람이 로봇공학자의 소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Q. 로봇에 대한 정의도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거 공장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기계를 로봇이라고 했다 면 요즘에는 로봇의 정의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일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로봇이라고 생각해요. 물리적인 일 뿐만 아니라 판단 능력도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로봇 청소기는 로봇이 맞아요. 왜냐하면 움직이면서 청소하고, 장애물을 인식하고 최적 경로로 청소하려고 하죠. 스스로 충전하러 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요즘 이슈가 되는 챗봇, 이름이 봇이긴 하지만 로봇은 아니죠. 채팅 상황에서만 존재하고 움직임은 없죠. 지금 시점에서의 로봇은 모빌리티 즉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스스로 판단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인 인공지능(AI)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Q. 교수님이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등 다양한 종류의 로봇이 있는데요. 로봇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나요?

로봇은 일반적으로 '제조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으로 분류합니다. 제조용 로봇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물건을 제조하는 전통적인 로봇들이죠. 최근에 로봇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서비스 로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과 함께 살면서 인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로봇을 서비스 로봇이라고 해요. 서비스 로봇은 또 일반 서비스 로봇과 전문 서비스 로봇으로 나뉩니다. 식당에서 서빙을 하거나, 요리를 하는 등 일상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로봇을 일반 서비스 로봇으로, 의료용 로봇이나 군용 로봇 등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로봇을 전문 서비스 로봇이라고 분류해요.

저는 인간과 닮은 로봇인 휴머노이드 로봇 제작을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 공간이 우리에게 맞춰서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로봇이라면 인간의 형태와 비슷해야 일상 공간에서 무리 없이 주변의 것들을 다양하게 잘 쓸 수 있어요. 그러니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 안에서의 최적 설계인 셈이죠.



Q. 로봇을 연구해오시면서 보람을 느낀 적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반려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주로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으로 반려 로봇 테스트를 진행해요. 얼마 전, 반려 로봇 '에디'와 아이들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특별기획전을 국립부산과학관에서 진행했어요. 감성봇인 에디는 웃기도 하고, 슬픈 표정을 짓기도 하며 아이들을 졸졸 따라





다녀요. 아이들이 헤어지기 싫어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찢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면, 로보컵 대회를 빼놓을 수 없겠죠. 작년과 올해 준우승을 했어요. 로보컵은 말 그대로 로봇들의 월드컵으로 로봇대회 중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손꼽히는 대회예요. 로봇들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2:2로 축구 경기를 해요. 이때 연구원들은 그저 관객일 뿐이에요. 우리가 계획했던 작전대로 골을 만들어 내는 장면을 볼 때, 국가대표 축구팀이 골 넣을 때보다 몇 배 더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Q. 로봇이 발전한다면 미래에는 인간이 설 자리를 잃게 되고, 로봇이 모든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일은 변해왔어요. 기술이 발전하고 세대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예전 보다는 속도가 빨라지겠지요. 아마 단순 반복 노동을 하는 일자리는 로봇이 대체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없어지는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재교육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로 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 보장 체계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켜줄 것인지 등 체계를 얼마나 잘 다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로봇으로 인해서 부가가치 즉 새로운 일자리가 많아질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 만들어짐에 따라 앱 개발자, 수리기사 등 많은 일자리가 생겼죠.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Q. 끝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는 월간내일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막연한 두려움 대신 로봇의 등장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를 고민하는 게 좀 더 미래 지향적인 모습입니다. 변하는 일자리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미래가 보여요. 변화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로봇이라는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
기술! 과거에도 미래에도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사)대한민국숙련기술인총연합회 배명직 회장



지난 6월 30일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매년 9월 9일이 ‘숙련기술인의 날’로 제정되었습니다. (사)대한민국숙련기술인총연합회 배명직 회장이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고 숙련기술인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숙련기술인의 날’ 제정을 건의한 2020년 7월 1일 이후 3년 만의 성과였습니다.

기능인, 대한민국의 자부심

“기술이나 기능이라 하면 전통적인 제조업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 산업현장이 그러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산업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해 온 기능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겁니다. 기술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주인공들이 바로 현장에서 땀흘려 일하신 기능인들입니다.”

배명직 회장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이 될 수 있었던 동력이 ‘기능인의 땀’이라 생각해 그들이 흘린 땀의 가치를 인정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과거처럼 열악한 산업현장은 줄어들었지만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는 과거보다 더 낮아진 것 같아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숙련기술인의 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숙련기술인의 날’ 제정 노력

배 회장은 총리와와의 간담회에서 ‘숙련기술인의 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총리 지시로 추진하게 된 일이라 쉽게 제정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국회의원의 발의와 관계부처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숙련기술인’에 대한 이해가 너무도 부족한 현실을 절감했습니다. 배 회장은 3년을 한결같이 숙련기술인의 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자리에는 무조건 달려가 설명하고 설득했어요. 너무 힘들어 포기할까 생각도 했지만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포기하지 않

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간의 노력으로 숙련기술인의 날은 이원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올해 6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6월 30일 재석 261인에 찬성 253인으로 통과됨으로써 제정되었습니다.

기술의 가치 담은 숙련기술장려법

숙련기술장려법은 1989년 4월 1일 제정된 기술장려법이 시작입니다. 이후 숙련기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5월 31일 숙련기술장려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조항도 전





부 개정했어요. 이후에도 산업에 필요한 숙련 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지만 현장의 숙련기술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2023년 7월 18일 공포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 개정법률에는 '숙련기술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와 숙련기술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한다.'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숙련기술인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것을 부칙으로 포함시켰어요. 이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9월 9일에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숙련기술인의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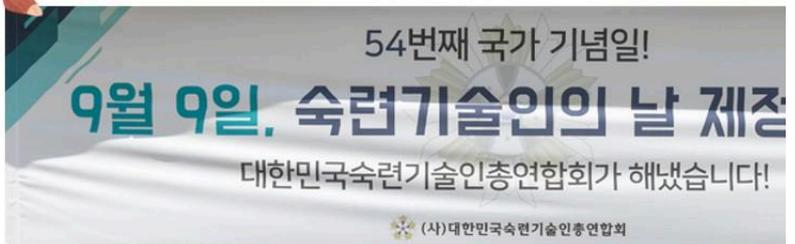
기능인, 명장, 그리고 숙련기술인

지난 3년간 숙련기술인의 날 제정을 위해 애쓴 배 회장 또한 기능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표면처리 분야 명장이자 기능한국인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취득한 화학분석기사 자격증으로

부천의 도금공장에 취업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나도 이런 큰 공장의 사장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가지기 시작한 것도 이 도금공장에서였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품질 관리, 영업, 생산 등 모든 업무를 경험하면서 실력을 키워가는 중에 도금공장이 부도가 난거죠. 배 회장은 1985년 부도난 공장터의 일부를 빌려 '기양금속'을 창업했습니다. 그 때 나이가 스물일곱이었어요. 젊은 사장은 일이 주어지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갔습니다. 납품도 리어카를 끌고 직접 했어요.

경험이 쌓이고 품질을 인정받으면서 국방부에 납품하는 통신, 화약 장비 부품의 도금을 하게 되었고 회사의 규모도 커졌습니다. 생산·영업·품질·판매까지 총괄하느라 잠잘 시간조차 부족했는데도 기술에 대한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기술력은 자신 있는데, 외부 기업과 소통할 일이 많아졌어요. 왜 그런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



문적인 이론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서른 일곱에 전문대학 표면처리과에 입학해 전기도금기능사, 특수도금기능사를 취득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신소재공학과로 편입해 표면처리 기능장을 땀어요. 2007년에는 제 8호 기능한국인과 국내 1호 표면처리 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표면처리 기술을 접목한 녹슬지 않는 칼’을 개발하고 ‘골드마이스터’라는 브랜드로 소비자 시장에도 도전하는 등 표면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도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기술은 희망

배 회장은 숙련기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숙련기술인이 참여하는 멘토링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사)대한민국숙련기술인총연합회가 한국잡월드와 함께 진행하는 이 사업은 숙련기술인에게 직접 기술을 배우면서 기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키우고, 해당 기술 계열에 대한 구

체적인 진로나 직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4월에 시작해 8월까지 1,710명이 참가해 69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높아 하반기 일정으로 3,600명이 사전 접수해 187개의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배 회장은 기술이란 전통적인 제조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과거의 기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산업에 따라 개선되고 발전되어 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을 일으킨 것이 기술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굳건히 할 것이 바로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 숙련기술인의 사명입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기술이 희망이라는 배명직 회장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숙련기술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노사관계가 국순당에 미치는 영향

2022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국순당



어르신들의 전유물이던 막걸리의 변신이 화제입니다. 과자와 협업한 제품, 파전 우산 굿즈 등 기발한 전략으로 MZ와 소통하면서 '젊은 술'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반세기 역사를 가진 국순당 역시 발 빠르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으로 소비자와 소통하고 사내제도의 변화로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2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았지요. 국순당의 소통과 협력이 만들어내는 기업의 변화가 궁금했습니다.



소통, 노사관계의 시작

직장에서 '소통'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노사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순당은 '소통'을 새로운 노사관계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잘 들어야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러다 보니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가능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서로에 대한 이해는 신뢰가 되었고 이것이 바탕이 되면서 긍정적인 성과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마음을 읽다

2023년 현재 53주년을 맞이한 국순당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노사 대립이나 갈등은 크게 없었습니다.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고민을 심각하게 할 정도의 위기는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함께 5년간 지속되던 적자는 사내 분위기 침체와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가져왔습니다. 즐거워야 할 일터에 그림자가 번지면 생산성 역시 떨어집니다. 변화를 고민해야 할 때였지요. 국순당의 이념은 '좋은 술을 빙기 전에 먼저 사람을 생각한다'입니다. 그러니 그 술을 빙는 사람을 먼저 살펴야 했습니다.

소통의 시작은 '경청'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먼저 직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휴가를 쪼개어 쓰고 싶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시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는



반반반차(1시간 연차)를 도입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여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생일을 맞은 직원들이 자신만을 위한 휴식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생일 휴가(1일)도 만들었습니다. 국순당에서만 할 수 있는 건의 사항도 있었습니다. 바로 '직원 술 협찬'입니다. 구성원들의 주변에서는 '술 제공 부탁'이 많습니다. '국순당을 다니니 술을 좀 달라'는 농담반 진담반의 요청을 안 들어 본 구성원이 없을 정도지요. 개인이 지원하기도 또는 늘 무시하기도 애매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순당에서는 구성원에게 반기별로 자사 제품(캔 막걸리 한 박스)을 협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순당 직원이라는 자부심을 나누는 것이죠.



다양한 소통창구의 확보

국순당에는 노사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노사협의회 운영 외에도 다양한 소통창구가 있습니다. 국순당 곳곳에 있는 상생고충 건의함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고충을 호소하는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면서 다양한 고충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진행되는 간담



회도 있습니다. 이는 공정별 파트장을 통해 고충 처리 안건을 접수하여 진행하는데요.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고충을 나누고 개선합니다. 직원들과의 소통뿐만 아닙니다. 원-도급업체 간 상생협력을 위해 매달 도급 회의를 통해 관계사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막걸리의 제조와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 '소통'이라는 DNA를 심었습니다.

국순당의 통합적 소통문화

국순당은 다양한 소통문화를 구성원에만 국한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원 단합을 위한 소운동회, 직원 우정의 날, 회식문화 캠페인 등 노사가 함께 모여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행사뿐만 아니라 도급업체와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와 워크숍도 진행했습니다.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안전교육과 걷기 운동 챌린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참여하는 요리교실과 술빚기 체험으로 구성원의 가



족을 가장 중요한 고객 중 하나로 챙겼습니다. 무엇보다 일과 휴식의 분리를 보장했습니다. 근무 외 시간을 철저히 개인의 휴식시간으로 보장해 '휴식다운 휴식'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근무시간의 효율을 높인다는 생각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실천

소통을 위한 다양한 시도는 자연스럽게 분위기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자연스러운 소통 문화와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으로 업무 피로도를 낮추고 집중도를 높였으니 당연히 생산성도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바뀐 조직 문화는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흑자의 원동력이 되었지요. 국순당은 지금도 노사의 관계에서 소통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구성원들이 편하게 소통하는 분위기로 기성세대와 MZ세대가 화합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국순당의 노사문화는 '함께 즐거운 직장생활을 하자'는 생각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함께 즐거운 직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쌓여 국순당의 문화가 되고,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노사문화 우수기업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그 시작은 작습니다. 이 작은 활동에 진심을 다하면, 그렇게 쌓인 결과는 언제나 기대 이상의 성과로 돌아옵니다. 국순당은 노사관계 개선이 아닌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활동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작은 활동부터 시작해서 노사관계 향상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서 나간다면 보다 업그레이드된 노사문화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국순당 | 박선영 본부장

Interview

Q. 국순당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노사관계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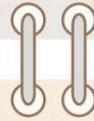
A. 노사관계는 상호 존중의 문화이지 않을까요?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문화가 정착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국순당의 노사문화의 특징은?

A. 우리 직원들은 국순당이 전통주 선도기업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전통에 대한 자부심으로 상호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

A. 노사문화 발전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국순당 | 배영 과장

Q. 노사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A. 우선 CEO의 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생각해요. 직원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겠죠. 노사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꾸준하게 이어진다면 아무리 딱딱한 조직문화라도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사문화는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씨앗을 심고, 싹을 틔워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과정처럼 차근차근 이뤄지는 것입니다.

Q.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해 비라는 점이 있나요?

A. 노사관계는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을뿐더러 잠깐의 공백으로 많은 부분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앞으로도 회사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노측과 사측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앞서가는 노사문화를 만들어 노사가 함께 발전하는 국순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방문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의 핵심부품입니다.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면서 인적 자원 개발의 중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는 2020년 3월 출범했습니다. 졸업 후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 역량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를 찾아가보았습니다.

반도체 전문가 되기 위한 역량,

반도체융합캠퍼스에서 장착 가능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는 종합 기술 대학으로 경기도 안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은 지난 7월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바 있는데요. 주변의 성남, 평택, 천안, 청주, 이천 등 우수한 반도체 기업이 밀집한 산업 벨트가 구축되어 있어 지리적 인 이점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캠퍼스라 그런지 입구에서부터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학구적인 인재가 가득할 거라는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 훌륭히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극소량의 먼지에도 취약하므로 미세먼지와 세균을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 반도체 생산공정(Fab)과 비슷한 환경의 반도체 청정실(클린룸)이 구축되어 있어 학생들은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실무형 인재 양성을 통한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밀착형 교과, 현장실습 교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밀착형 교과는 2학년 2학기에 산업체 현장과 연계하여 취업 후 현장 학습활동을 출결로 인정하고 해당 교과목 평가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또, 현장실습 교과는 교내에서 배운 내용을 산업현장에 적용하여 직접 경험함으로써 현장 적응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교과(학기 종료 이후 4주간 진행)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취업 역량을 끌어올리며, 졸업 후 취업으로 연계되기도 합니다.

학과별로 실습 장비, 교육 과정은 다르지만, '융합프로젝트실습'이라는 교과(학과 간 융합/학과 내 융합)가 있다는 점 또한 특별합니다. 학과들이 하나로 뭉쳐 반도체 장비 콘셉트 설계부터 반도체 장비 상세 설계, 반도체 장비 조립/평가, 유지보수까지 학생들이 직접 실습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를 구현(학과 간 융합)하기도 하며, Flash ADC 설계, SRAM 레이아웃 설계 등(학과 내 융합)을 해내기도 합니다.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드립니다

파란색 방진복을 입고 직접 반도체 교육 현장인 Learning Factory에 들어가 봤습니다. Learning Factory 안에는 최소한 1-2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반도체 기계들이 가득했습니다. 각각의 장치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교수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의 두께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장치, 반도체의 모양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장치, 만들어진 반도체의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전기를 흘려보내는 장치 등 굉장히 다양한 기계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적합하도록 실제로 기업체의 양산라인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간소화된 버전으로 Learning Factory를 구성했습니다. 직접 구매한 장비도 있고, 기업체에서 실제로 사용하던 장비를 기증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반도체는 1nm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작업인 만큼 다룰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교육과 실습을 일반인들도 체험해볼 수 있을까요?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는 대국민 진로직업 교육 서비스인 '꿈드림공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생소한 분야를 국민들이 좀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반도체 공정 체험, 소자 측정, 레이아웃 실습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재직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15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의 김응주 교학처장은 '반도체 교육,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교수진은 대기업에서 10년에서 15년 정도 근무한 경험이 있고, 각종 기능장 자격증과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시제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것처럼 현장에서 바로 쓰일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 주세요. 반도체의 미래와 가능성을 믿는다면,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와 함께 그 꿈을 펼쳐 보는 것이 어떨까요?



※ 유현승 정책기자의 생생한 방문 기사는 고용노동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폭염 대응 현장 점검,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하기

#폭염대응점검 #중소사업장현장애로사항

지난 8월 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대형마트와 제조업 중소기업장을 찾아 폭염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전 대형마트를 방문해 주차 관리, 상품창고 관리 등 폭염에 취약할 수 있는 작업장을 중점적

으로 살펴보고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오후에는 석재 제조업 중소기업장을 방문해 근로자들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험 기계 등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관리 상황도 살폈습니다. 온열질환 예



방수칙 준수 당부와 함께 근로자 보호의 첫 단추는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라고 강조하는 등 중소기업장이 위험성 평가를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 내일을 밝히는 균등한 지역 일자리 창출

#일자리대상 #지역일자리정책

고용노동부는 2012년부터 지역 일자리정책의 추진 성과가 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 모델을 개발한 자치단체를 매년 선정하여 일자리대상을 시상해오고 있는데요. 8월 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2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영예의 대통령상은 도내 노동시장 특성을 분석하여 철강·이차전지산업(동부권), 전자산업(서부권), 자동차부품산업(남부권), 농업·바이오산업(북부권) 등 4개 권역별 특화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 경상북도가 수상했습니다. 국무총리상은 인

천광역시와 충청북도 음성군이, 울산광역시, 경남 거제시 등 62개 자치단체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정부는 뿌리산업의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자치단체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의 일자리 기회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고용허가제의 어제와 오늘, 'EPS 콘퍼런스'

#EPS콘퍼런스 #16개송출국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9일~11일 고용허가제(EPS) 송출 국가들과 지방자치단체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3 EPS 콘퍼런스'를 부산에서 개최했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부산에서 열렸으며, 행사에는 한국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등 16개 송출국 주한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3일간 진행된 행사에서는 고용허가제 성과와 개편 방안에 관한 강연, 외국인 고용지원사업 추진 방향 논의 등이 이뤄졌습니다. 이 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허

가제의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기 위해 송출국들과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변화된 경제·사회적 상황에 맞춰 고용허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4 사각지대 없는 위기탈출 안전보건앱

#현장점검의날 #위기탈출안전보건앱



안전보건앱 설치하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 (Android), 앱스토어(iOS)에서 '위기탈출 안전보건' 검색 후 설치

태풍과 온열질환 피해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고위험사업장 1,500여 개소를 점검했습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중소규모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외국인 근로자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위기탈출 안전보건앱'과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산재사고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위기탈출 안전보건앱'에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다국어 회화 기능과 교육용 각종 안전보건 자료가 등록돼 있다고 해요. 열악한 작업환경과 문화, 언어적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 조치 추진 #위험성평가 #자기규율예방체계

지난 7월 31일 중대재해 감축 이행점검을 확인하는 전체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정책의 핵심 전략을 '규제와 처벌'에서 '참여와 협력'으로 전환하면서 노사가 협력하고 안전한 일터를 마련하고자 지난 5월 고용노동부에서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단숨에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으나, 한 명의 근로자라도 더 지키고자 하는 절박함으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

니다. 또한 이행상황을 점검함으로써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6 8.18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근로자의건강과안전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장이거나 총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업 공사현장 또는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특정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휴게시설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제도를 시행하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로써 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공간 부족이나 비용 부담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기 원하는 사업장은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비용지원 신청서를 접수(방문 또는 우편)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일선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7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평등한 안전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주거환경개선 #우수기숙사인증

농촌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머무는 **숙소**를 **점검**합니다

주거환경 전수 조사
'23.9월~12월

- ✓ 숙소 유형 조사
- ✓ 근로기준법 충족 여부
- ✓ 애로사항 청취

**위반 숙소
사업주 자진신고**
'23년 7.26~8.31.

- ✓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자칫 위반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23년 12.31일까지 시정기간 부여

**우수 기숙사 인증을 받으면 사업장 지도·점검이 면제되며
고용허가 신청 시 가점이 있습니다. *2년간**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노동관서 외국인팀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가 나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합니다. 우선적으로 자진신고를 받고 연말까지 전수조사의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주거환경 위반 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열악한 농업 분야의 주거 여건을 고려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농업 분야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이 한층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8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 모집 중

#청년친화강소기업 #다양한지원혜택

고용노동부와 (사)벤처기업협회는 9월 12일까지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기업을 접수합니다. 2023년도 강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 2030자문단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선정기준을 개편했습니다.

-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노동관계법 위반시 결격요건 신설
 - 부실한 기업*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기업 현장실사 강화
- *예) 일생활 균형제도(유연근무제, 자녀양육지원 등)를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경우

고용노동부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모집중

모집기간
'23.8.23.(수)~9.12.(화)

선정기준

- 채용사업주 명단,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에 해당하지 않고, 신용평가 및 매출 실적이 양호한 회사 중에서, 청년친화적 근로여건을 심사하여 선정

24년도 개편사항

- 부당해고, 괴롭힘, 성희롱 등 노동관계법 심사 강화
-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 반영

지원할 기업 혜택

-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 채용박람회 참여 지원
- 청년서포터즈, 홍보영상 제작 등 홍보
-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금융 우대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신청시 우대
- 병역특례 지원

신청방법 청년친화강소기업 누리집(kangso.kovra.or.kr) 온라인 접수(9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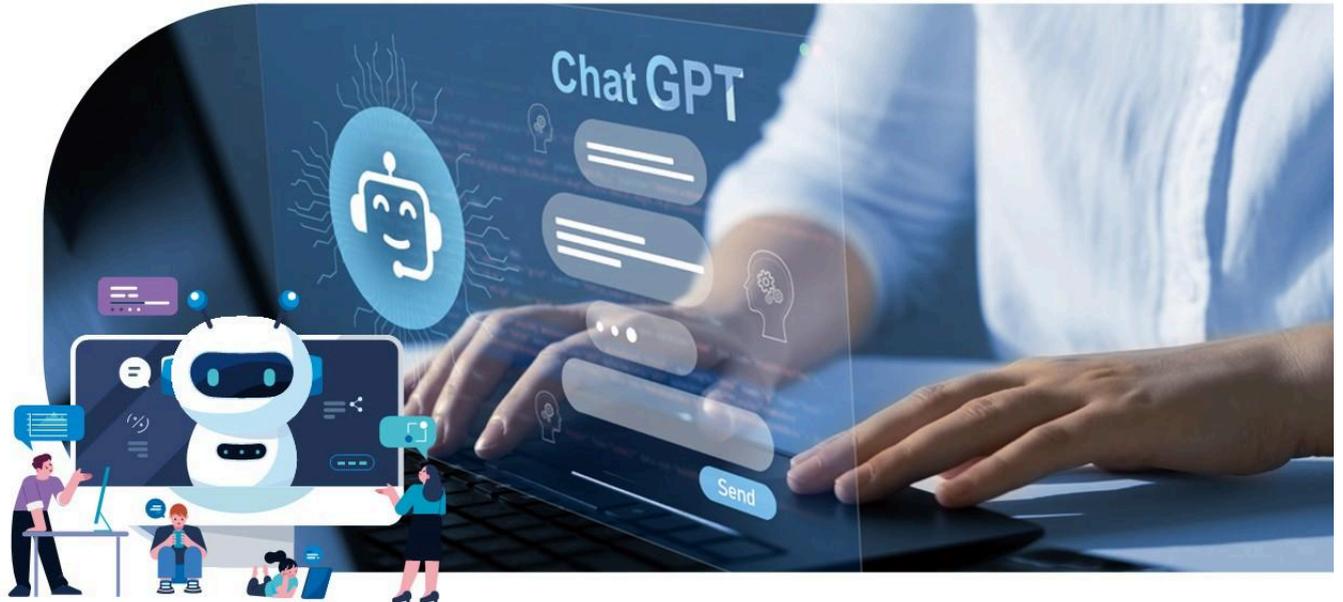
-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 선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 부담 완화
- 선정된 기업은 채용박람회 참여, 기업 홍보, 은행 대출 보증 우대, 세무조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중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과 언어로 소통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

Prompt Engineer



지난해, 대화하는 인공지능(AI) ‘챗GPT’의 등장은 그야말로 혁신이었습니다. 다들 ‘챗GPT’를 한 번쯤은 써 봤을 거예요. 호기심으로 하나 둘 써보더니 최근에는 너도나도 업무에 이 ‘챗GPT’를 이용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 ‘챗GPT’를 활용하는 직업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챗GPT’ 활용에 필요한 질문을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프롬프트 엔지니어’입니다.



‘챗GPT’는 정보를 찾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마치 사고를 하는 듯한 창의적인 답변까지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챗GPT’의 등장으로 많은 기업이 같은 언어모델을 사용한 ‘챗봇’ 서비스를 개발 중인데요. 사용자가 ‘챗GPT’에 하는 질문을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챗GPT’는 프롬프트 내용에서 답변의 소스를 찾는 원리로 작동하는데 사용자의 프롬프트 작성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등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질문의 질을 컨트롤하는 것이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역할이라 할 수 있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기업에서 ‘챗GPT’ 활용을 위한 프롬프트를 직접 개발하거나, 프롬프트 작성 기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해 시장을 확장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장한 따끈따끈한 직업이라 생소하지만 유망한 분야로 거론되고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면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 기술 영역이라 생각해 자연스럽게 특정한 전공이나 자격증 등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숫자와 특수문자로 이루어진 복잡한 배열이 연상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우리가 매일 쓰는 말과 글을 연구하며 질문의 질을 연구하는 일이 중심입니다. 오히려 인문학도가 접근하기 쉬운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과 사람을 연결하고, 서로를 완벽히 이해해야 하므로 융합적 사고를 하는 역량이 꼭 필요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급변하는 사회에서 사람과 인공지능은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프롬프트 엔지니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디자인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입니다. 메타버스 공간을 구축하고 생성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하는 유메타랩의 대표 서승완입니다.

Q.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어떤 직업인가요?
'챗GPT'를 사용할 때,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가 하는 질문인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직업이에요. 특히 기업이나 단체에서 '챗GPT'를 업무에 활용할 때 보통 원하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때 적절한 프롬프트 지시를 실무에 사용할 수 있게 제안합니다.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죠.

Q.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나요?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어요. '챗GPT'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문제에 집중하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굴하지 않고 재시도를 반복하는 '해커 정신'으로 임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도 활약할 수 있습니다. 주로 마케팅, 콘텐츠 제작 업체에서 작업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챗GPT'는 LLM(Large Language Model)이라는 인공지능 언어모델을 사용하는데, LLM으로 '챗GPT'와 같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Q. 프롬프트를 제작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단순히 글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 프롬프트를 만들어요. 국내에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분야는 아니기에, 해외 논문에서 언급된 기법을 참고해서 사용합니다. 이 기법은 일정한 형태가 정해져 있으며, 기법마다 조건이 있어 그 조건에 맞춰 명령문을 짜요. 예를 들면, 'Few-shot Learning'이 있어요. 원하는 결과물 형식이 있다면 예시를 프롬프트에 입력하는 거예요. 최대한 많은 예시를 제시하면 정확성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챗GPT'의 LLM은 확률모델이라 이 기법을 사용해도 무조건 부합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프롬프트를 계속해서 수정하며 기법을 개발해 나가죠.

Q.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는 데 필요한 자격이 있나요?
특정 전공이나 자격증이 필요하진 않아요. 이제 막 떠오르는 직업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진로 과정도 없어요. 하지만 필요한 역량은 있습니다. 첫째는 문제해결력입니다. 적합한 결과물을 내기 위한 노력과 끈기가 있어야 해요. 둘째는 인문학적 소양과 글쓰기 능력입니다. '말'을 통해 프롬프트를 작성하기 때문에 작문에 능해야 적절한 전달이 가능해요. 셋째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예요. 인공지능 입장에 서서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써야 하므로 기본적인 원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프롬프트 엔지

니어가 되려면 이렇게 융합적인 안목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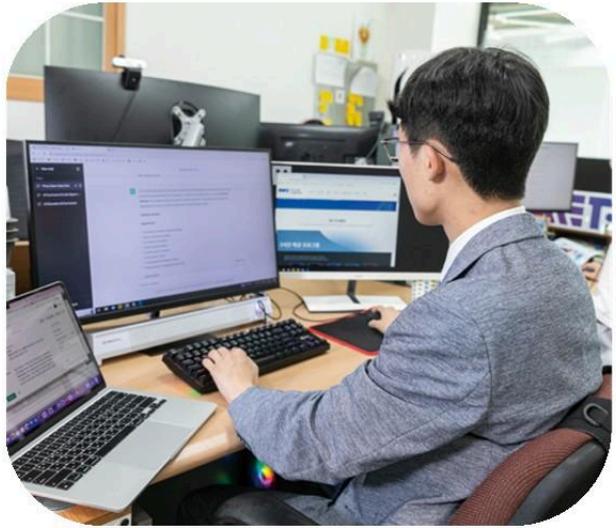
Q. 전문가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소통할 수 있는 단체를 활성화하고 싶습니다. 국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시장은 아직 크지 않아요. 채용을 원하는 기업조차 기준이 모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현재 '프롬프트 엔지니어 코리아'라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업을 꿈꾸는 사람에게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어 엔지니어 사이의 정보 공유를 돕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표준화를 통해 시장의 기반을 다지는 게 목표예요.

Q.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꿈꾸는 이들에게 응원 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의 우려와 달리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는 모든 걸 대체하고 해결해주진 않아요.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능력이 필요해질 거예요. 누구나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활용이 중요합니다. 기존의 사회에서 정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꼭 정답만이 아닐 수도 있고, 새로운 선택지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에, '챗GPT'를 포함한 인공지능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전문가가 되어보세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 시도하는 프롬프트 제작 과정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거예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지속과 발전을 위해 생태계를 만들고 가꾸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 직무 사전

★ 직무명 프롬프트 엔지니어

★ 직무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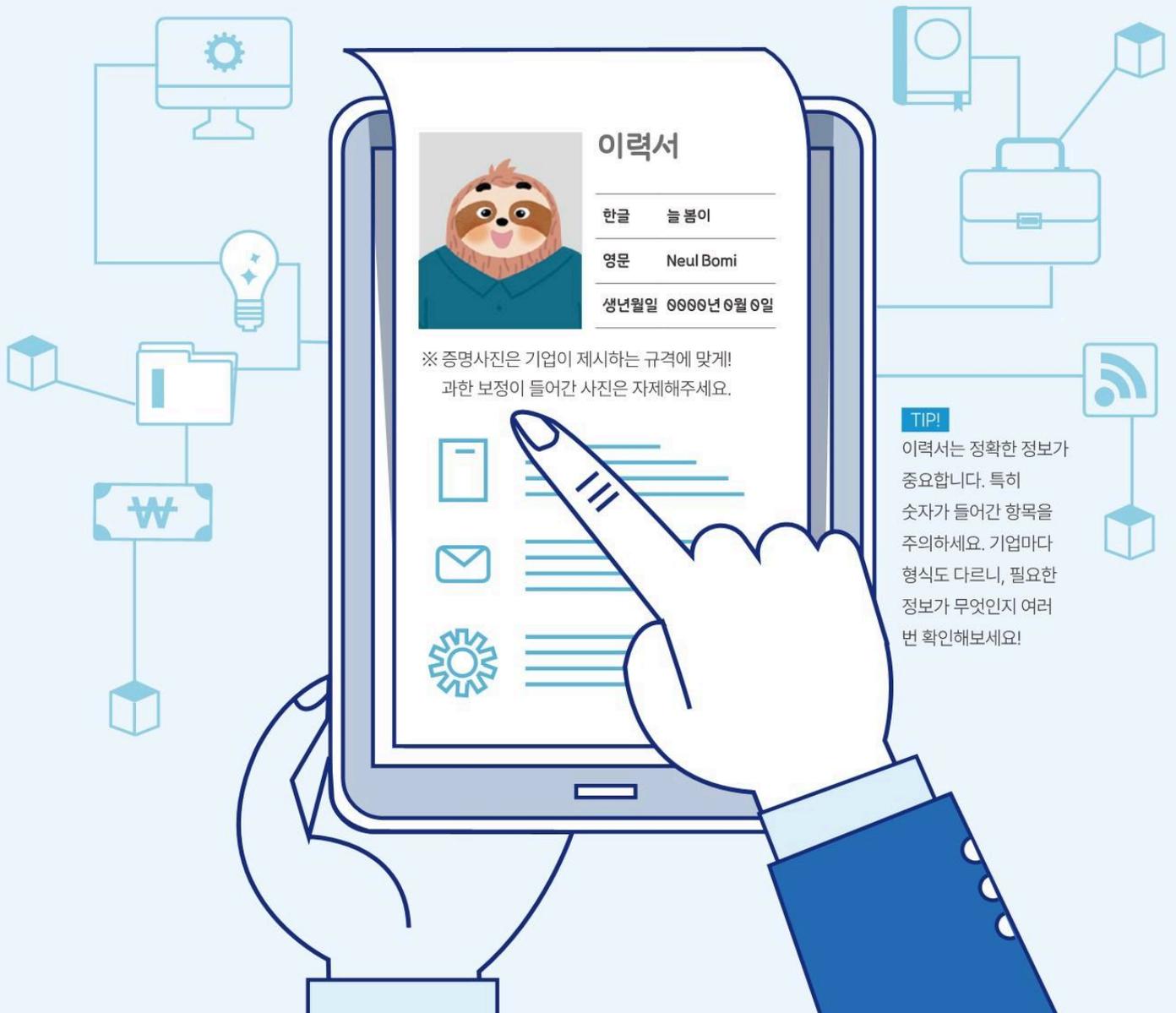
- 인공지능 언어모델의 프롬프트를 만드는 전문가
- 프롬프트 생성 과정에서 적절한 지시를 내리고 개발하는 사람

★ 직무 목표

- 프롬프트에 따른 답변에 질을 높이기 위해 지시 과정을 연구·개발
- 사용자의 의도에 맞는 정확한 답변과 결과물의 효율성 증가

알아서 잘, 깔끔하고 **센스**있는 이력서로 **딱!** 붙어보자

모두가 알다시피 취업의 첫 관문은 이력서예요. 긴 시간 공들여 쓴 이력서인데, 인사 담당자는 평균 13분 만에 검토를 끝낸다고 하네요. 짧은 시간 안에 담당자의 마음에 쏙 드는 이력서를 쓰는 비결이 있을까요? 이력서 때문에 고민이 많은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Q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A 지원하는 기업과 직무를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요. 직무가 본인에게 왜 적합한지, 어떻게 능력을 발휘해 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개인적 감상은 지양하되 당당한 태도를 잃지 마세요!

Q 성장 배경·과정, 성격 장단점 서술 문항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A 혹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살며…”로 시작하는 답변을 적은 적이 있나요? 인사담당자가 궁금한 건 구구절절한 인적 사항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회사가 요구하는 역량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격 장단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 특징을 통해, 업무 시 발휘할 수 있는 능력, 대인 관계, 위기 상황 대처 등 실무뿐만 아니라 적응 과정에 있어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작성해요. 팁을 하나 주자면 장점만 적지 말고 단점도 적어보세요. 단점 극복 경험을 함께 적어 발전하는 사람임을 드러내 봅시다.

Q 지원분야와 관련된 경험·경력을 쓸 때, 어떻게 서술해야 효과적일까요?

A 신입의 경우, 경력이 아니라도 대외활동 등 지원 분야와 관련한 경험이 있다면 공통점을 찾

아 서술하면 됩니다. 경력자의 경우, 지원 분야와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필요한 역량을 강조해서 적으면 좋아요. 증빙자료가 없는 경험을 허위로 쓰지 마세요. 이미 인사담당자는 눈치챌 겁니다. 무조건, 솔직하게! 경험·경력이 눈에 띄기 위해선 숫자와 데이터를 활용하면 신뢰성이 올라갑니다. 수치화가 어렵다면, 타인의 평가를 빌려주세요. 주관적인 자기소개서에 객관성을 더하는 거예요. 상사, 친구, 혹은 가족에게 들은 꾸준한 칭찬과 같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경험을 작성해보세요.

Q 자기소개서가 자유 형식일 때,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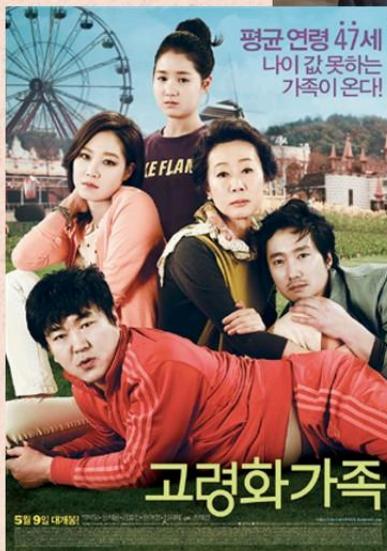
A 자유 형식을 작성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카테고리를 정해보세요. 말 그대로, 단락의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지원하는 기업의 인재상을 참고해서 뽑낼 수 있는 역량 위주의 주제가 좋겠죠? 만약 감이 안 잡힌다면, 다른 기업의 문답형 자기소개서를 참고해보세요.

둘째, 핵심 내용만 쏙 쏙 집어서 간결하게 쓰세요. 주제와 동떨어진 문장을 길게 쓰면 요지를 파악하기 힘들어요. 하고 싶은 말, 그 말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같이 중요한 내용 위주로 작성해야 읽는 담당자가 지원자를 파악하기 쉬울 거예요.

이력서는 ‘나’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글자로 담을 수 없는 사연이 있겠지만, 최대한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핵심은 맨 앞에,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과감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도 잊지 말아요. 화려한 스펙과 필력이 없다고 기죽지 말아요.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성실하게 쓴다면 깔끔한 이력서를 완성할 수 있어요. 언제나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요. 망설이지 말고, 일단 한번 써봅시다!

개봉 2013. 05. 09.
장르 드라마

감독 송해성
주역 윤여정(엄마역),
윤제문(한모역),
박해일(인모역),
공효진(미연역),
진지희(민경역)
출연 예지원, 김영재,
유승목 등



이 가족이 살아가는 법 <고령화 가족>

장편소설 『고래』로 올해 부커상 최종후보까지 오른 천명관 작가. 그가 2010년에 쓴 동명소설을 영화로 만든 송해성 감독의 <고령화 가족>. 영화는 가족이라는 보통명사에 '고령화'라는 단어를 접합시키며 유머와 시대를 동시에 담았다.

이 가족 정말 답 없다! 아내의 외도 상대를 두들겨 팬 동생 대신 감방에 다녀와 별 5개를 단 장남과, 바람난 아내와 이혼하고 영화도 실패하여 빈둥대는 영화감독 차남, 두 번째 이혼으로 딸과 함께 엄마 집으로 들어온 막내 딸. 암울한 미래와 현실에 차남 인모가 극단적 선택을 감행하려는 찰나, 전화가 울린다. 엄마다. “인모야, 이따 집에 좀 와, 닭죽 끓여놨으니까 먹고 가. 사람은 잘 먹어야 힘을 써.” 이제부터 아예 집을 싸서 닭죽을 먹으러 온 차남과 터주대감 장남, 딸까지

동반한 막내가(그나마 경제능력 있는) 합쳐지며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다. 심지어 막장드라마에 서나 볼 수 있는 출생의 비밀도 끼여든다. 뭐 하나 내세울 것 없고 잘난 거 없이 평균연령까지 높은 이 가족.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삶이 힘들 때 먼저 생각나는 건 가족이다. 전쟁터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가족과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는 건 인지상정일 터. 그런데 <고령화 가족>의 가족은 좀 다르다. 아니 많이 다르다. 한 여자를 두고 벌이는 형제간의 다툼, 엄마

와 만물점 구씨의 수상쩍은 관계까지.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고, 틈만 나면 아웅다웅하지만, 포장마차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싸우는 모습에 엄마는 “이게 가족이지!”라고 말한다.

부모는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자식 먹고 입히는 데 온 힘을 쏟기 마련.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모습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했던가. <고령화 가족>의 엄마도 마찬가지다. 제비 새끼처럼 노란 주둥이를 벌리고 모인 자식들을 배불리 먹일 만한 음식으로 선택한 건 ‘삼겹살 구이’다. 영화는 엄마가 삼겹살 굽는 장면을 다섯 번이나 보여준다. 한국사회에서 고도 경제성장의 어지럼증을 견뎌낸 건 엄마의 힘이었다. 이 가족을 지탱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고령화 가족>의 파란만장은 영화 끝에서야 보상받는다. 지리멸렬하지만 가족을 사수하려 노력한 시간에 대한 보상이다. 막내 미연은 세 번 만에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차남은 성인영화를 찍으며 자기 삶을 산다. 바닥 인생을 정리한 장남은 미용실 수자 씨와 평범한 일상을 시작했다. 오늘도 엄마 손에는 자식들을 거뒀 먹일 삼겹살 봉지가 들려있다.

“
식구가 별거니?

엄마는 말한다. 한데 모여 살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울고 웃으면 그게 가족이라고. <고령화 가족>은 세상이 변하고 세대 가치가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가족에 집중한다. 부유하고 대단한 집안의 가족만 소중한 게 아니라, 평범하고 소박한 삶도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강조한다. 흠 많고 탈 많은 개개인이 걱정 없이 실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가족이라고 말한다.

“
부족하고 좀 서툰면 어떤가. 삶에 정답이 없듯이 사랑도 정답 없고, 가족도 정답은 없다.



포용적 리더십이 우리에게 미치는 상관관계

세계적으로 오래된 장수기업들 다수가 가족기업이란 사실을 아는가. 국내에 비해 유럽은 가족기업들을 우호적으로 평가하는데, 그 기저엔 직원들을 우선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등 오늘날의 지속 가능한 경영(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이 담고 있는 경영철학이 이미 담겨 있었다. 세계 최대 젤리 생산기업인 독일의 하리보(HARIBO)는 삼 대째 이어진 가족기업으로 2020년 100주년을 맞이했다. 하리보 창립자 한스 리겔은 견습생들과 직원들에게 목표를 공유하며, 목표를 향한 협업문화를 만들어 갔다. 유한킴벌리는 40년 전 이미 ESG 경영을 실천했던 기업이다. 숲가꾸기 캠페인, 직원들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 가족친화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최근에는 ‘취약계층 보호’로 확장하여 저소득층 청소년과 시니어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이윤을 창출하는 선진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내 가족만 가족인 편협한 가족기업이 아니라, 기업 구성원 모두를 내 식구처럼 여기는 포용적 가족기업만이 오래도록 살아남는다. 고령화 가족의 엄마가 모두를 품듯 말이다.

직장인 생활백서! 한 번에 결재받는 보고서를 위한 비법!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고서를 써 본 적 있을 거예요. 보고서에 따라 정해진 형식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어요. 백지상태에서 쓰려고 하면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애써 작성해서 제출해도 결재받는 과정에서 수정해야 할 것들이 생기는 등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때문에 보고서 작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들도 많다고도 하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 번에 결재받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방법!



1 제로드래프트, 가장 먼저 하세요! 꼭 하세요!

제로드래프트란 초안 작성 전의 단계를 의미하는데요.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가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란 저서에서 제시한 방법입니다. 초안 작성 전에 내가 무엇을 쓰고자 하는지 전체적인 틀을 잡는 과정이에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메모지와 펜을 준비하고 ①보고서의 목적 ②보고 기한 ③보고 대상 ④보고서의 주요 내용 ⑤보고서의 구조를 정리합니다. 제로드래프트로 내가 쓰고자 하는 보고서의 성격은 무엇인지, 이 보고서로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쓸 때 자주 하는 실수가 바로 계획했던 방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목적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자료조사부터 먼저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채 자료를 찾아 보면 자료에 매몰되어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논리를 벗어난 보고서가 되기 쉽습니다.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곤 합니다. 제로드래프트는 자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목적 설정을 가장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단계예요. 제로드래프트를 충분히 정리하면 논리를 벗어난 보고서를 수정하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자료조사가 아닌 자료분석

초안 작성 과정을 거치며 보고서의 기반을 정비했다면 다음은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탄탄한 보고서의 기본은 충분한 자료조사에 있습니다. 우리는 트렌드를 살피고,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흐름을 파악하고 각종 통계나 참고문헌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지요. 많은 자료를 모을수록 정보의 양도 많고 시장 상황이나 앞으로 할애할 과업의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자료조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자료조사는 분석을 위한 선행 단계에 불과합니다. 물론 정확하고 유용한 자료가 있어야 제대로 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자료조사 역시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수집된 자료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자의 관점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도출해 낸 결론을 담아야 합니다. 많은 양의 자료를 조사하기보다는 보고서의 목적에 맞는 자료를 수집해 분석해야 하죠. 이렇게 조사하고 분석한 것을 핵심 문장으로만 들어 간결하게 담으면 됩니다.



3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누구나 처음은 어렵습니다. 작성한 보고서를 결재받을 때마다 잘못된 항목은 없는지 걱정되기 마련이에요. 사실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대부분 보고입니다. 보고를 잘할수록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해져요. 겁먹지 말고 우리가 대화하는 것처럼 종이 위에서의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가다 보면 어느새 완성되어 있는 보고서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보고서는 4종류로 통합니다

보고서의 종류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형은 크게 4가지입니다. 각자의 특성을 알아두면 내가 써야 할 보고서에 따라 4가지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① **결재 보고서**: 가장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자사 양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양식에 맞춰 간단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이전 담당자의 결재문서를 살펴보고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② **업무 보고서**: 일일 업무나 주간 업무, 월간 업무 각 단위의 업무 상황과 더불어 진행 과정, 결과를 정리해 보고할 때 쓰는 양식이에요. 업무 개요, 진행 상황, 향후 일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문장으로 이어쓰기보다는 개조식으로 요점을 정리하면 좋습니다.
- ③ **상황 보고서(자료조사)**: 특정한 목적을 두고 자료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정리해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핵심만을 정리하거나 요약본을 만들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의 상사는 내용을 모두 살펴볼 여유가 많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자료조사의 목적에 따른 결과를 요약본으로 정리하고 필요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④ **종합 보고서(조사+솔루션)**: 자료조사를 토대로 자신의 의견이나 해결 방안을 추가하여 작성하는 보고서입니다.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작성자가 제안하는 해결 방안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의사결정자가 참고할 때 유익합니다. 이때도 요약본을 만들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넬툰

글·그림
난나

계획을 세우는 이유

나는 지독한 무계획형 인간이다.

(극 J들 사이에 킨 극 P)

넬툰
난나의 취미 알기

1

이렇게 살면 안될 것 같아,
계획 전문가인 동생에게 이것저것 물어봤다.

있자나... 나 물어볼 거 있잖아...

2

Q. 내가 계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안녕은 너무 완벽하게 해내려 해서 그런듯...
그래다가 하나가 틀리면
실망하고 쉽게 포기해버려?

3

Q. 그럼 계획은 어떻게 짜야하는 거야?

계획을 잘 따르는 일단 큰 주제를 먼저 정해,
그리고 마인드 맵처럼 세부사항을 적는거야.
이 때는 사소한 것이라도 중요
떠오르는 건 다 적어봐.
그리고 중요한 건 표시해봐!

4

그리고 동생이 했던 말 중에서,
"너무 완벽하게 해내려 하지 마. 일단 하면 된 거지."
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편하게 해~

5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으면서 나를 우선시 하는 것,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그것이 계획을 세우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계획을
짜봐~

6

도전하기!



비정규직 근로자, 내 이름이 뭐야?

알고 보면 쉬운 근로 유형

비정규직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는 걸 아셨나요? 근로시간과 기간, 고용자와의 관계 등 조건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요.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고용 형태를 소개합니다.



01 근로시간과 기간에 따른 유형

● 단시간 근로자

같은 사업장,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입니다. 1주(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요.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내로 사용해야 하나(초과 시 무기계약 간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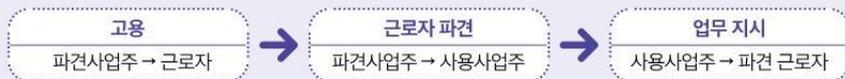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서 예외를 확인할 수 있어요.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온라인 포털에 '기간제법'을 검색해보세요.

02 고용자와의 관계에 따른 유형

※ TIP! 용어가 어려워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유형은 단계로 이해하면 쉬워요.

● 파견 근로자

먼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합니다.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해요. 이때,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내려요.



* 파견사업주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보내는 역할을 해요. 사용사업주는 말 그대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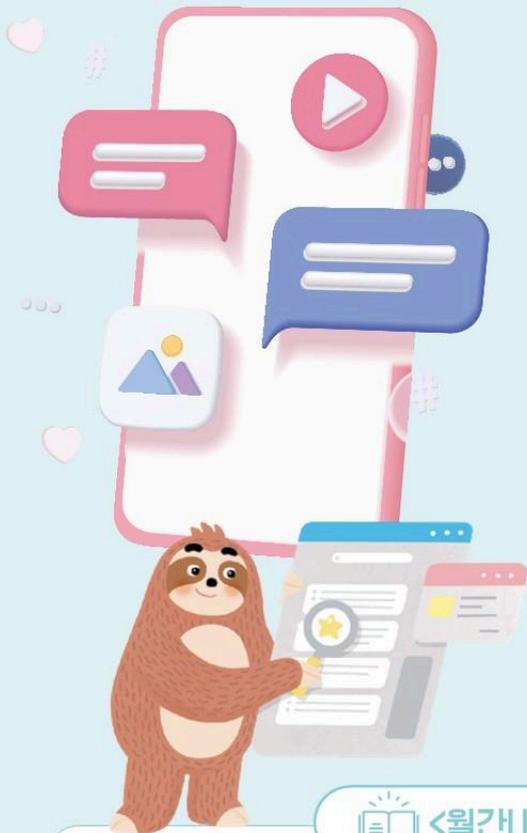
● 수급(인) 근로자

원사업자가 주는 업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있습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급 사업자가 고용하는 근로자가 수급(인) 근로자예요. 이때, 수급 사업자가 수급(인)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내려요.



*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보다 연간 매출액이 큰 기업이에요. 보통의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기업이 원사업자에 해당하겠죠? 수급 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일을 받은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수급 사업자는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자여야 해요.

#일스타그램



웹진에서 만나는 #일스타그램 이벤트

여러분의 일은 어떠신가요?
 사랑하고픈 근무 환경, 든든한 나의 동료,
 보람찬 나의 업무, 노력이 묻어나는 구직활동까지.
 <월간내일>에서 구독자들 저마다의 '일'을 모두와 공유하며
 함께 공감하고, 웃고, 즐겨 보아요.



참여방법

- 1.인스타그램에 나의 '일'을 표현하는 사진을 선택한다.
 - 2.본문에는 관련 코멘트와 함께 해시태그 '#월간내일_일스타그램'을 필수 기재하여 게시한다.
- * 비공개 계정은 참여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참여혜택

참여 게시물이 해당 웹진에 게재될 시, 디지털 쿠폰을 지급합니다.
 당첨자에게 별도의 연락을 드립니다.

<월간내일> 구독 및 구독 해지 방법

01

<월간내일> 웹진에 접속합니다.



웹진 바로가기

02

왼쪽의 늘봄이(QUICK MENU)를 클릭하고 '구독신청 및 해지'를 클릭합니다.

또는
홈페이지 제일 아래쪽의 '구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03

구독하시려면 '신청하기' 버튼을, 구독을 해지하시려면 '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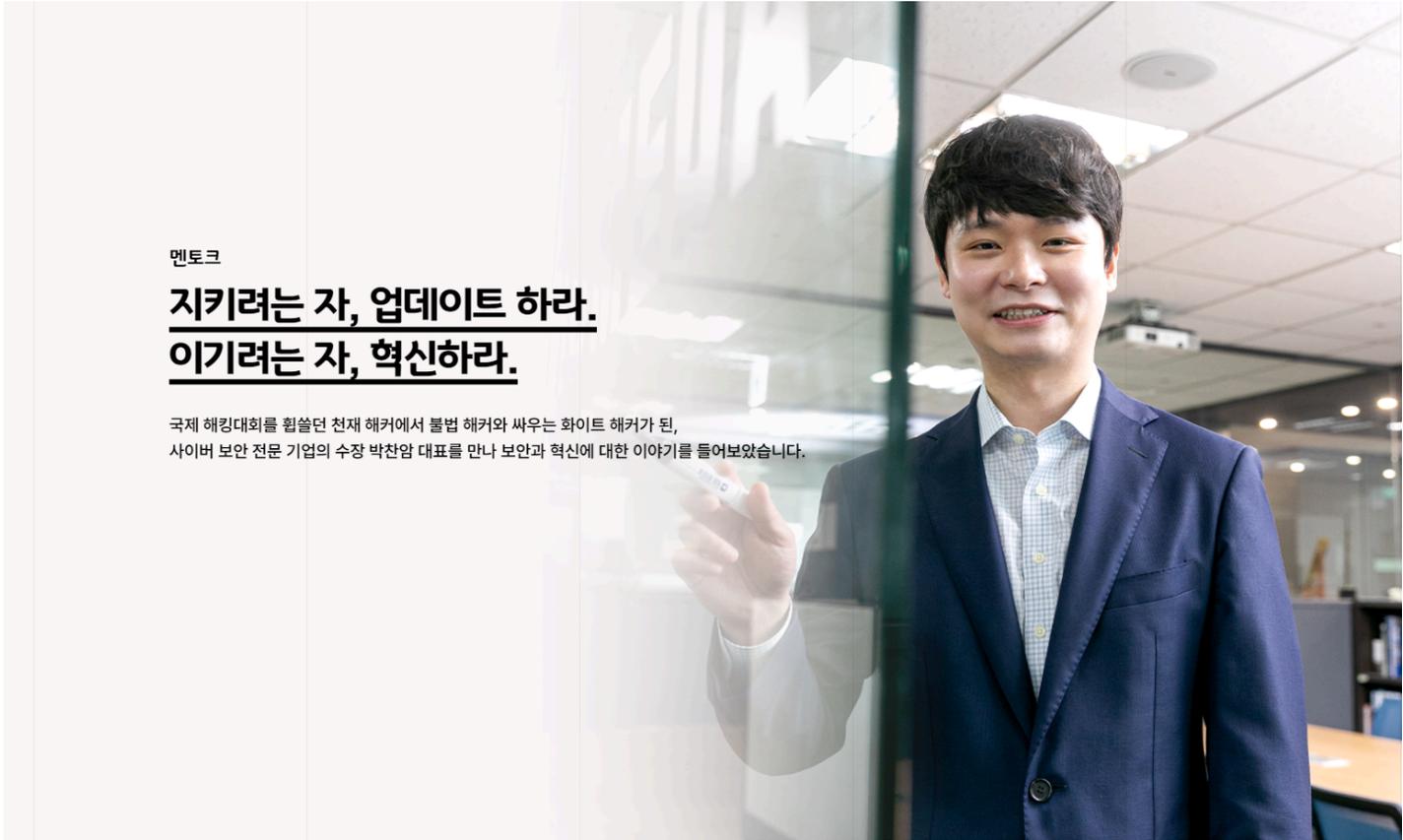
※ 구독 및 해지를 위해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023년 08월

멘토크

지키려는 자, 업데이트 하라.
이기려는 자, 혁신하라.

국제 해킹대회를 휩쓸던 천재 해커에서 불법 해커와 싸우는 화이트 해커가 된,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의 수장 박찬암 대표를 만나 보안과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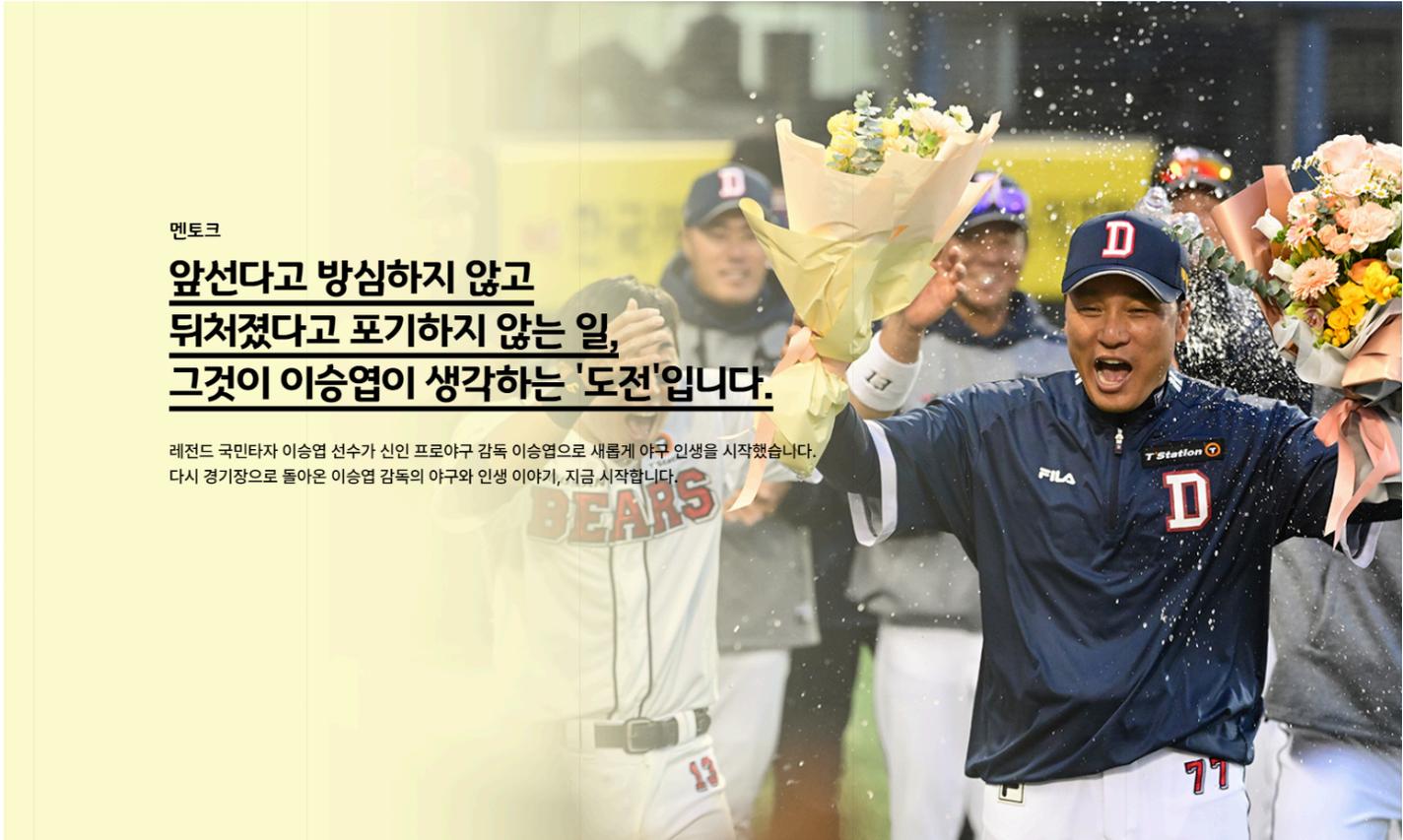


2023년 07월

멘토크

**앞선다고 방심하지 않고
뒤처졌다고 포기하지 않는 일,
그것이 이승엽이 생각하는 '도전'입니다.**

레전드 국민타자 이승엽 선수가 신인 프로야구 감독 이승엽으로 새롭게 야구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온 이승엽 감독의 야구와 인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23년 06월

멘토크

**네팔 아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전하는
산악인 엄홍길을 만나다**



2023년 05월

멘토크

한마디로 대중을 몰입시키는 방송인 김성주가 답하다

경연부터 예능까지 어느 프로그램에서든 탁월한 진행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방송인 김성주.
말로 누군가를 단번에 몰입시키는 김성주가 멘토로서 여러분의 물음에 답한다.
60초 뒤에? 아니, 바로 지금.



2023년 04월

멘토크

노래를 통해 성장하는 가수 박창근이 답하다

'제1대 국민가수'라는 타이틀은 박창근에게 그리 중요치 않다.
그저 언제까지고 기타 치며 노래하는 음악인일 수만 있다면.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 담긴 박창근의 노랫말은 위로가 되어 우리에게 닿는다.



2023년 03월

BUILD UP!
함께 더 나은 내일로!

일과 공간
그리고
미고래

115.86.194.54/webcontent/2a/www/sub01.html

2023년 02월



2023년 01월

22년 10월

월간 내일

HIGH UP!
꿈을 향해 더 높이

미경쟁의 직업능력개발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고교 위탁 교육을 받은 이서령, 정우담님의 테마 인터뷰는 18p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트렌드 캐치업

직업능력개발

내일로 붐업

한계를 허무는 젊고 역동적인 일터

날마다 레벨업

드라마 <유니콘> 속 노동이야기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위해

날마다 특별할 것이 없고 평범한 하루입니다.
열심히 사는 듯하지만
허투루 보내기도 했을 것이고,
재미를 찾아 고군분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무심코 지나가는 날들이지만
우리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날이기도 합니다.

10월에는 서투르고 영성하지만
즐거운 일들에 도전해보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요.
이 일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특별하고, 멋지게 만들어줄 거예요.

10월엔 멋진 날들이 계속 되기를
고용노동부가 희망합니다.

10월의 멋진 날을
응원합니다



Chapter 1 트렌드 캐치업!

- 08 **톡톡톡**
직업능력 업그레이드 받으셨나요?
- 10 **트렌드 인사이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 16 **알아두자고용**
글로벌 직업능력개발훈련 동향
- 18 **내일이 만난 사람**
'스무 살에 내딛은 사회의 첫걸음'
취업에 날개를 달다!
- 이서령, 정우담 님
- 24 **정책모음.ZIP**
나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방안을 확인하세요!





Chapter 2 내일로 붙임!

- 34 뉴 스타트**
희망 가득한 인생 2막
- 성남시청 방기관 주무관
- 38 청년꿈터**
취업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임용묵 씨
- 42 굿&굿 오피스**
한계를 허무는 젊고 역동적인 일터
- 디오에프연구소
- 46 더불어 세상**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온 10년
발달장애인이 알하는 회사
- 베어베터
- 50 고용노동 뉴스**



Chapter 3 날마다 레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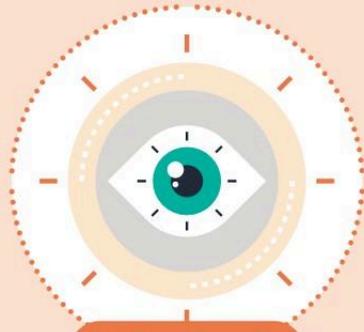
- 62 미디어 속 노동읽기**
드라마 <유니콘> 속
흥미로운 노동법 이야기
- 66 JOB툰**
난나의 취준일기
- 68 디지털유먼**
문해력을 이해하는 용어
- 70 주말에 뭐 할래?**
가을맞이 문화 큐레이션
- 74 직장인생활백서**
파워포인트에 힘 쓰는
무료 폰트들
- 76 채널 MOEL**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 소개
- 78 그린 리추얼**
양치컵 사용하기 챌린지
- 80 내일스타그램**



고용노동부 소식지 <내일>

통권 강남 라 00389(통권 569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큐라인



Chapter 1

트 렌 드



캐 치 업



우리 함께 세상 읽기

자기개발에 힘쓰는 대한민국

자기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기개발 즉, 성장을 추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직장인들의 자기개발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업무역량 강화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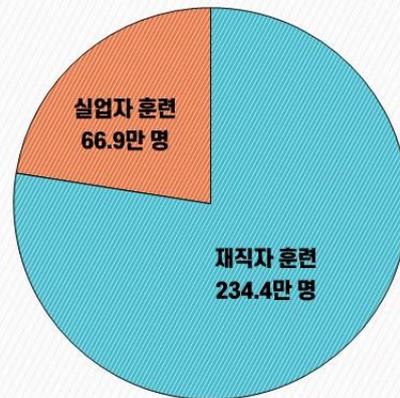
직업능력 업그레이드 받으셨나요?

1995년 7월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도입된 이후 직업훈련에 대한 교육은 평생직업능력개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재직자 훈련 / 실업자 훈련

(2021년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현황

(2020년 기준, *2021년 통계는 2022년 말 발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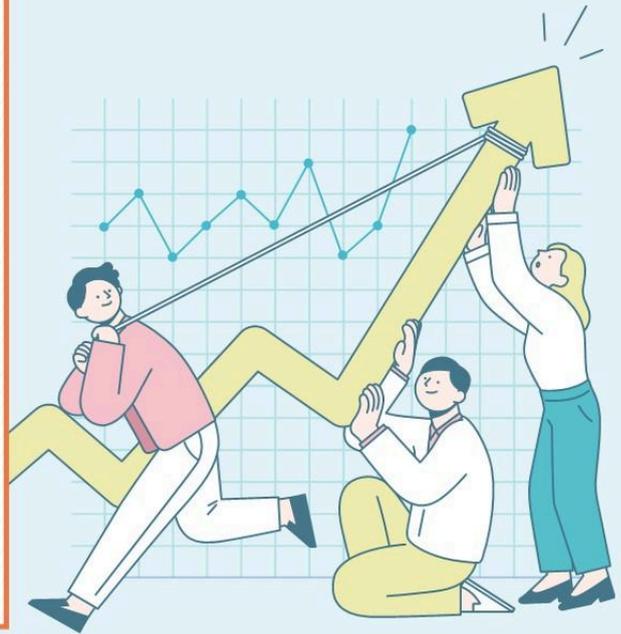
재직자훈련



실업자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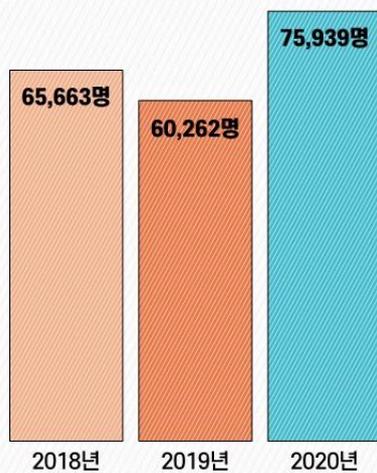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HRD-Net. 2020 직업능력개발 통계연보



국가기간-전력산업직종훈련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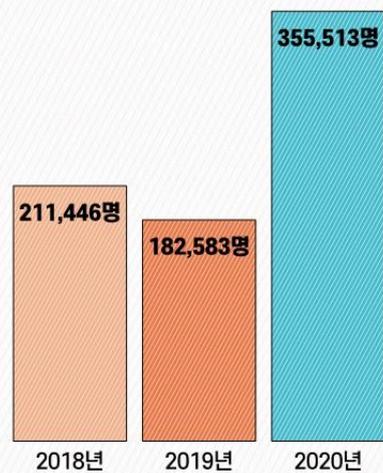
(2020년 기준, *2021년 통계는 2022년 말 발표 예정)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HRD-Net. 2020 직업능력개발 통계연보

국민내일배움카드(실업자) 훈련실시 인원

(2020년 기준, *2021년 통계는 2022년 말 발표 예정)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HRD-Net. 2020 직업능력개발 통계연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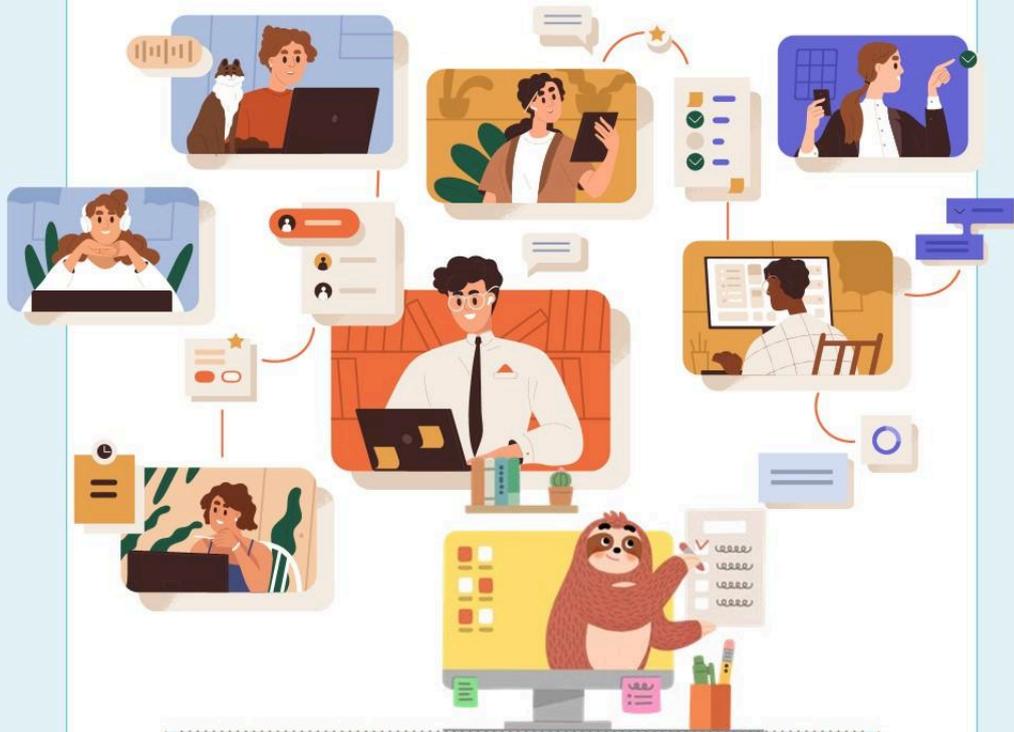
지난 9월은 직업능력의 달이었습니다. 직업능력의 달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전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199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기개발이 곧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고 하니 어렵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해보면 결국 '자기개발'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즉 자기개발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결국 업무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죠.



직업능력개발, 꼭 해야 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물론, 미래 일자리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변화와 대응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고 평생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동시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직업훈련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안에 미래선도, 숙련기술인 양성, 기업맞춤형 훈련 등에 전년 대비 11% 증액한 2조 9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어?

국가에서 아무리 장려한다고 해도 진입장벽이 높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쉬운데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여진다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들도 마련되어 있어요.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만 있다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기능 등을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직업훈련 시 장기 저리의 생계비 대부 지원을 통해 직업훈련에 전념하고, 추후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3주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산재보험 적용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가구의 연 소득금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고요.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어요.



K-DIGITAL PLATFORM



직업능력개발에 힘쓰는 회사 지원도 짝!

직원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아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좋지만 자기개발을 위해 자리를 비우면 고용주 입장에서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훈련비용도 부담이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직원들 직업능력개발에 힘쓰는 기업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중소기업 훈련지원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촉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 중소기업이 업무 관련 지식·경험·노하우를 작업장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확산토록 지원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제 | 중소기업에 우수 기술·기능 인력인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활용, 숙련기술 등 전수 지원

K-Digital Platform

지역 내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을 중소기업 재직자, 구직 청년, 영세지역업자 등과 공유하고, 지역 내 주력산업 등과 연계한 수준별 맞춤형 디지털 융합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디지털 훈련 시설, 장비 구축비 등으로 1년차에 10억 원, 2~5년차는 5억 원씩, 5년간 총 3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직업능력 훈련이 활성화되려면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는 만큼 직업능력개발 역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일학습병행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등이 모든 일터에 정착되어 직업 능력을 높이고 직무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풍토가 확립되어 국민들의 희망도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이는 2013년부터 고용노동부 총괄 하에 산업계 주도로 실력중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으며,

훈련기관, 자격시험기관, 기업체 등에서 활용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2022년 2월 기준 24개 분야 1,064개 NCS를 개발했고, 매년 현장 수용을 반영해 10여 개의 NCS를 개발 및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전기자동차, 리튬이온전지제조 등 11개 분야를 개발하고, 로봇하드웨어설계, 인공지능서비스기획 등 111개 분야에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국가직무
능력표준
NCS



글로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동향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가 변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새로운 직업능력 습득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교육도 점점 디지털화되면서 글로벌 여러 국가들이 온라인 훈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독일

- 인구구조 변화, 훈련생 감소, 디지털화에 따른 숙련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 직업교육 및 훈련을 위한 국가 계속교육전략 수립 추진
- 중소기업 종사자 디지털 숙련 향상을 위해 기업 공동훈련 훈련센터 확대
- 훈련 지식 공유 플랫폼을 통해 훈련 프로그램 개발 성과 및 노하우 공유



미국

- 민간기업의 플랫폼을 활용한 원격훈련지원 및 관련 인프라 구축
 - 개인의 노동시장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습, 전문기술 개발에 따른 개인별 성과와 능력을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
- AI 인력 강화를 위한 법안 제안
 - AI 개발 프로세스 전체를 아우르는 인력전략을 마련, 4년제 대학을 통한 AI 인재 양성 규모 확대, AI 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확대





일본

- 제11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평생 능력개발 지원 및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디지털 기술 활용 인재 육성 강화
- 제조분야 훈련의 AR, VR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 노동자 IT기 술력 향상 교육 진행
- 온라인 훈련 및 온라인·대면 혼합훈련 활성화



호주

- 4차 산업혁명 등 고용환경 급변으로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신규 직업 탐색 지원 서비스 'Skill Match' 오픈
- 코로나19로 인해 수요 증대 업종에 한해 6개월 이하 단기 훈련과정 제공
- 중소기업의 경우 견습과 훈련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 9개월 동안 임금 50% 수준의 코로나 특별 보조금으로 지원
- 신성장 산업 실습 및 도제제도 대폭 확대
- 교수자 온라인 교육훈련 수행 역량 제고를 위한 IT 훈련과 지원 제공



중국·영국·프랑스

- 인공지능(AI)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 기반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이스라엘

- ICT 기술교육 및 재교육을 위한 코딩 부트캠프 운영을 통해 하이테크 인력 확충 노력



'스무 살에 내딛은 사회의 첫걸음' 고교 위탁, 취업에 날개를 달다!

이서령·정우담 님



직업훈련에서 배웠던
이론과 기술이
매우 유용했습니다.

+

이서령 님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졸업 후 일반계 고교에서 꿈을 위해 취업을 고민하는 고등학생이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3 학생의 사회 진출을 위한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일반고 위탁 교육과정을 마련해 사회가 요구하는 직무기술중심의 취업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고등학생들의 역량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교육원에서 고교 위탁 교육을 이수하고
사회에 정착룩한 두 명의 스무 살 청년을 만났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직업훈련 지도를 해줘서
도움이 많이 돼요.

+

정우담 님



해군 함정의 핏줄, 전기부사관을 꿈꾸며

이서령 님

Q _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세화여자고등학교 2학년 때 고교 위탁교육으로 전기과를 수료했고, 졸업 후 진해 해군교육사령부의 기술행정학교에 소속돼 전기부사관 교육을 받으며 복무 중인 이서령 하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Q _ 경상남도 진해에서 경기도 시흥 한국직업능력교육원까지 고교 위탁 교육을 받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진해가 고향인 만큼 어릴적부터 해군을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학교의 행사가 있으면 홍보 교육도 많이 오셨고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군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멋있고 자신의 직업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는 모습에 반해 해군 부사관이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고교 위탁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저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해군 군함에서 전기는 '함정의 핏줄'이라는 말을 듣고 목표로 했던 해군에 전기부사관이 되기 위해 전기과로 지원했습니다. 제가 먼저 온라인에서 고교 위탁 교육을 찾았고 담임 선생님께 찾아가 진로를 결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Q _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물리적으로나 학업적으로 어려움은 없었나요?

저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멀리 떠나는 것도 좋아하는 성격이라 힘들거나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전기과 친구들이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그리고 문과였던 저에겐 전기과목이 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직업능력교육원에서 실습을 병행하며 공부하게 되었을 때, 이론으로는 어려



한국직업능력교육원에서
실습을 병행하며 공부하게 되었고,
이론으로 공부했을 때
어려웠던 것들이 실습으로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웠던 것들이 실습으로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배워
만든 전기도면과 전기패널을 스스로 만들게 도와준 담임 선
생님의 도움이 무척 컸습니다.

Q _ 담임 선생님이 이서령 씨에게 무척 특별했다고 들었어요.

우연히 담임 선생님 또한 해군 전기병 출신으로 소말리아 파
병까지 다녀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 해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실 때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담임 선생님의 지도 아래 한국직업능력교육원
전기과 교육을 받으며 전기기능사와 승강기기능사, PLC제
어사까지 3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Q _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힘든 점은 없었나요?

사실 힘든 점이 많진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승강기 기능사 필
기에 합격하고 실기를 봤는데, 작은 실수로 인해 불합격돼
많이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담임 선생님
이 많은 조언을 주셨고 저에게 큰 힘이 되어 다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자격증 취득에도 성공했습니다.

Q _ 졸업 후 취업하게 된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텐데요.

전기과를 수료한 이후 제가 목표했던 해군 부사관에 지원
했고 지원기간 중 필기와 면접시험 대비를 준비했습니다.
이때는 사실 많이 불안했습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다시 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필기가 조금 어
려웠지만 면접은 한국직업능력교육원에서 취득한 자격증
가점으로 쉽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해군교육
사령부 부사관 교육대대에서 소정의 군사교육을 11주 동
안 거쳤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고 맛있는 해군 전기부사관
에 임관해 현재 기술행정학교 전기학과에서 전기이론 및
함정의 전기장비에 대한 운용과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Q _ 한국직업능력교육원에서 배운 것들이 취업 후 해군에
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일 하며 생긴 새로운 목표
는 무엇인가요?**

아직은 군함을 타보지 못했지만, 해군 교육사 기술행정학
교에서 교관님들에게 전문지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직업훈
련에서 배웠던 이론과 기술이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깨달
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격
증 취득 후 전기도면을 보는 눈이 넓어졌고 특히 기술행정
학교에서 교관님들에게 배우는 해군함정의 장비 도면을 파
악해 고장개소를 더욱 쉽게 식별할 수 있겠다 자신감이 들
었습니다. 남들보다 제가 자격증을 더 많이 소지하고 있을
때 자신이 더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아직 교육 기간이 남았
지만 해군 전기 부사관으로서 좋은 성적으로 수료해 후배
를 가르치는 해군 전기 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Q _ 고등학생 후배들을 위해 이서령 씨가 하고 싶은 이야
기가 있나요?**

저는 요즘 대학에 가는 것이 예전만큼 큰 의미가 있진 않
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목표가 뚜렷해서 그럴 수도 있겠
지만, 혹시 대학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이 어
떤 것인지 모르겠고 진로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위탁 교육에
서 다양한 분야를 배우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회의 첫발을 돕는 고교 위탁 교육

정우담 님

Q _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군포에 소재한 수리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우담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직업능력교육원에서 일반고 위탁교육 전기기능사 과정을 수강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시흥시에 자리한 아성이엠에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Q _ 고등학교 3학년 생활 대신 한국직업능력교육원을 선택한 계기가 궁금해요.

우선 최대한 빠르게 취업하고 싶었어요. 공부에 크게 관심이 있기보단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예전부터 기계나 전기 쪽에 관심이 많기도 했어요. 관련된 것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쪽으로 배울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해주는 설명을 들었고 관심이 생겨서 인터넷에 검색한 후 자세하게 알게 됐습니다. 게시판에도 많이 붙여뒀던 것이 기억나요.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니 더욱 관심이 갔어요. 시흥에 있는 한국직업능력교육원이 고교생을 받고 전기과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선택하게 됐습니다.

Q _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한국직업능력교육원에서 생활은 어땠나요?

쉽진 않았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2021년 1월부터 한국직업능력교육원 시흥점으로 등교했어요. 학교와 다른 듯 했지만 크게 다를 건 없었어요. 교과 과정 대신 전기과에서 친구들과 전기와 관련된 공부, 실습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집에서 한국직업능력교육원으로 등교하고 5층의 전기

실습실에서 전기와 관련된 교육을 받으며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30여 명의 친구와 한 반에서 1년간 함께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전국에서 온 친구들이 모인 만큼 궁금증도 많이 생기고, 같은 목표로 모여서 그런지 더욱 친해질 수 있었어요.

Q _ 학교와는 아예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이 생소하면서도 신선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적성에 맞아서 그런지 재미있었어요. 도면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나 선을 깔고 결선하는 것들을 배웠죠. 전기 기사 자격증 위주로 필기와 실기 공부를 했습니다. 전기 이론을 배우면서 관련분야인 송강기에 대해 배워서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또 전기배선 공사를 배워 제어 판에 전기배선공사를 하고 동작까지 시킬 수 있게 됐어요. 전기자동제어시스템(PLC) 제어사까지 총 3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보통 1년간 2~4개 정도의 자격증을 따는데 선생님께서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자격증 지도를 해주셔서 세 개를 딸 수 있었어요.

Q _ 선생님은 고등학교의 담임 선생님 같은 방식인가요?

그렇습니다. 한 반에 한 명의 담임 선생님이 계시고 담임 선생님이 모든 수업을 도맡아 진행하세요. 선생님께서 자료를 많이 주시며 도우셨고 친구들과 수업 끝나고 남아서 같이 공부해서 크게 어려웠던 것은 없었어요. 태어나 자격증 시험을 치르는 게 처음이었지만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죠.

Q _ 그렇게 1년간 공부하고 자격증을 딴 뒤, 취업한 과정도 궁금해요.

아무래도 전기 기사 자격증을 따야 취업이 편하기 때문에 전기 기사 자격증을 따는 전제하에 진로 선생님께서 자기 소개서 작성 등을 도와주시며 취업 준비를 함께해주셨어요. 자소서를 함께 쓰면서 더 배우고 싶고 진학에 뜻이 있는 친구는 공대 쪽으로 빠지고 취업에 뜻이 있는 저 같은 학생들은 함께 구인 공고를 찾아봐주시기도 했고요. 2022년 1월 학업이



보통 1년간 2~4개 정도의 자격증을 따는데 선생님께서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자격증 지도를 해주셔서 세 개를 딸 수 있었어요.

끝난 뒤 몇 번의 면접을 봤지만, 결과가 좋진 않았어요. 그런데 같은 전기과 친구가 지금의 회사에 먼저 취업하고 저에게 추천해줬어요. 회사가 마음에 들었고 저도 그 친구와 같이 일하고 싶어서 진로 선생님께 “여기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이후 면접 기회를 얻었어요. 결국 합격했고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Q _ 목표로 하던 취업을 해보니 어떤지 궁금해요. 우담 씨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가요?

무척 만족해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 현장에 나와 배우게 된 것이 많이 다르고 어렵지만, 학교에서 배운 기초가 없었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처음 하는 사회생활이라 초반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선배님들이 잘 챙겨주셔서 매일 보람 있게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다른 지역, 다른 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한 교실에 모여 생소한 과목을 공부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일반고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다고 느끼거나 특별한 교육 과정이나 기술을 배워서 빨리 취업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꼭 선택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방안을 확인하세요!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직 중인 근로자도, 전직 또는 취직을 준비하는 이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변화의 흐름에 소외되지 않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지킬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능력 양성과 향상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민내일 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급격한 기술발전에도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을 지원하며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1인당 300~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45~85%^①,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 6천 원^②이 지급됩니다.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0%, 근로장려금(ETC) 수급자, 과정평가형 자격취득형 참여자는 72.5~92.5% 지원 등

② 단위기간(1개월) 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도 있습니다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은 산업별 협·단체가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을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산업별 협·단체가 주도하여 훈련의 전 과정에 산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력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만 18~34세 청년 구직자 및 재직자로 채용 예정자 훈련은 70% 이상, 재직자 훈련은 50% 이상 청년층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동훈련센터^①에 대해 훈련비(실비)를 지원하며 인프라지원금도 제공됩니다.

<협·단체> 인건비(5천만 원), 운영비(8천만 원), 프로그램개발비(4천만 원)

<공동훈련센터> 인건비(1억 원), 운영비(6천만 원), 시설장비비(3억 7천만 원)

<훈련생> 훈련수당(월 20만 원,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 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에 지급함)

①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컨소시엄 훈련 참여 기업

사업절차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국가인적 자원개발 컨소시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하세요

국가인적개발 컨소시엄 사업(CHAMP: Consortium for HRD Ability Magnified Program)은 공동훈련센터와 대·중소기업 간 공동훈련 협약을 맺고 구축된 훈련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여 협약기업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해 운영기관을 통해 무료 연수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일체의 비용부담 없이 수강 신청만으로 직무능력향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특별 지원제도의인 셈인데요. 공동훈련센터·훈련생,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시설·장비비(15억 원), 프로그램 개발비(1억 원), 운영비(4억 원), 훈련비(실비)를 지급합니다. 기업수요맞춤형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운영비 1.2억 원 시설·장비비 15억 원 및 프로그램 개발비 10억 원 이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훈련생은 훈련수당으로 1개월 120시간 총족 시 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유형	역할 및 기능	협약기업
대중소상생형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중소기업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전략분야형	특정 산업이나 직종과 관련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해당 산업 및 직종의 기업
기업수요맞춤형	협약기업의 직무분석을 통해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지원 * 기존 대중소상생 및 전략분야 공동훈련센터 참여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산업 및 직종의 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 비용을 지원해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입니다. 고용보험가입 사업주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하고요.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지원요건	지원수준
훈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규모 제한 없이 4시간 이상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지원 대상기업: 90~100%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60%(원격훈련 80%) 1,000인 이상: 40% * 단 외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원금의 50% 지원
유급휴가 훈련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 우선지원대상기업: 5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20일 이상 훈련 - 대기업: 6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180시간 이상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훈련생 인건비: 소정 훈련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50%(대기업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인력인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
훈련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숙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비 1일 3,300원 한도, 숙식비 1일 1만 4천 원 한도 (1개월 33만 원 한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활용하세요

지역·산업계 중심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주도로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여 인력수요 조사 → 공동훈련센터 → 채용 등에 이르는 지역별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정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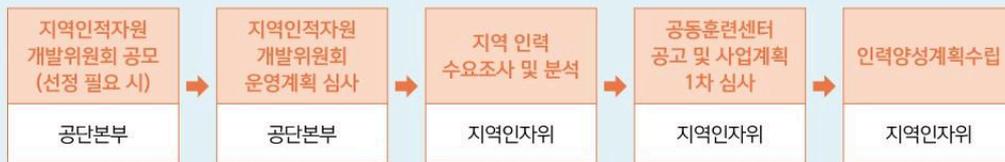
참여 가능 기관으로는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 훈련시설, 사업주단체 및 연합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훈련실시 경험이 있는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관(비영리기관)이어야 하며, 파트너훈련센터의 경우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사업주단체 및 연합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원법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훈련실시 경험이 있는 기관),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입니다.

지원내용

항목		공동훈련센터	
인프라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비율	80%(인건비), 100%(운영비) 범위 내
		지원한도액	연간 4억 원(운영비 중 인건비 최대 2억 원)
	시설·장비비	지원비율	80% 범위 내
		지원한도액	연간 15억 원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지원비율	100% 범위 내
		지원한도액	연간 1억 원
훈련비용(훈련비+숙식비 등)		실 지원수준	실비(심사 단가)

* 세부내용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 참조

지원절차



중소기업 훈련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중소기업 훈련 지원 사업의 목적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촉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①입니다.

학습조직화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사업주단체로서 일학습병행, 사업주 훈련 등에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일터 혁신 컨설팅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입니다. 지원요건은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업으로 지원유형^②에 따라 비용의 70%와 30%를 사업일정에 따라 각각 나눠서 지급됩니다. 반면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제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활용, 기술진단 후 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 전수 지원 등이 지원됩니다. 두 과정은 사업 추진체계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①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중소기업이 업무관련 지식·경험·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확산토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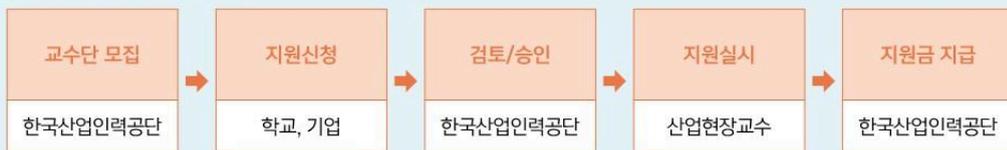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제) 중소기업에 우수 기술·기능 인력인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 활용, 숙련기술 등 전수 지원

② 학습조직운영, 우수사례활동, 외부전문가, 학습인프라지원

학습조직화지원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제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등의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훈련비 전액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제외 대상은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임금(소득) 300만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과 만 75세 이상자입니다.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은 월 최대 11만 6천 원^①이며,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훈련장려금은 '22.8.1~12.31. 월 최대 20만 원으로 한시 상향 지급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생은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어요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에 재학중인 고3 학생에게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부여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일반고 특화심사를 거쳐 선정된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 전액 및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 6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은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apter 2



내 일로



우리 함께 희망찬 내일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천천히 자신의 길을 갈고 닦는 게 중요해요.
어떤 방식이든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 보면
깜깜한 터널 같은 곳에 빛이 비치면서
나만의 길이 보인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이 있듯
스스로를 갈고 닦아
멋지게 기회를 잡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선물한 희망 가득한 인생 2막

성남시청 방기관 주무관

대기업 제조업체와 금융기관에서 27년간 몸담은 방기관 씨는 퇴직을 목전에 앞두고 재취업의 현실에 부딪혀 예상치 못한 좌절과 충격을 겪었습니다. 냉정한 구직 시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경험한 방기관 씨는 칼을 가는 심정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한 자기개발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인생이 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회사가 5개월간의 퇴직 준비 기간을 줬을 때,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두 단계 정도 낮은 금융기관에 원서를 냈어요. 그런데 ‘훌륭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는 장황한 탈락 문자를 받았죠.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명예퇴직 후 잔인했던 현실의 벽

1989년 대우그룹에 입사한 방기관 씨는 7년 여간 당시 대우중공업에서 채권관리와 송무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경영학을 전공했던 방기관 씨는 경력 개발을 위해 고민 끝에 금융권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지금은 두산캐피탈, 당시엔 연합기계할부금융이었던 방기관 씨는 두 번째 회사에서 채권관리, 영업 관리, 고객지원파트를 거쳐 광주, 대전, 경인, 서울지점장으로 일했습니다.

2015년 10월, 회사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되며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방기관 씨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직장생활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한 살이라도 어린 지금 퇴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퇴직원을 신청했습니다. 그의 나이 52세였습니다. “제가 자리를 내려놓은 서울지점장은 소위 회사의 ‘꽃’인 자리였습니다. 그 정도면 명예 퇴직해도 어디든 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회사가 5개월간의 퇴직 준비 기간을 줬을 때, 다니던 회사보다 두 단계 정도 낮은 금융기관에 원서를 냈어요. 그런데 ‘훌륭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는 장황한 탈락 문자를 받았죠.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고민 끝에 자존심을 버리고 헤드헌터에게 말을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저를 더 절망으로 몰아넣었어요. ‘선생님은 구직 시장을 모릅니다. 임원 퇴직이 아닌 부사장 퇴직을 했을 뿐만 아니라 50세가 넘는 사람 서류를 내면 우리도 욕만 듣게 됩니다. 저에게 이력서를 주지 마시고 알아서 구직 활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더군요.”

벼랑 끝에서 손잡아준 국민내일배움카드

방기관 씨는 이 일이 있고 난 뒤 한동안 그의 말을 빌리자면 ‘얼어터진 것 같은 기분’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쉽게만 느껴진 재취업과 만만하게 바라봤던 인생 2막이 결코

직업상담사 교육을 받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가
교육과정이 무척 충실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또래와 함께 교육받다 보니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죠.
나에게 부족한 것을 알게 됐고,
이 교육을 통해 다음에는 나처럼
헤매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단 희망이 생겼어요.

순탄치 않겠다는 직감도 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주위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
교육받아보는 것을 권유했고 그 말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했으나, 당장 교육
받진 않았습니다.

“일단 카드는 만들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거든
요. 어느 날 딱 한 군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저 같은 이력의 소유자가 보험영업
을 하면 전 직장 급여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고 입사를 권했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 퇴
직자들은 한 번쯤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아요. 그러고 나니 정말 현실이 보이더군요.”

비로소 방기관 씨는 HRD넷과 워크넷에 들어가 직업흥미검사를 비롯해 다양한 취업 정
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이 본인의 성향과 맞는
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HRD넷 직업훈련 포털에서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당장 내가 직업상담사가 될 거라는 생각도 못 했죠.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취업
시킬 순 없지만, 이 교육을 받고 노력하다 보면 재취업에 성공하는 답을 얻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2016년 6월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직업상담사 교육을 받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가 교육과정이 무척 충실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사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 자격증을 따려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나눌 수도 있었죠. 다양한 또래와 함께 교육받다 보니 자신감이 생기
고, 나에게 부족한 것을 알게 됐어요. 이 교육을 통해 다음에는 나처럼 헤매는 사람에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단 희망이 생겼어요.”

교육 2개월 후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방기관 씨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강사가 “전
직 지원이 더 좋을 수 있으니 강의를 추가로 듣는 것이 좋다”고 했던 조언을 잊지 않고
합격 후 전직 지원 전문가 과정까지 받게 됩니다. 총 340시간의 과정을 받으며 그는 누
군가에게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과정이 끝나가던 시점, 방기관 씨에게 기적처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광명시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무상담사를 뽑더군요. 서민금융이나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부채를 조정해주고 상담해주며 나아가 취업까지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뽑는 자리였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적격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전직
지원 전문가 과정 강사님 중 한 분이 저의 성향을 고려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고
려해보라고 하셨던 것도 떠오르더라고요. 이 자리가 제자리란 확신이 들었고 역시나 합
격했어요.”

그렇게 28개월간 광명시청의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방기관 씨는 2020년 초 성남시
청에서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를 보게 됩니다. 광명시청에서 경





력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성남시 관내 대부업체를 총괄하는 자리에 딱 맞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방기관 씨는 서류 심사에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가 발생했죠.

“면접을 앞두고 코로나19가 심해지자 면접이 연기됐어요.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한 달 가까이 연기되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으니 어찌겠어요. 2020년 4월 최종 면접을 보고 5월부터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3년 차가 됐네요. 회사 생활할 때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융, 영업, 채권관리 교육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강의 경험이 풍부해 올 11월에는 경기도 산하에 있는 대부업자들과 대부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준비 중입니다.”

방기관 씨는 인생 1막에서 쌓아온 자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탄탄한 징검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찬 미래로 가득한 인생 2막을 누리고 있습니다. 방기관 씨는 이제 인생 3막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70세까지는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건강 관리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생 1막은 급여를 쫓았다면 2막은 재능기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 3막을 향해 갈 수 있었던 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도움이 컸습니다. 무척 알찬 교육을 듣게 해줬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신 강사님들이 있어서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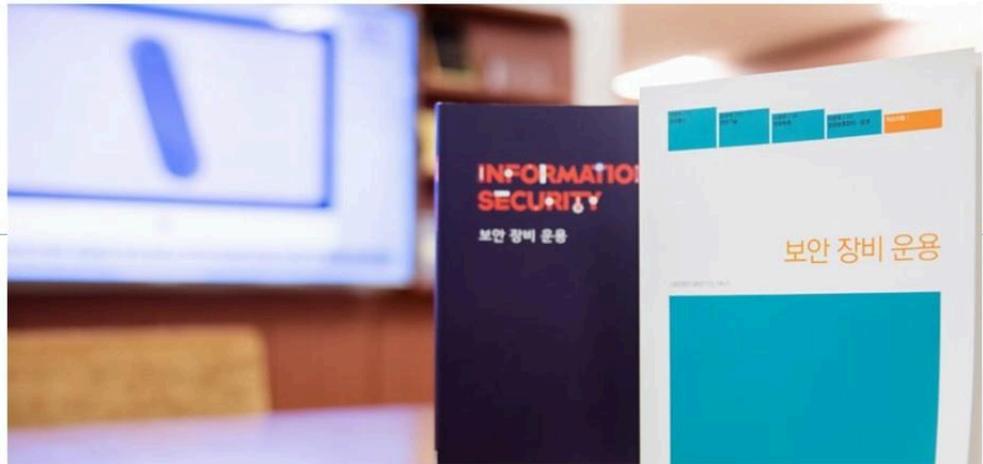
취업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임용묵 씨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대학 수업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배운 임용묵 씨는 남들보다 더 빠르고 부지런히 준비해 중소기업 굿모닝아이텍에서 IT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바심을 내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게으름 부리지 않고 한 계단씩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임용묵 씨는 성실한 청년이 가야 할 정석을 걷고 있는 듯했습니다.



졸업 준비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동시에

정보통신학과를 전공한 스물일곱살 임용묵 씨는 지난 2020년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4학년 1학기까지 전공과목을 대부분 이수한 뒤 본격적인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로 했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 변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임용묵 씨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19로 비대면 학습이 늘어난 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3~4월부터 학교는 본격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늘렸습니다. 전공과목 대부분을 미리 이수해놓길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찰나, 주위 친구들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교육을 받

는 것이 유용하다는 조언을 해줬어요. 고민 끝에 교과 과정에서 부족했던 과목을 듣기로 했습니다.”

임용묵 씨는 방대한 학문을 얹고 넓게 훑는 정보통신학과 수업을 들으며 더 깊은 갈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졸업을 앞둔 4학년에도 갈증은 오히려 심해졌습니다. 아는 것이 있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기분은 결국 ‘취업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로라는 것이 처음 전공을 선택하고 바로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떤 수업은 나와 맞고 어떤 수업은 나와 맞지 않다는 것도요. 조금 더 깊게 파고들고 싶은데 수업이 없기도 했어요. 찾아보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정보 시스템 진단 및 모의

IT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는 불안감이 수업을 들으며 점점 자신감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어요. 어디든 취직할 수 있겠단 자신감이요. 실제로 졸업을 앞두고 실전에 다가서며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해킹 전문가 양성 과정을 들 수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궁금했던 분야였고, 졸업에 맞춰 이 교육도 학습돼 있으면 취업에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 과정의 보충과 취업의 발판이 된 수업

결국 임용묵 씨는 4학년 2학기 수업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학원 교육을 병행하게 됩니다. 학원 교육 역시 1개월 뒤부터 본격적인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며 대학 과정과 학원 과정을 함께 듣는 데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5개월간 수업을 들으며 임용묵 씨는 정보 시스템 진단 및 모의 해킹 전문가 양성 과정을 깊이 마스터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결국 쓰임이 있잖아요? IT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는 불안감이 수업을 들으며 점점 자신감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어요. 어디든 취직

할 수 있겠단 자신감이요. 취직이 되진 않았지만, 보안 수업도 IT 인프라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졸업을 앞두고 실전에 다가서며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학원에는 교육 과정을 담당하는 담임 선생님과 취업을 담당하는 취업 선생님이 따로 계셨고, 한 반에는 30여 명 정도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5개월의 과정 대부분이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됐지만 마치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세미 프로젝트, 파이널 프로젝트가 있어 주기적으로 팀이 모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렇게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임용묵 씨는 2021년 2월 졸업을 앞두고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돌입합니다. 교육이 막바지에 접어들자 취업 담당 선생님께서 임용묵 씨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자소서 쓰는 법을 도왔습니다. 모의 면



접 수업도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런저런 곳에 자리가 났으니 넣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식으로 학생들의 취업 전반에 큰 도움을 주셨어요. 저에게도 비슷한 제안을 해주셨고요. 사실 지금 회사는 제가 온라인에서 찾아서 이력서를 넣었어요. 지원한 뒤에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잘했다며 조금 더 준비를 하면 면접도 잘 될 것 같다고 조언해주셨어요. 무척 든든했죠.”

회사의 에이스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

임용묵 씨는 지금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IT 중소기업 굿모닝아이텍의 주임으로 일하며 백업 솔루션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용묵 씨가 몸담은 회사는 마침 공신력 있는 기관의 교육을 수료한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다시 말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교육을 이수해 졸업과 취업 사이의 공백을 없애고 취업 후 실

무자로서 연착륙할 수 있는 신입직원을 주로 채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지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임용묵 씨는 신입사원에게 업무 도움을 줄 수 있는 경력직원으로 성장했습니다.

30세가 되기 전, 임용묵 씨는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0여 년간 만난 여자친구와 진지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저축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선 누군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찾아올 수 있을 만큼 회사의 에이스로 성장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IT업계에서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때 선배님들이 모르는 것을 잘 알려주시고 먼저 궁금한 것이 없는지 물어봐 주시는 것이 참 든든하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일하면서 ‘저 역시 든든한 선배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 팀에 들어오는 신입사원에게 똑같이 하려고 해요. 좋은 선배님들을 만나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 데는 저의 노력도 있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없었다면 힘들었을 겁니다.”

Tip.

임용묵 님이 졸업을 앞둔 취준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어디를 가든 자신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모든 것은 태도에 달려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겐 어디서든 기회가 찾아와요. 저 역시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주말이나 저녁엔 꾸준히 공부해요. IT 업계는 무공무진하고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급하게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친구들이 취업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몰아세운 부분이 없지 않아요. 지나고 보니 그렇게 다급하게 굴어도 해결될 건 없었거든요. 힘들겠지만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먹고 천천히 자신을 갈고 닦으세요. 어떤 방식이든 자신의 길이 보일 거예요.

한계를 허무는 젊고 역동적인 일터

디오에프연구소



덴탈 스캔 전문기업 디오에프연구소는 자체 기술력만으로
치과 치료 디지털화에 앞장서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국의 치의술이 세계 최고인 것을 감안한다면 디오에프연구소
역시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평적으로 일하는
문화와 워라밸을 오랫동안 추구해온 디오에프연구소의 젊고
혁신적인 인재를 만나보니, 회사의 성장이 자연스럽게 이해되었습니다.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즐겁게 열정을
쏟을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경쟁력 있는 기술과 직원을 위한 가치

디오에프연구소는 자체 기술력으로 3D 덴탈 스캐너와 덴탈 밀링 머신을 개발하는 CAD/CAM 토탈 솔루션 기업입니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디오에프연구소는 카메라가 움직이는 스캐너로 업계에 새바람을 일으키며 등장해 현재까지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정밀도를 자랑하는 모델 스캐너 FREEDOM X5, 원스텝 밀링이 가능한 올인원 밀링머신 CRAFT 5X, 환자의 얼굴을 3D로 재현하는 페이스 스캐너 FEEDOM F 등 혁신적인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디오에프연구소는 3D 스캔 분야의 핵심 기술 특허 12건을 등록했습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가공기, 치과 플랫폼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전 세계 고객에게 덴탈 CAD/CAM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R&D에 투자하여 신

제품 개발 등 끊임없는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전세계 덴탈 시장을 주도하는 최상급 기업답게 기업 문화 및 근무환경에 대한 혁신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평적으로 일하는 문화와 워라벨을 지속해서 추구하며 임금, 생활균형, 고용안정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3년 연속 고용노동부의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1년 하반기 우수 기업 연구소로 선정되기도 했죠. 디오에프연구소의 창립부터 13년간 성장을 지켜본 박소정 팀장은 회사가 청년들이 즐겁게 열정을 쏟을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회사는 자기 주도적인 마인드로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직원을 지향합니다.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업무에 몰입하고 그 몰입을 통하여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회사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수평적으로 일하는 문화와 워라밸을 지속해서 추구하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3년 연속 고용노동부의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일과 삶을 조화시켜 좋은 에너지를 얻으며 지속할 수 있는 삶의 구조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와 직원은 서로 협력적인 관계

덕분에 디오에프연구소에는 다양한 복지와 혁신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일과 가정을 안정적으로 양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각종 경조사 지원을 기본으로 주택자금, 학자금, 의료비, 재해보조금 등의 지원제도를 제공합니다. 생일을 맞이한 직원에게는 특별휴가와 함께 호텔 식사권을 선물하고 창립기념일에는 소정의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평균 결혼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다르게 디오에프연구소에는 결혼한 직원들이 많은 편인데,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도움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직원이 100% 정규직일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직원을 위해 5년 주기로 리프레쉬 휴가와 포상금을 지급해 재충전을 통해 사기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디오에프연구소는 또 연차 사용이 매우 자유로운 편입니다. 휴가원 제출기한이 없고 휴가원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결재가 완료됩니다. 누적된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휴가를 떠나는 경우는 물론 사유를 공개하기 애매한 경우까지 눈치 보는 일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매년 연차 사용률이 99%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결혼하는 직원



들을 위해 디오에프연구소만의 특별한 복지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결혼 직전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결혼식 전 2주간 재택근무를 시행한 것입니다.

“타사의 복지를 따라가기보다는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직원들의 니즈를 받아들일 수 있는 회사 분위기를 조성해왔습니다. 직원 스스로 책임감을 갖는 자율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유연 근무제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연구 몰입을 위한 탄력 근로제, 원거리로 출퇴근하시는 분을 위한 시차 출퇴근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직군을 위한 간주근로시간제, 육아를 위해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등 자율적인 근무 형태로 업무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 유연근무제를 통해 등원과 하원을 분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년 자체적으로 팀별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와 매출액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업적을 창출하는 인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등 모든 직원이 회사의 성장을 위해 동기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덕분에 디오에프연구소의 46명 직원 중 청년 재직자는 32명이나 됩니다. 5년 이상 회사에 몸담은 직원도 13명으로 전체 직원의 30%에 육박합니다.

“디오에프연구소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축하고 노조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 극대화 경향과 근로자 이익 추구 경향이 충

돌할 때 근로자는 노조를 통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회사에 전달하고 회사는 노조의 의견을 경청하며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워라밸이 만드는 건강한 회사

여기서 멈추지 않고 디오에프연구소는 직원의 숨은 역량을 끌어올려 창의성, 집중력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게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혁신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로자 개인이 곧 디오에프연구소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회사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디오에프연구소만의 방식입니다.

“가족 친화 인증기업,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등 다양한 인증을 통해 직원들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디오에프연구소는 직원들이 본인에게 필요한 제도를 찾아서 잘 활용하고,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을 회사에 요청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전체 미팅을 통해 회사의 가치와 목표에 대해 함께 되새기며 연구성과, 영업성과, 경영성과 등 기타 사내의 여러 사항에 대해 소통하며 벽 없는 조직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오에프연구소 직원 모두가 수평적인 기업문화와 건강한 워라밸을 누리며 내일을 이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온 10년” 발달장애인이 일하는 회사

베어베터

BEAR
WALKS
WITH
US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발달장애인이 일한다는 것이 스스로에게는 자부심을, 가족에겐 안도와 행복을 그리고 이웃에게는 모두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알게 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0년째 발달장애인들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베어베터를 찾았습니다.



발달장애인 사원 240여 명을 비롯해 그들의 가족까지 약 1,000명에게 안도감을 주는 회사를 꾸리는 것이 보람된 일입니다.

묵묵하고 든든한 곰이 지키는 회사

베어베터는 네이버 창업 멤버인 김정호 공동대표와 그와 함께 일하던 이진희 NHN 이사가 함께 꾸린 사회적 기업입니다. 지난 2012년 첫 삼을 뜬 뒤부터 기업에 명함·교육자료 등의 인쇄물, 조식·선물 용도의 제과, 근조 화환 등을 만들어 제공합니다. 또 사내 카페와 매점을 기업 간 거래로 위탁 운영합니다. 현재 베어베터에 속한 발달장애인 사원은 240여 명으로 임직원의 77%를 차지합니다.

베어베터의 발달장애인 사원은 상품을 포장하고, 꽃을 다듬고 쿠키를 만듭니다. 제품을 포장해 직접 배송하거나 사내 카페에서 음료를 만드는 일도 발달장애인의 몫입니다. 양질의 재료와 더불어 발달장애인들의 진심과 시간을 들여 기본에 충실하되 가치 있는 물건을 본인만의 속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성수동에 자리한 베어베터 본사에는 'Bear makes the world better'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캐릭터 '베베'가 곳곳에 자리했습니다. 언뜻 무뚝뚝하고 고집스러우며 표정도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곰이지만, 순수하고 우직한 발달장애인들의 특징을 곰에 담았습니다. 손과 눈이 빠르지는 않지만 익숙한 일은 성실하게 해내

는 발달장애인들처럼 말이지. 이진희 공동대표는 "발달장애인 사원 240여 명을 비롯해 그들의 가족까지 약 1,000명에게 안도감을 주는 회사를 꾸리는 것이 보람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기업의 연계고용 부담을 돕는 베어베터

첫해 7,000만 원으로 시작한 베어베터는 코로나 직전인 2019년까지 89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회사 설립 초기 5곳에 불과했던 고객사가 약 400곳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SK·CJ·네이버·카카오·IBM·대웅제약·로레알·KT·신한은행·카이스트·고려대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과 기관이 베어베터와 손잡았습니다. 기업들은 단순히 사회공헌활동만으로 베어베터와 거래하지 않습니다. 베어베터가 다양한 기업과 협업하는 이유는 특별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한 공공기관·기업 등은 장애인 일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데, 만일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기업·기관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거래하면 거래 금액의 50%까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의무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죠. 베어베터는 장애인 직접 고용이 힘든 회사와 거래해 고용 의무를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과태료를 줄여 필요한 물품을 조달받고, 발달장애인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베어베터는 이 제도를 활용해 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B2B 방식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 강화에 힘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베어베터의 서비스 품질 강화는 모든 과정의 세분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명함을 만드는 과정도 기계에 종이를 넣는 일, 인쇄된 종이를 검수하는 일, 명함을 통에 넣는 일 등 순서대로 나뉘어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 직원들이 각자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 베어베터만의 방식입니다. 베어베터 교육팀의 임상빈 팀장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목도했습니다.

“10년째 베어베터에서 일하신 발달장애인 직원분이 그룹홈 생활을 하시는데, 최근 그룹홈 선생님들이 오셔서 대표님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가셨어요. 10년간 일하고 정기적인 월급을 받으며 5,000만 원을 모으셨대요. 그동안 아버님 생활하는 데도 도움을 주셨고요. 무척 뿌듯했어요. 베어베터는 채용 진행을 단편적으로 해선 안돼요. 우선 신입 직원이 오면 3주 정도 모든 팀을 경험해보게 하는 수습 기간을 거치고, 팀장들이 모여 직원 평가를 해요.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점수에 못 미친다고 해서 단순히 불합격이라고 보는 것도 위험해요. 가능성이나 태도, 업무 파악 능력 등을 입체적으로 판단해 입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베어베터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꿈을 꾀니다.

베어베터는 서울과 지방의 발달장애인 고용률 격차를 줄이기 위해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일하는 사회
 베어베터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꿈을 꾸는다. 서울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의 30% 정도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방은 5%에 불과합니다. 베어베터는 서울과 지방의 발달장애인 고용률 격차를 줄이기 위해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브라보비버입니다.
 “브라보비버는 지분투자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입니다. 라인플러스, 매일유업,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한국투자증권, KCENC, 카페노티드 등 수도권 10개 기업이 지분을 투자해 만들었습니다. 베어베터가 사업운영과 인사 관리를 책임지고,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며 제과와 드립백 커피 등을 생산해 지분투자 기업 등에 납품하는 방식이죠. 참여 기업은 지분율에 따라 장

애인 고용을 인정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브라보비버 지분의 19%를 보유한 회사는 장애인 근로자 54명 가운데 10명을 직접 고용한 셈이죠. 게다가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은 두 배수로 계산하므로 20명을 고용한 것이 됩니다”
 브라보비버는 최근 대구에 첫 샵을 뒀습니다. 베어베터는 향후 10년 이내에 브라보비버 사업장을 서울 외의 225개 시군구 중에 100개소를 설립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경우 최소 600개 기업이 지분투자에 참여하며, 전체 중증장애인 고용인원은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라보비버 인천에 문구류, 경기 북부에 과일청 등 다양한 지역에 다른 사업군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베어베터가 발달장애인 직원을 뽑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몇 가지 있

습니다. 첫째 혼자 출퇴근을 할 수 있어야 해요. 대중교통을 혼자 이용하며 지켜야 하는 공중 예절을 습득하는 것을 포함해요. 혼자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수 있다는 것은 발달장애인들에게 사회생활의 규칙에 익숙해지고 습득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회사 생활할 때 무척 중요한 밑바탕이 되거든요. 두 번째는 업무 지시를 이해하는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해요. 유창하게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단순화된 업무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본인이 일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어야 해요. 이 세가지가 충족된다면 언제든 베어베터의 문을 두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MOEL News

1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후 처음으로 본부 정책 담당자와 전국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및 부서장이 모이는 자리로,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을 격려하고,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을 키우고,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지난 5년간 감독관 정원을 약 2배 늘렸고,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지방관서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전담 인력 및 조직을 보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2017년 964명에서 꾸준히 감소해 2020년 82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OECD 평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 독일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자율과 책임, 노·사·정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여 5년 내 OECD 평균 수준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 10월 말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방침입니다.





2021년 기준 현재 감독관 1인이 2,600여 개의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는데 조직진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감독관 배치 방안을 검토하고, 그간 별도 예산이 없었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교육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체험·실습형 위주의 교육과정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 가능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등 본부와 지방관서 간 소통의 기회도 늘려갈 방침입니다.

한편, 이날 회의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본부 1층에서 '올해의 감독관'('21년) 3인의 이름이 새겨진 현판 제막식도 진행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매년 우수한 감독관을 '올해의 감독관'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만들어 게시함으로써 감독관들의 사기 진작과 우수 공적 확산에 힘을 계획합니다.

2

이정식 장관, 노사·전문가들과
이중구조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지난 9월 16일 노사단체, 노동분야 전문가들과 최근 노사관계 이슈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진행되고 있는 노사관계를 진단하고, 최근 이슈화된 노사관계 갈등의 저변에 자리 잡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실태를 논의하고,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올해 노사관계 교섭과 갈등의 양상, 주요 사업장의 노사갈등과 직간접적으로 맞물려 있는 낡은 노동 규범과 관행을 혁신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근로자 중심의 기존 틀에서 벗어나 노동법 체계 전반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일하는 방식, 고용형태 다변화에 맞춰 노동법 체계를 다층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노사정이 지혜를 모으면 이중구조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노사에게는 사회 연대기금 조성, 임금교섭 연대 등의 사례를 지속 만들어가면서 통합적 노동시장 구축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고, 정부도 조선업 분야 이중구조 문제 등 개선이 시급한 현안부터 빠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3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지난 9월 7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주한 유럽 기업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소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새 정부 주요 고용노동정책방향을 이해하도록 돕고, 근로시간 관련 유럽 주요국의 법·제도에 대해 청취하며 이들 기업이 국내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을 듣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 장관은 기초연설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편하고, 기업이 노사의 신뢰를 기초로 합리적인 인사노무 시스템을 갖추어 현장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 여성, 고령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며, 청년고용을 위한 정부의 민관협력 정책에 외투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은 기업의 경쟁력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최고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이 실시 중인 근로시간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외투기업은 국내 일자리 창출 등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중요한 경제주체”라며 “외투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OEL News

4

고용행정데이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9월 16일 고용부가 보유 중인 고용행정데이터의 민간 개방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용보험 DB는 연구가치가 큰 자료이나 현재는 일부 국책 연구원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방된다면 연구가 활성화되고, 데이터기반의 정책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가명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분석항목을 결합하면 재식별 가능성이 높아져 개인정보나 경영, 영업정보 공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술적인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현재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고용정보 공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교육부, 복지부, 국세청 등 다양한 정보를 결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데이터를 이용하는 장소가 2개의 데이터분석센터에 한정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향후 제공되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 경우, 이용자가 신청하는 데이터가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인력과 시스템에 한계가 있어 인력의 규모와 역량, 전산 인프라 등이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호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지난 9월 7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호 가입 기업인 (주)페이도커뮤니케이션즈 직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장관은 직원들과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낮아 근로자의 노후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잘 운용하여 든든한 노후 자금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지급권 보호가 미흡한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근로자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인데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하여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그 수익을 근로자의 퇴직급여로 지급하며, 기금 조성을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사용자 부담금)을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적립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개별 부담금을 추가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4월 14일 제도 시행 이후 주거래은행·자산운용기관을 선정하고, 전산 구축 작업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적립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전문 자산운용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 운용됩니다.



6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9월 16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취·창업에 성공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식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습니다. 2022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은 연간 100만 명 이상 국민이 사용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위상을 고려하여 총 36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했고, 그 중 '장관상' 수상작 6편에 대해서는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장관상' 수상작 중에는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한 훈련생

의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처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시상식은 '직업능력의 달(9월)'에 맞춰 예년보다 이르게 개최되는데, 직업능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수상작의 사례는 웹툰, 유튜브 홍보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채널에 게재됩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함께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한 도전에 나서 취업에 성공한 사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받는 국민이 '희망찬 내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나침반"이라면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시대'에 맞게 보다 많은 국민이 다양한 분야의 훈련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정채용법』을 만들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정채용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10월 5일까지 “공정채용법 온라인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공정’은 정부의 네 가지 국정 운영 원칙(국익, 실용, 공정, 상식) 중 하나로, 특히 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는 첫 단계인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정한 채용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는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을 『(가칭)공정채용법』으로 개정해 채용의 실질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국민 설문조사’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채용 과정에서 겪었던 공정·불공정 채용 경험, 『공정채용법』에 담길 바라는 내용, 공정채용 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이 직접 입법자가 되어 『공정채용법』 조문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공정채용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활용됩니다.



공정채용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고용노동부 누리집 배너 또는 인터넷 주소(<https://onsurvey.kr/Open.asp?EC=N5VG0BRU>)나 QR코드를 통해 컴퓨터나 모바일로 편리하게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8

한국형 실업부조,
현장의 의견을 담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안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고도화하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서, 현장의견 등을 토대로 '21년 제도 시행 후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월 54만 9000원 이상 소득 발생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정지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생계를 위한 취업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었기에 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정지하는 방식 대신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참여자들이 일자리를 탐색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활동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청소년부조 등 15~17세 구직자가 구직활동시 안정적으로 생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 특례가 적용되는 연령 범위를 18~34세 이하에서 15~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현재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통상 1년, 추가 6개월 연장가능) 내에 취업한 경우에만 재참여 제한기간을 단축(3년→1~2년)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기간에 취업한 자도 재참여 제한 기간을 동일하게 단축하며, 부정수급·오지급에 대한 반환금이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을 반환금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취업에 애로를 겪는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합니다. 10월 21일까지 취업상담 커피트럭이 전국 24개 대학, 채용박람회, 여성일자리박람회 및 주요 마트, 공원, 도서관 등을 방문해 1만 4300명을 대상으로 취업상담과 함께 커피차 응원을 진행합니다. 또한 10월 31일까지 친구추천 챌린지를 통해 취업 준비 중인 많은 국민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리는 홍보도 진행됩니다.



삼성청년SW아카데미

대한민국 SW의 미래를 이끕니다

9기 모집 Coming soon!!

I 모집 요강

대상 만 29세 이하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전공무관
현재 미취업자 대상

모집기간 2022년 10월 중
(SSAFY.com을 통해 공지 예정)

교육기간 2023년 1월 ~ 2023년 12월

교육장소 서울, 대전, 광주, 구미, 부울경(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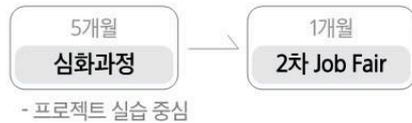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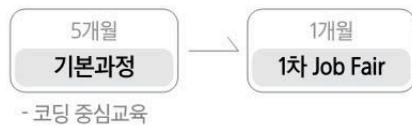
지원내용

- 실전형 SW 교육 및 개인별 맞춤형 취업 컨설팅 제공
- 교육지원금 월 100만원 지급
- 대전, 광주, 구미, 부울경(부산)캠퍼스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정부 훈련 장려금 추가 지급 가능
- 우수교육생 연수 기회부여, 교육중 삼성 SW테스트 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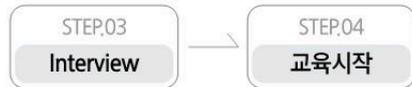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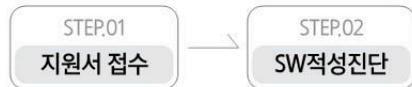
기타

- 교육기간 중 통학 가능한 자(별도 숙소 제공 없음)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대전, 광주, 구미, 부울경(부산)캠퍼스 지원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K-digital Training 수강가능자 우대

I 교육 과정



I 모집 프로세스



* SW 적성진단은 지원서상 선택한 전공 기준으로 구분하여 실시
- SW 전공 : 기초 코딩 테스트 (Python, Java, C/C++중 사용 가능한 언어 선택)
- SW비전공 : 수리/추리논리력 진단 Computational Thinking 진단

※ 본 교육과정은 삼성이 주관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며, 아이들과 미래재단이 함께합니다.(교육운영은 멀티캠퍼스에 위탁 실시)

www.SSAFY.com

✉ SSAFY@ssafy.com 📞 02-3429-5100 📷 hellossafy 🌐 hellossafy 📺 hellossafy 🗣️ SSAFY



Chapter 3



날마다

레벨업



우리 함께 더 나은 내일로

성장하고 싶은 당신을 위해

하루에 책 한페이지라도 읽기

매일 30분씩 걷기

올해에는 00자격증 따기 등등

더 나은 나를 위해 오늘도 노력중이신가요?

삶에 욕심을 내어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여러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만 모았습니다.

드라마 <유니콘> 속 흥미로운 노동법 이야기

쿠팡플레이의 야심 찬 오리지널 시트콤 <유니콘>이 화제입니다.
은은하게 돌아있는(?) 스타트업 회사 '맥콤'의 크루들의 대혼돈 분투기를 담은
귀엽고 발랄한 드라마로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특히 배우 신하균이 변화무쌍한 스타트업 대표 역할로 하드 캐리 하며
주목받았죠. 드라마 <유니콘> 속 흥미로운 노동법을 알아볼까요?



“맥콤은 나의 모든 것” K-스타트업 ‘맥콤’ 창업자, 스티브의 수난기



스타트업 ‘맥콤’은 데모데이를 통해 야심작 ‘차브네’를 론칭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반응뿐입니다. 숨길 수 없는 실망감에 대표 스티브는 낙심하지만 결국 실버세대 매칭 서비스인 ‘어게인’으로 ‘피보팅(사업 아이템을 바꾸는 것)’을 결정합니다. 모든 직원은 스티브의 피보팅을 반대하지만, 스티브는 굳은 의지로 진행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트렌드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이템 개발에 전력을 다하는 맥콤. 맥콤은 과연 성공한 스타트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을 칭하는 ‘유니콘’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창업 관련 정보를 찾는 청년이세요?

코로나 이후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창업 열기! 고용노동부는 웹사이트 온라인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 청년센터는 창업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개인별 맞춤 정보 및 취업 상담과 전국 청년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놓았는데요. 그야말로 청년들의 인생 매뉴얼을 모아 놓았습니다. 실시간 상담까지 가능하니, 취업이나 창업 등 궁금한 것이 있는 청년들은 이용해보세요!

“오늘부터 스티브 머니” 명절 선물, 한우가 아니라 가상화폐?



인사팀 모니카가 연수에서 돌아오자 맥콤의 전 직원에게 새로운 제도를 제안합니다. 바로 사내 가상 화폐인 ‘스티브 머니’인데요. 스티브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찍힌 화폐로 사내에서 커피를 사거나 거래를 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애슐리는 고장난 티비를 고치기 위해 명절 선물로 들어올 한우를 되팔아 현금을 챙기려 했지만, 모니카 때문에 스티브 머니로 명절 선물을 받게 되자 무척 당황합니다. 하지만 물질만능주의 월급쟁이 애슐리는 포기하지 않고 모니카가 독주하는 화폐 전쟁에 거침없이 뛰어듭니다.



여기서 잠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아시나요?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명절 선물비용을 비롯해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체육이나 문화 활동 지원, 창립기념일 선물비용,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후 노동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설립 여부는 노사 협의에 따른 자율사항이지만 단순히 일회성 있는 기금이 아닌 주택자금이나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등 노동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원조 지원을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제이, 맥콤에서 이루고 싶은 게 뭐야?”



맥콤 미래혁신창의팀에 새로 합류한 제이는 스티브의 클럽하우스 공채라는 파격적인 루트로 입사하게 된 인물입니다. 스티브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도 굶은 일을 도맡아 하는 맥콤의 몇 안 되는 정상인(!)처럼 보이죠. 험난한 스타트업의 세계에 들어와 ‘한탕’ 즉, 돈벼락을 노리는 동료 애슐리에게 애뜻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제이는 머뭇거립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의문스러운 모습으로 궁금증을 자아내는 인물입니다. 제이는 정말 스파이일까요? 제이가 맥콤에 온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잠깐!

고용노동부가 청년 취업을 돕습니다!

청년 채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많은데요.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해 청년고용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년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월 최대 80만 원을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지원 대상이니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문해력을 이해하는 용어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방송을 시작으로 관련 책도 쏟아져 나오는 등 최근 문해력이 화두입니다. 도대체 문해력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화제가 되는 걸까요? 문해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영상과 이미지에 익숙한 이들에게 필요한 문해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문해력의 개념

영어로 리터러시(Literacy)라고 부르는 문해력(文解力)의 사전적 의미는 글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사회적 맥락에 요구되는 방식으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최근 ‘사흘’, ‘가제(歌題)’, ‘심심(甚深)한 사과’에 대한 해석이 SNS 상을 뜨겁게 달구면서 문해력이 화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단어들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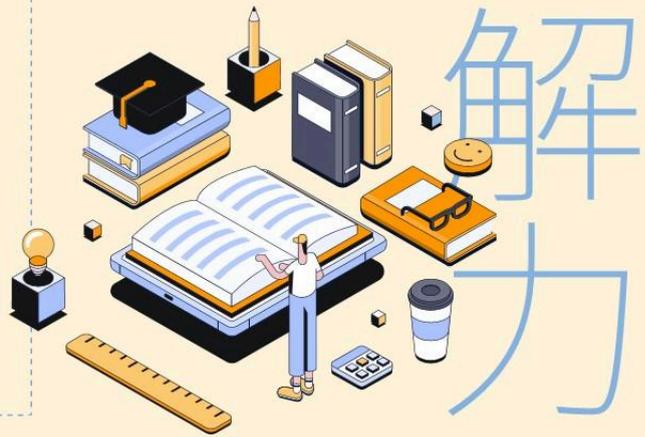
문해력, 기능적 문해력, 정보 문해력, 미디어 문해력, 컴퓨터 문해력, 비판적 문해력 등 다양한 문해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문해력이라는 큰 개념 안에 변화하는 사회, 문화적 의미를 담기 위해서 라고 해석됩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대부분의 일들이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즉, 요즘은 데이터 없이는 불가능한 시대인데요. 그 때문에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데에 있어 중요한 능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란 데이터를 읽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데이터 해석능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통계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고 목적에 맞게 가치 있는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는 것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단 IT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文 解 力

디지털 리터러시



과거 글을 모르면 까막눈, 문맹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디지털을 모르면 문맹 취급을받기 일쑤입니다. 이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든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시대적 변화로 인해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가 4차 산업시대의 핵심 역량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나라들이 앞다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하고요. 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 미디어의 정보 및 메시지를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과, 적재적소에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정보를 발견하고 평가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동적인 개념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부족하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힘든 것과 같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문해력,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는 다양한 미디어를 읽고 이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미디어 속 정보 습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읽고, 쓰며, 말하는 등 정보의 시청각적 해석을 통해 미디어를 생산, 생산, 활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현대인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라 일컫는 청소년이 알고리즘으로 인해 주제적인 미디어 선택권을 잃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미디어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하며, 창작자들은 가치있는 미디어를 창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필요합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 운명 같은 사랑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가을바람처럼 살랑살랑 마음을 간지럽히는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올 가을엔
사랑을 꿈꾼다면!
가을맞이
문화 큐레이션



빛나는 인생을 노래하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은 아름다워>는 한국영화로 첫 시도되는 뮤지컬 장르입니다. 여정(염정아)은 자신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감지하고 남편 진봉(류승룡)에게 첫사랑을 찾아 달라고 합니다. 노란 은행잎이 흩날리는 가을에 가슴을 간지럽히는 첫사랑을 찾으러 만나러 가는 그들에게 단서는 이름뿐.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첫사랑 찾기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힐링을 선물하는 나의 작은 숲
영화 <리틀포레스트>

이가라시 다이스케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리틀포레스트>는 고단한 도시의 삶에 지쳐 고향으로 내려온 혜원(김태리)이 소꿉친구인 재화(류준열)와 은숙(진기주)을 만나고 사계절의 자연 속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힐링 드라마인데요. 남과 달라도, 평범해도 다 괜찮은 청춘들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음악으로 하나되는
영화 <아저스트 러쉬>

<아저스트 러쉬>는 음악적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소년은 부모라면 자신의 음악적 능력을 알아볼 거라는 믿음으로 뉴욕으로 엄마, 아빠를 찾으러 나섭니다. 부모 잃은 천재 소년의 아름다운 여정을 담은 이야기 <아저스트 러쉬>는 영화의 모든 순간이 명장면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국내 220만 명 관객의 눈물을 훔치기도 했는데요. <아저스트 러쉬>가 만드는 음악의 기적, 감동적인 연주를 감상해보세요.



당신 눈동자에 건배
영화 <카사블랑카>

사랑했던 여인이 이유 없이 떠난 후, 세상에 환멸을 느낌 남자, 릭이 다시 사랑의 힘으로 얼어붙은 감정을 깨우는 과정을 그린 영화 <카사블랑카>입니다. 미국인 릭은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방관했지만, 과거의 연인 일리자가 찾아오면서 잃어버린 감정을 다시 되찾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랑이었네요.



짧은 사랑, 긴 그리움
영화 <만추>

영화 <만추>는 사랑이 두려운 여자 애나(탕웨이)가 만난지 하루만에 훈(현빈)에게 빠져버린 사랑이 이야기입니다. 7년째 수감 중인 애나는 어머니의 부고로 3일 간의 휴가를 나왔다가 훈을 만납니다. 그렇게 시작된 장난 같은 시애틀의 하루가 보내게 됩니다. 이 하루만에 사랑에 빠져버린 애나는 2년 뒤 교도소를 출소할 때까지 그를 잊지 못합니다. 사랑에 빠지는 데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죠. 긴 기다림 속에 진한 그리움을 간직한 <만추>는 가을에 딱 맞는 영화입니다.



잊지 못할 첫사랑
영화 <건축학개론>

푹푹하고 어설픈 첫사랑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가수 수지를 첫사랑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준 영화 <건축학개론>인데요. 이 영화는 따뜻한 포근한 배경의 대학 캠퍼스에서 펼쳐지는 청춘남녀의 첫사랑 이야기입니다. 15년 만에 불쑥 나타나 자신의 집을 설계해달라는 서연(한가인)과 당황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건 첫 작품으로 서연의 집을 짓게 된 승민(엄태웅). 첫사랑의 푹푹하고 싱그러운 그 감정이 그림다면 <건축학개론>을 추천합니다.



시인이 건네는 따뜻한 인사
도서 <계절산문>

박준 시인의 두 번째 산문집 <계절산문>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시간을 사는 동안 계절의 길목에서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간 장면을, 눈여겨 보았다가 단정하고 다정하게 이야기합니다. 박준 시인이 쓸쓸한 계절을 보내면서 누군가에게 꺼내 보내는 편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풀어낸 이야기는 책을 읽는 독자의 이야기와도 맞물리기도 합니다. 시인의 언어로 지나온 시간과 다가올 시간에게 보내는 계절 인사를 만나보세요.



뜨거운 위로의 포옹을
도서 <은혜씨의 포옹>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한지민 씨의 다운증후군 언니 '영희' 역을 맡은 실제 발달장애인 배우이자 화가인 정은혜 작가가 그림 에세이를 출간했습니다. 그림책에는 유난히 포옹하는 장면이 많은데 키가 작은 그녀가 상대방의 가슴에 찰싹 달라붙어 안겨 있는 모습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세상에서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모습인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지만 포옹 그 자체는 따뜻해 보여 흐뭇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정은혜 작가는 세상에는 더 잘난 사람도, 더 예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그녀의 그림 속 사람들 얼굴은 모두 사랑스럽네요.



음식이 채워주는 마음의 온기
도서 <허기의 쓸모>

<허기의 쓸모>는 음식으로 위로받은 적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에세이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삶의 헛헛함을 채우기에는 음식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정성을 꼭꼭 눌러 담은 한 그릇 음식, 투박하지만 사랑 담긴 집밥 등 음식이 채워주는 진심어린 응원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권합니다. 푸근한 밥상 같은 글로 마음의 온기를 채우시길.



깜깜한 밤을 밝히는 사랑
도서 <긴긴밤>

<긴긴밤>은 제21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세상에 마지막 남은 한 마리 흰바위코뿔소와 코뿔소 품에서 태어난 어린 펭귄이 수없이 많은 긴긴밤을 함께 하며, 바다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문학이라고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연결된 이야기 구성이 손에서 책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데요. 길고 깜깜한 긴 밤을 밝히는 것은 결국 사랑임을 깨닫게 합니다.



베를린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앙상블
<필하모니 스트링 퀸텟 베를린> 내한공연

필하모닉 스트링 퀸텟 베를린은 넓은 스펙트럼을 아우르며 실내악 앙상블의 한계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의 현악오중주단입니다. 이들은 오는 10월 7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공연에선 베토벤, 차이콥스키, 파가니니 등 작곡가 7인의 작품을 연주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청중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아름다운 선율을 감상해보세요.

일시: 10월 7일 /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로맨스다운 로맨스
뮤지컬 <사랑의 불시착>

온국민 '리정혁+윤세리아이'를 만들었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뮤지컬로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북한 총정치국장의 아들이자 깐깐한 군인장교 리정혁과 재벌가의 막내딸로 타고난 사업수완을 가진 윤세리가 엉뚱한 상황에서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인데요. 원작 드라마의 명성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뮤지컬로 새롭게 표현된 로맨스다운 로맨스를 만나보세요.

일시: 9월 15일~11월 13일 / 장소: 코엑스 신한카드 아티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뮤지컬 <백만송이의 사랑>

뮤지컬 <백만송이의 사랑>은 콘서트와 결합된 주크박스 형태의 창작뮤지컬로, 지난 100년간의 현대사를 7개의 에피소드로 속도감있게 전하며, 그 시절 히트곡에 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애절한 사랑이야기와 대중가요의 콜라보로 온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전 세대 공감형 뮤지컬입니다. 우리네 삶과 사랑이 역사와 음악처럼 흘러가지만 계속된다는 목직한 감동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일시: 10월 4일~10월 23일 /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50여 년간 이어진 두 남녀의 러브레터
연극 <러브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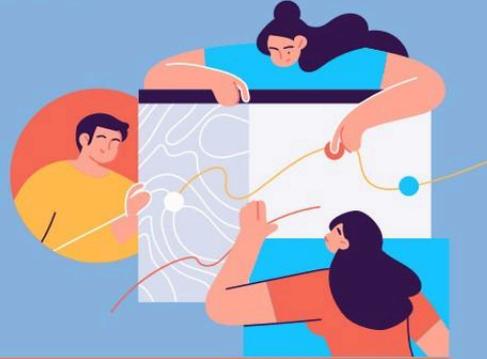
연극 <러브레터>는 주인공 '멜리사'와 '앤디'는 서로를 평생 그리워하며 47년동안, 333통이 넘는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편지를 통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담백하고 유쾌하면서도 가슴을 저리게 만드는데요. 주인공 '앤디' 역에 오징어게임의 '깐부' 오영수 님이 캐스팅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50여 년간 이어진 두 남녀의 편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일시: 10월 6일~11월 13일 / 장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같은 한글도 다르다!” 파워포인트에 힘 실는 무료 폰트들

학생, 직장인 너나 할 것 없이 수많은 파워포인트 작업을 합니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파워포인트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폰트인데요, 다양한 폰트를 사용해 완성도 높은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배포되는 유용한 폰트를 찾아보았습니다.

※ 각 해당 폰트로 본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고양시 전용 서체



고양 특례시의 전용 서체인 고양체, 고양덕양체, 고양일산체도 귀여운 폰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의 마스코트 고양이를 기호나 심볼, 아이콘 등과 함께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반듯하게 꺾꺾 눌러쓴 듯한, 권위적이지 않고 친근한 고양시의 이미지를 감성적으로 풀어놓은 고양체, 둥그렇고 따뜻한 느낌을 강조한 고양덕양체, 얇은 굵기로 산뜻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고양일산체가 있는데요. 고양특례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 서체 중 고양체를 사용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체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배포하는 폰트들은 폰트계의 '혁명'을 일으키며 레트로 열풍을 몰고왔습니다. 한나, 주아, 도현, 연성, 기랑 해랑, 한나 에어, 한나 프로, 을지로, 을지로 10년후, 을지로오래오래체 등 2013년부터 꾸준히 만든 폰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죠. 텍스트로 세월의 흔적을 표현하기도, 힘차거나 감인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 배민 한나체 에어는 본문용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작게 쓸수록 우아하고 잘 읽히니 용도에 맞게 적용해보세요. 배달의 민족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 배달의 민족체 중 배민 한나체 에어를 사용했습니다.





마루 부리 글꼴



지난 2020년 한글날을 맞아 네이버에서 공개한 새로운 글꼴입니다. 네이버는 마루 부리 글꼴을 두고 민고딕(고딕) 위주의 환경에서 글꼴 선택의 폭을 넓히고, 한글꼴의 디지털 기틀을 만들기 위해 제작한 미래 세대를 위한 글꼴이라고 설명합니다. 마루 부리 글꼴은 디지털 화면에 최적화된 화면용 본문 글꼴로 2018년부터 6만여 명의 사용자와 함께 제작했습니다. 네이버 한글한글아름답게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박용준투사회보체



지난해, 41년 만에 박용준 열사의 글씨가 디지털로 복원되어 무료 배포됐습니다. 오월 광주의 찬상을 알리고자 박용준 열사가 직접 쓰고 발간된 투사회보를 바탕으로 제작된 복원폰트입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금을 통해 글꼴이 제작된 만큼 더욱 의미가 깊은 폰트인데요. 박용준 열사는 투사회보 수천장을 찍어내기 위해 같은 내용을 23~30번 이상 철필로 찍꼭 눌러썼습니다. 그만큼 단호한 결말 혹은 결심의 느낌을 살리는 데 좋습니다.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사만루체



유튜버들의 '썸네일 글꼴'로 유명한 이사만루체는 공개임즈에서 제공하는 무료 폰트로 상업적 용도를 포함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광고나 카드 뉴스로 쓰기 깔끔합니다. 심플함 속에서 감각적인 텍스트를 강조하고 싶다면 추천합니다. 폰트를 흰색으로, 바탕을 원색으로 해도 깔끔해 보입니다. 제목에는 볼드를, 본문에는 라이트나 미디움을 사용하는 것이 어울려요. 공개임즈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보세요.

스포카한 산스 네오



지난 2015년 한글날 스타트업 '스포카'에서 처음 공개 이후 다양한 업그레이드를 거친 완성도 높은 폰트입니다. 스포카한 산스는 다국어 UI에 대응하기 위해 구글의 노토 산스와 라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커스텀 글꼴로 국문은 물론 숫자, 영문, 일문, 한자 등 다양한 언어 활용이 가능해 웹디자이너의 최애 폰트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용량을 441KB까지 줄인 경량 폰트로 웹에 사용하기에 부담 없습니다. 스포카한 산스 네오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채널 moel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정책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소개합니다.

이번 10월호에서 고대한뉴스의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고용노동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퓌터뷰,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근로자분들 휴게시설에서 편하게 쉬세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보다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설치는 당연히 휴게실의 위치,
면적, 온도, 습도 등 관리기준까지 제대로 마련되었다는데요.
지금 고대한 뉴스4에서 휴게시설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유튜브

아직 고용노동부 유튜브를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https://www.youtube.com/user/moelkorea>

👍 좋아요와 👉 구독신청, 🔔 알람신청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인터뷰에 진짜가 나타났다!

인터뷰에서 고용노동정책의 주요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누구와 함께? 궁금하면 클릭!



미취업 청년들의 희망메이트!

청년도전지원사업의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이수시 20만 원도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물도 아끼고 탄소발생량도 줄이고 양치컵 사용하기 챌린지



양치할 때 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할까요?

양치할 때 무심코 틀어놓고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3분 양치하는 동안 평균 약 3컵(0.6L)이면 깨끗하게 양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을 틀어놓으면 30초에 약 6L의 물이 흐른다고 하니

양치컵을 사용하면 1인당 4.8L의 물을 절약이 가능하답니다.

하루 3번의 양치를 하면서 14.4L의 물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연간 1.7kg의 CO₂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양치컵 사용 안 할 이유 없죠?

10월 챌린지 캘린더

CHECK! 챌린지를 실제로 실천한 날을 캘린더에 표시해 보세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국군의 날 군인들도 양치질 쓰지 않습니다
2 	3 개천절	4	5	6	7	8 한로
9 한글날	10 대체 휴일 휴일에도 잊지않기!!	11	12	13	14	15 호스피스의 날/ 문화의 날 
16	17 	18	19	20	21	22
23 상강	24	25 독도의 날 	26	27	28 	29
30	31					



10월 챌린지 캘린더,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매월 한 가지씩 우리의 내일을 위한 챌린지가 진행됩니다. 10월 챌린지 캘린더를 사진으로 찍어 #월간내일 #그린리추얼 #10월챌린지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음료 상품권을 드립니다. 혼자라면 포기하기 쉽지만, 함께 라면 훨씬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어요!

#내일스타그램

이번달
늘봄이 이야기

등장년
일자리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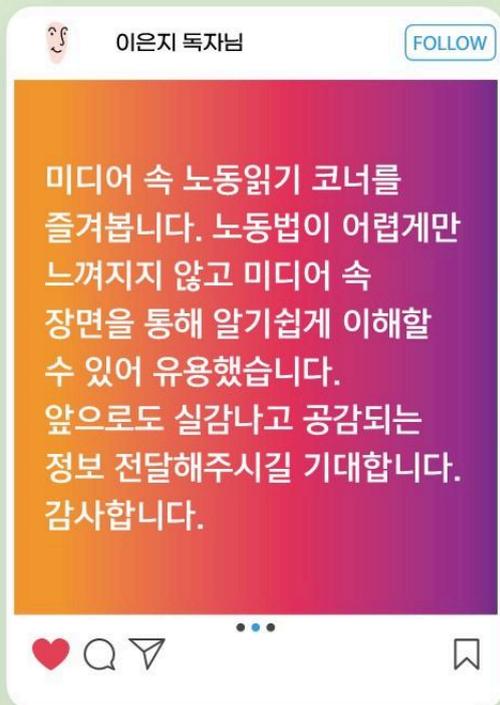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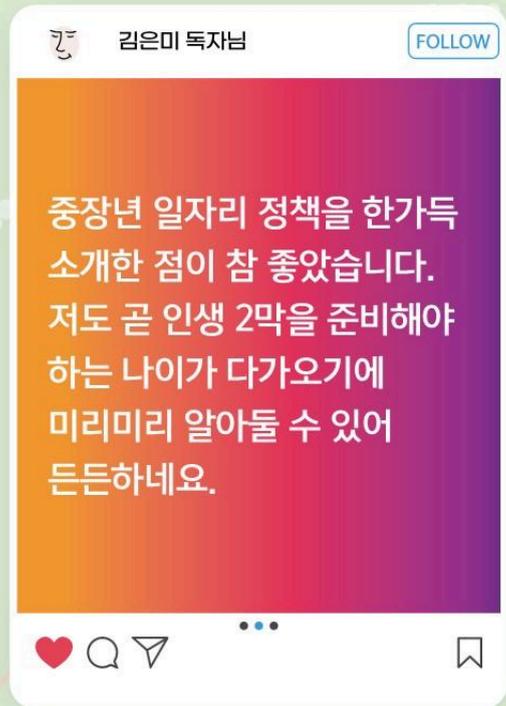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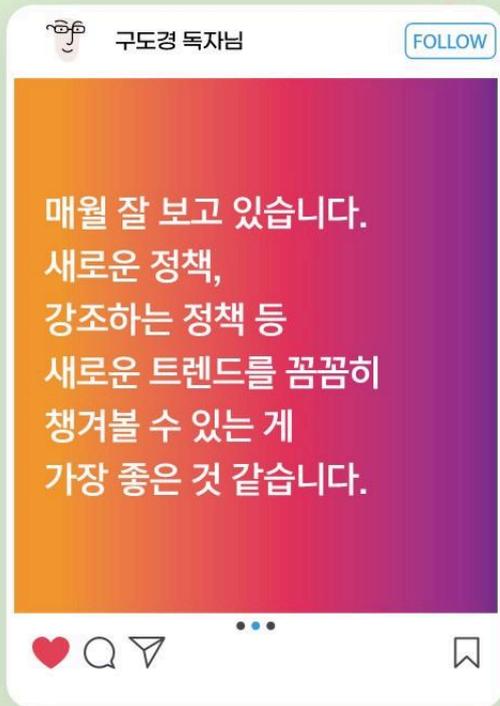
고용뉴스

주말에 뭐할래

REVIEW



10월호 그린리추얼
양치컵 사용하기 챌린지 성공 인증샷과 소감을
#내일스타그램으로 보내주세요.



월간내일 편집실로 날아온
독자 사연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이야기나
월간내일에 대한 소감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고용노동부 <월간내일> 이벤트 초성이벤트

<월간내일> 10월호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정책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자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초성을 맞춰주세요.

* 이름, 전화번호와 함께 남겨주셔야 당첨 시 기프티콘을 받으실 수 있어요.



??

ㄱ ㅁ ㄴ ㅇ ㅂ ㅅ ㅋ ㄷ

이벤트 참여방법
 1. 트렌드캐치업 콘텐츠를 열심히 읽는다.
 2. 웹진(www.labor21.kr)에 접속한 뒤 이달의 주제 맞추기를
 눌러 정답을 남긴다.



<월간내일>을 읽은 소감, 기대평 등도 남겨주면 당첨 확률이 Up! Up!
추첨을 통해 20명께 맛있는 디저트 쿠폰을 드립니다!

이벤트기간: 10월 5일(수) ~ 10월 19일(수) / **당첨자발표:** 11월 1일(화) 개별발표
당첨자: 20명 / **이벤트 상품:** 디저트 쿠폰

9월 이벤트 당첨자(*당첨자는 가나다 순)

- | | | | | | | |
|-----------|-----------|-----------|-----------|-----------|-----------|-----------|
| 김대봉(8503) | 김동석(6335) | 김승권(2629) | 김진아(4284) | 박순영(7537) | 박정숙(1634) | 박춘식(3220) |
| 박혜진(0819) | 서경훈(8374) | 심지훈(3465) | 어지민(4087) | 이의령(0677) | 이동택(9317) | 이준길(6499) |
| 이정인(1703) | 임정수(2113) | 채유진(1904) | 최근영(7352) | 최진(8709) | 함원(0901) | |

<월간 내일>을 만나는 방법

<월간 내일>은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의 가치와 중요성,
행복과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곁을 지키겠습니다.



① 인쇄 잡지로 만나기

웹진에 접속해 정기구독을 신청하세요.

② 웹진으로 만나기

인터넷 검색창에 '월간 내일' 혹은 'www.labor21.kr'을 입력하세요.

③ 카톡 플친으로 만나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월간 내일'을 검색 후 친구 추가를 해주세요.

22년 9월

22년 8월

22년 7월

22년 6월

NEXT UP!
미래로 나아가요!

메타버스 스키 그리자



이경태 뉴스핌 기자의
테마 인터뷰는 18p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트렌드 캐치업

새로운 세계의 등장!
메타버스

내일로 붙업

스포츠로 만드는 따뜻한 세상,
스포잇

날마다 레벨업

팀장님 MBTI는 뭘까?



여름의 길목에서

나뭇잎은 더욱 초록으로 짙어지고
불어오는 바람에 여름의 향기가 묻어나는 6월입니다.

섬 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 순간 올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반년이 길다면 길지만 돌아보면 항상 짧게만
느껴지는데요.

아쉬운 점들이 있다면 이번 달을 전환점 삼아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계획의 달이 되기를
고용노동부가 응원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계획의 달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Chapter 1 트렌드 캐치업!

- 08 **톡톡톡**
생각보다 가까이에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 10 **트렌드 인사이드**
새로운 세계의 등장!
메타버스 투어보기
- 16 **알아두자고용**
메타버스는 일자리를 어떻게 바꿀까?
- 18 **내일이 만난 사람**
메타버스 세상이 만드는 새로운 일자리
-이경태 뉴스핌 기자
- 24 **정책모음.ZIP**
고용노동부와 함께
메타버스에 탑승해요!





Chapter 2 내일로 붙임!

- 34 뉴스타트**
스스로 만든 두 번째 기회
-김현서 울림두레돌봄사회적협동조합
- 38 청년꿈터**
푸른 미래 가득한 청년의 꿈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김민성 씨
- 42 굿&굿 오피스**
하나의 대명사로 성장하기까지
-아이버스터
- 46 더불어 세상**
스포츠로 만드는 따뜻한 세상
-스포잇
- 50 고용노동 뉴스**



Chapter 3 날마다 레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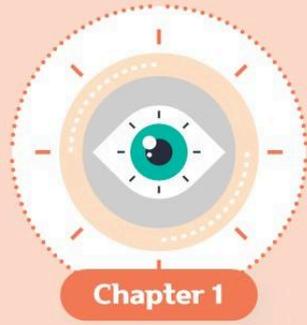
- 62 미디어 속 노동읽기**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속
흥미로운 노동법 이야기
- 66 JOB톤**
난나의 취준일기
- 68 디지털유연**
가상 현실 기술, 어디까지 왔나?
- 70 하이파이브**
직장동료과의 궁합은? 팀장님 MBTI는 뭘까?
직장인의 MBTI
- 72 주말에 뭐 할래?**
기억하는 6월, 호국보훈의 달
전쟁 테마 문화 큐레이션
- 76 플레이리스트**
칼퇴를 잊은 사람들에게 '아근송'
- 78 그런 리추얼**
지구를 지키는 이유있는 편식
함께 '하루 한끼 비건' 실천해요!
- 80 내일스타그램**



고용노동부 소식지 <내일>

통권 강남 라 00389(통권 565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큐라인



트렌드 캐치업



우리 함께 세상 읽기

메타버스 그리고 일자리

우리 곁에 등장한 새로운 세계, 메타버스.
낯선 세상 앞에 막연한 두려움이 일기도 하지만,
이미 시대의 흐름이 된
메타버스를 피해갈 길은 없습니다.
메타버스는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일자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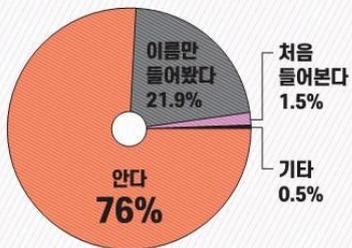
생각보다 가까이에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메타버스와 어느 정도 가까이 있을까요? 메타버스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설문은 <월간내일> 독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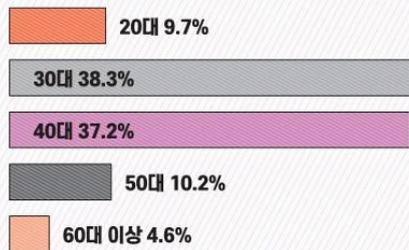
(2022. 5. 10~16. 조사 진행 / 월간내일 독자 196명 참여)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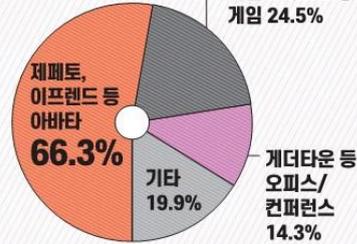


메타버스 플랫폼을 사용해본 적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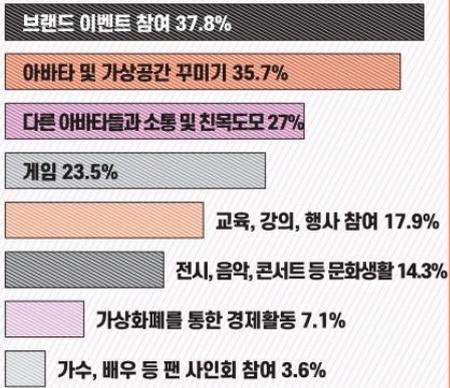
20대 15명
30대 64명
40대 57명
50대 12명
60대 이상 8명

경험해본 메타버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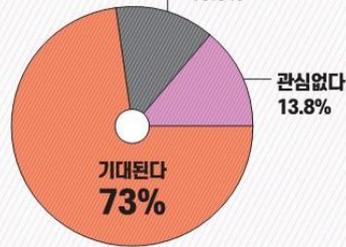


메타버스에서 어떤 활동을 해봤나요?

(중복 응답 가능)



메타버스가 바꿀 미래에 대한 생각은?



새로운 세계의 등장! 메타버스 돌아보기

이제 메타버스 없이 트렌드를 논할 수 없는데... 아직도 메타버스, 알쏭달쏭하지요?
자, 이 정도만 기억해두면 어디 가서 '메타버스' 아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그것이 알고 싶다!

메타버스(metaverse)란 가상-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세계-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디지털 기반의 가상 세계에서 현실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를 알고 있거든요! 싸이월드의 미니홈피에서 아기자기하게 내 방을 꾸민 기억나시죠? 미니홈 역시 메타버스의 일종인데요, 지금은 그 단계에서 한층 더 진화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는 그 미니홈 안에서 친구를 만나고 사진을 찍고 공부도 하는 등 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메타버스 안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아주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의 가능성을 예견한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등 정보통신 업계 굴지의 기업들 또한 관련 사업에 뛰어들면서 메타버스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제페토’, ‘동물의 숲’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메타버스 기술이 대부분 게임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게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메타버스는 게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메타버스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메타버스의 종류

현실을 증강	
외적인 투영	<p>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현실공간에 2D 또는 3D로 표현한 그래픽을 겹쳐 보이게 하는 방식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공터나 특정 건축물을 촬영하면 새롭게 짓거나 리모델링할 건물이 화면에 중첩되어 보이는 ‘프롭테크 프로그램’이나 인기게임 ‘포켓몬 고’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p>
	<p>거울세계 (Mirror Worlds) 실제 세계를 가능한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반영한 가상세계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가상세계를 알람함으로써 직접 가보지 않고도 현실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지구를 그대로 본 편 ‘구글 어스’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p>
내적인 몰입	<p>일상기록 (Lifelogging)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캡처하고 기록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SNS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캐릭터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도 나를 표현하는 일종의 ‘아바타’라는 사실!</p>
	<p>가상세계 (Virtual Worlds) 현실과 유사하거나 완전히 다른 세계를 구현한 것입니다. ‘제페토’, ‘동물의 숲’, ‘이프랜드’ 등 요즘 유행하는 메타버스 게임 형태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들은 자신이 설계한 아바타를 통해 현실세계와 매우 유사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일단투어 가상세계 안에 매장을 오픈하고 있어요.</p>
현실을 모방	



요즘 핫한 메타버스 플랫폼은 어디?

하루가 다르게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다 알기는 힘든 일이니 가장 대표적인 이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해주세요.



**코로나19와 함께 폭발성장,
모여봐요 동물의 숲**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하 모동숲)’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메타버스 게임의 하나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초에 출시돼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2020년 당시 미국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이 ‘모동숲’에서 선거운동을 했을 정도니,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이 오지요? 게임을 시작하면 나를 나타내는 캐릭터(아바타)와 아무것도 없는 섬이 주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내 섬을 꾸미면서 게임을 진행해나가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너굴사장에게 대출을 받거나 단순 노동을 통해 자재를 구하는 등 현실적이고 디테일한 설정 덕분에 ‘과몰입’을 피하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다른 이용자가 만든 마을에 놀러 갈 수도 있고, 나의 공간에 초대할 수도 있어서 일상생활이 자유롭지 못하던 코로나 시기에 정말 큰 사랑을 받았답니다.



**미국에는 로블록스,
한국에는 제페토**

미국의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이 ‘로블록스’라면, 우리나라에는 ‘제페토’가 있습니다. 네이버제트(Z)가 운영하는 국내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자신을 상징하는 아바타를 만들어 다양한 콘셉트를 가진 월드맵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맵을 선택해 들어가서 구경하고, 설치되어 있는 놀이를 즐기거나, 미션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다른 아바타와 만나 이야기하고 사진을 찍으며 사회적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월드맵에서 노는 것만으로 제페토를 체험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페토 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SNS거든요. 핫플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리며 다른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현실과 별도로 메타버스 안에서 또 다른 일상을 꾸려가는 것이죠. 제페토 안의 SNS 계정까지 관리해야 Z세대의 진정한 인싸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메타버스 속 뜨는 셀럽들

얼핏 보면 진짜 사람 같이 보일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버추얼 휴먼(Virtual Human)'은 이미 SNS나 미디어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버추얼 휴먼의 SNS 팔로워가 300만까지 올라가는 등 팬덤이 형성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들을 홍보모델로 기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메타버스에서 가장 핫한 셀럽들을 소개합니다!



6인조 가상 걸그룹, 이세울(이세계 아이들)

릴파, 아이네, 비찬, 고세구, 징버거, 주르르로 구성된 6인조 가상 걸그룹으로 VR챗(Chat)에서 활동합니다. 오디션 과정부터 팬미팅까지 현실감 있는 콘텐츠가 포인트! 다른 버추얼 휴먼에 비해 그래픽 디테일은 떨어지지만 노래가 좋아 음원차트 상위권에 오르는 등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알고 봐도 깜짝 놀라는 사실감! 루이(Ruui)

구독자 5만 명 이상을 보유한 가상 유튜버로, 유튜브에서 '루이커버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의 몸과 목소리에 AI 기술을 더해 만들어진 버추얼 휴먼인데요, 표정과 몸짓이 매우 사실적이어서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의 디테일이 특징입니다!



이미 대세! 가상 인플루언서 로지(Roz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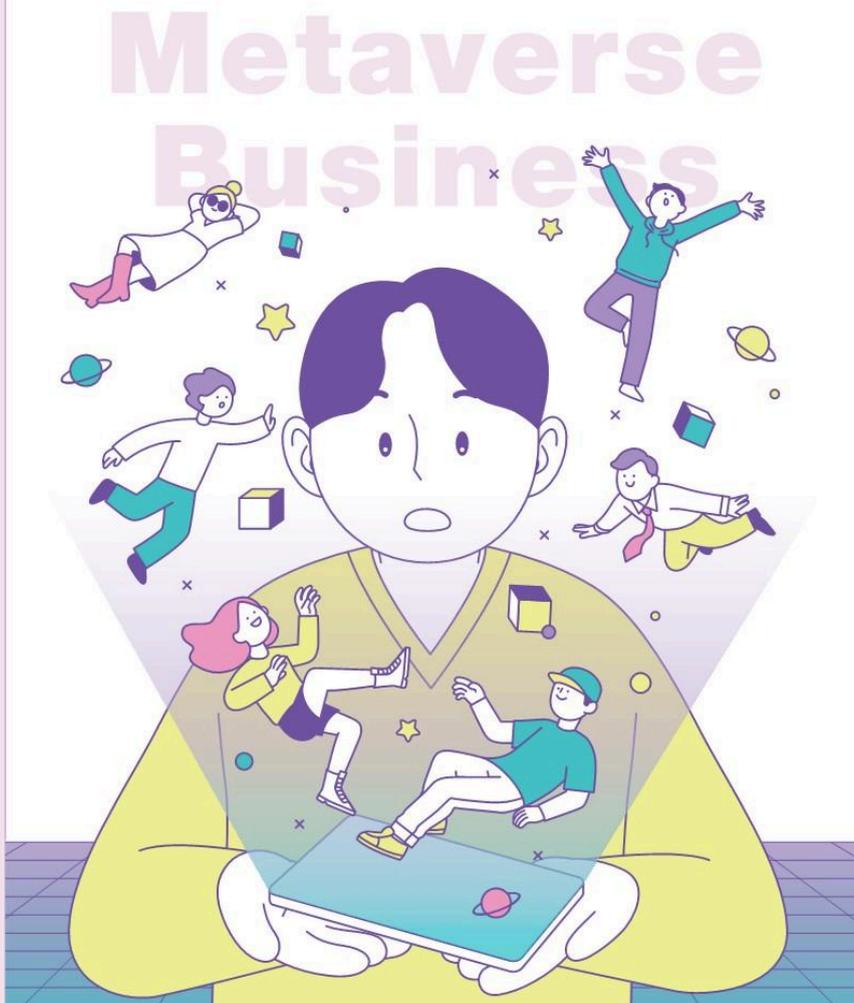
국내 최초 가상 인플루언서로 여행과 서핑, 스케이트보드, 프리다이빙, 클라이밍을 좋아하는, 밝고 쾌활한 성격의 여성입니다. 2020년 활동을 시작, 사실적인 그래픽과 트렌디한 패션으로 Z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Virtual Human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만나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메타버스가 게임으로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죠. 메타버스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며 점점 더 존재감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비즈니스에도 당연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상 오피스,
게더타운**

게더타운은 비즈니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회의, 강의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가상 오피스 공간이에요. 줌회의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간단히 차이를 설명하자면, '줌(Zoom)'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서로 얼굴을 보는 '대면 회의' 플랫폼이라면, 게더타운은 아바타를 이용하는 '비대면 회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싸이월드 미니룸 감성을 소환시키는 다소 투박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조작법이 간단하고 직관적이며, 여럿이서 이야기하는 회의에 최적화되어 있어 학교나 회사의 소모임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의 온라인 채용설명회, 직방의 원격근무 가상오피스, 연세대학교의 동아리 박람회 등이 게더타운 대표 활용 사례로 꼽힙니다.

**전 세계 바이어들이 모이는
메타버스 박람회**

판로를 찾는 기업과 바이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메타버스 박람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박람회장의 모습을 메타버스 안에 그대로 구현해놓고 바이어를 초청해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2020년 산업단지공단 울산본부에서 국내 첫 '조선 해양 온라인 박람회'를 개최해 국내외 기업 100곳이 부스를 차리고 70개국 1천 500여 명의 바이어에게 제품과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그리스 선주사와 울산 중소기업 간에 1억 달러 수출 업무 협약이 체결되기도 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메타버스 박람회들이 온라인으로 개최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공간의 제한이 없는 메타버스 박람회는 기업에게 효율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일 자리를 어떻게 바꿀까?

메타버스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인만큼, 사회·경제 전반에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가 불러올 일자리 시장의 변화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까요?



IT, 디자인 인력 수요 급증

메타버스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이에 IT와 디자인 직무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2020년과 2021년 '사람인'에 등록된 메타버스 관련 채용 공고량을 비교한 결과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210.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메타버스 산업이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앞으로 해당 분야의 인력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설명회, 면접도 메타버스에서!

올해 1분기 삼성, 롯데, CJ 등 내로라하는 국내 대기업들이 '메타버스 채용설명회'를 열었고 일부 기업은 메타버스를 활용해 신입사원 면접까지 진행했습니다. 효율적인 진행방식에 구직자들의 반응도 좋은 편입니다. 지난 3월 '사람인'에서 구직자 2,4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메타버스 채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간 제약 없이 원하는 곳에서 접속할 수 있어서'(60.6%, 복수응답)였습니다. 지원한 회사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자신이 익숙한 환경에서 채용 전형을 치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에는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등 6개 대학이 연합으로 '메타버스 취업 박람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는데, 올해는 이런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적인 취업과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늘 각 기업 및 기관의 메타버스 관련 소식에 귀를 열어주세요.



이런 직업이 뜬다!

산업구조가 변화되어 가면서 유망직종도 바뀌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과 함께 새롭게 뜨는 직업들을 소개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라지는 직업들도 물론 많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이 많다는 것도 기억해두세요.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는 메타버스 안에서 아바타들이 사용할 3D 아이템을 제작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아바타의 외형(의상, 헤어, 메이크업, 액세서리 등)을 꾸미는 아이템이나 건축물의 모양, 배경물 등을 만드는 것을 모두 포함해요. 시각디자인이나 3D 모델링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건축가

메타버스 건축가는 가상세계에서 공간을 설계하는 직업입니다. 메타버스 건축가(혹은 메타버스 공간 디자이너)는 현실세계처럼 메타버스 안에 학교, 편의점, 공연장, 놀이공원, 행사장 등 다양한 공간을 만드는데요, 단순히 블록을 쌓아 공간을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상세계 안 사용자 경험'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아바타 디자이너

메타버스 이용자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분신인 아바타를 만들어 활동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아바타를 전문적으로 디자인해주는 직업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아바타 패션 디자이너, 아바타 코디네이터, 아바타 메이크업 아티스트부터 아바타를 성형해주는 의사도 등장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바타 디자이너는 단순히 아바타의 외형을 예쁘게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을 대표하는 아바타를 만든다면 기업의 비전과 문화를 상징하는 아바타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바타가 고객을 만났을 때의 응대 방법 등도 프로그래밍해야 하는 것이죠!

XR 콘텐츠 기획자

메타버스에 기반한 모든 VR(가상 현실), AR(증강 현실), MR(혼합 현실) 플랫폼과 콘텐츠 기획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XR(확장 현실) 콘텐츠 기획자는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스토리를 짜고, 기능 구현을 위한 프로세스를 정립합니다. XR 콘텐츠 UI/UX 설계와 상세 스토리보드 작성 전반기의 기획서를 작성하고 XR 콘텐츠 상용화를 수행하죠.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러한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이 만드는 새로운 일자리

이경태
뉴스핌 기자 · <메타버스 N잡&창업> 저자



“그저 기회가 널려있을 따름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메타버스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경태 기자는 아직 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은 메타버스 시대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지금 우리가 반쯤 열린 문틈에 고개를 잠시 들이밀고 무엇이 있나 살펴보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태 기자를 만나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메타버스 세계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날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 _ 신간 <메타버스 N잡&창업>을 출간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접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제가 메타버스 관련 책을 출간할 것이라곤 생각지도 않았죠. 일하기 위해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제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제페토 앱을 잠깐 써보고 별거 없다고 생각했었죠. 이후에 2억 4,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있는 서비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중반 메타버스라는 개념과 제페토가 제 머릿속에서 합쳐지면서 가만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앱 개발과 서비스 기획 등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군요. 비로소 그동안 했던 활동 방향 상당 부분이 메타버스로 향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메타버스에 접근하며

이미 있는 레이더 차트를 가지고 잘하는 일, 즐길 수 있는 일, 배우고 싶은 일을 조합해 자신을 컨설팅해보니 전자책을 내는 것이 제가 가장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작업 기간만 따지면 석 달 정도 걸렸어요.

Q _ 메타버스가 가능한 분야는 매우 넓습니다. 이 분야별로 메타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인사이트 역시 다양하며 각자 다를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를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몇 개일지를 따져본다면, 글썽요. 저는 개수를 셀 수 없다고 봐요. 모든 분야에 메타버스를 접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알기 쉽게 책에서는 접목 가능한 분야를 ▲디자인·패션 ▲교육 ▲제조업·데이터 ▲안전 ▲건축·부동산 ▲의학 ▲미디어 ▲연구·개발 (R&D) ▲관광 ▲예술 ▲가상자산 ▲법률 등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가 가능한 분야를 특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를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산업 분야 등에서 찾는 게 아니라 사람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Q _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사람에서 찾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여러 분야가 아니라 메타버스라는 하나의 그릇에 각 분야의 특성을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세계에서



린스타트업의 핵심은 고객의 문제에 대해 빨리 해결책을 만들어보고 이를 물어보고 계속 수정해서 곧바로 내놓고 만족한다면 판매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아가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데 있습니다. 일종의 밀당일 수도 있고요. 노동 구조에서 밀당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노조가 그런 걸 잘하고 있지만 말이죠.

그 요소에 맞는 분야를 뽑아 쓰면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방향을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방향을 떼어서 새로운 메타버스 환경을 만드는 식인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람에게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Q _ 책을 통해 린스타트업 개념을 적용하셨는데요. 린스타트업이란 무엇인가요?

린스타트업이란 경영의 개념 중 하나로 신속하게 제품을 만들고 그 성과를 살펴보고 다음 제품 개선에 곧바로 반영하는 것을 반복해서 성공률을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린 제조 방식을 본뜬 것이죠. 요즘들어 기존의 스타트업들도 이런 방식을 많이 적용해왔습니다. 린스타트업의 핵심은 고객의 문제에 대해 빨리 해결책을 만들어보고 이를 물어보고 계속 수정해서 곧바로 내놓고 만족한다면 판매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아가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데 있습니다. 일종의 밀당일 수도 있고요.



노동 구조에서 밀당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노조가 그런 걸 잘하고 있지만 말이죠. 린스타트업 차원에서 경영자가 노동자를 향해 느끼는 문제가 있을 건데, 이 부분을 공감할 방안도 바로 린스타트업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상대의 문제를 고민해볼 수 있는 여유를 찾아야 할 것이고요.

Q _ 메타버스를 노동자에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메타버스라는 가상 현실이 생기기 때문에 노동자는 재택을 하거나 아니면 가상의 시뮬레이션과 실제 기계가 호환되니 일을 덜 해도 되고, 그러니 자리를 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목하면 노동자에게는 희망이 없겠죠. 인공지능(AI) 시대에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와 비슷합니다.

다만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보다 원활한 소통의 도구로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고민해야 할 겁니다. 얼마 전 정부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프랜드'

라는 메타버스를 통해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과학 관련 행사를 진행했는데, 행사가 끝나고 학생 캐릭터들이 임원에게 달려와서 어깨동무도 하고 사진도 찍고 가깝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행사였다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가 바라본 메타버스는 거침없는 소통의 도구였습니다. 노동자들과 기업 대표와의 보다 원활한 소통 도구가 메타버스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 만큼 기존의 메타버스 환경이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겁니다.

Q _ 책에서 다뤘던 그룹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소개해주셨는데요.

이 중 가장 흥미롭게 보시는 메타버스가 있나요?

메타버스 플랫폼 전체보다는 다소 부분적인 서비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 서비스 가운데 흥미롭게 바라보는 분야는 바로 가상 인간입니다. 가상 인간을 통해 일종의 부캐(부캐릭터)

로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저만의 가상 인간 샘플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게임 제작하는 프로그램, 3D 모델링 프로그램, 표정을 실시간으로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상호 연결 또는 결합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가상 인간이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Q _ 책 제목처럼 메타버스를 N잡과 창업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책의 핵심이기도 한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레이더 차트를 통해 나 자신을 먼저 스테디 하는 것입니다. 결과론적 사고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실패를 줄여가는 방식

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의 세팅을 한 다음에 메타버스라는 세계를 바라봐야 일자리가 나옵니다.

메타버스 역시 하나의 서비스이고 개발 영역이 있을 것이고 콘텐츠 등을 창작하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팔고 공론화하는 영역도 존재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메타버스 세계는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일자리는 본인이 자신을 이해하고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면서 찾아갈 수 있고, 아니면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과거 '포켓몬고'란 게임이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포켓몬을 잡으러 가고 싶지만, 이동이 여의찮은 사람을 위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대신 포켓몬을 잡아주는 아르바이트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창업 역시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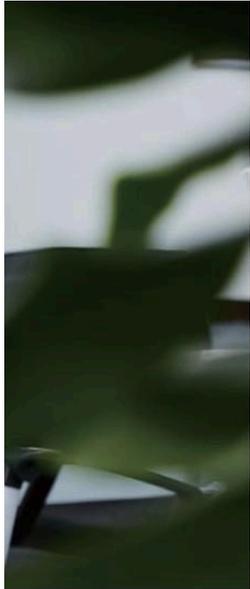


사람의 문제나 요구에 대한 해결법을 찾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하면 창업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하는 것이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결국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진짜로 불편해서 바뀔렸으면 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Q _ 기자로 일하시며 정부의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몰
으로 실감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정부도 메타버스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부처에서 기존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활용해 부처별로 성격에 맞는 시장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방향에서는 메타버스를 신대륙이라는 개념으로 살펴



가장 중요한 것은 레이더 차트를 통해 나 자신을 먼저 스테디 하는 것입니다. 결론론적 사고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앞서 말했듯 실패를 줄여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의 세팅을 한 다음에 메타버스라는 세계를 바라봐야 일자리가 나옵니다.

보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에는 메타버스에 대해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환기해준 시기라고 보고 올해가 메타버스 원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투자 시장에서는 메타버스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너무 많은 관심이 집중된 이후의 기저효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부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데 힘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이 기술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개발자나 기획자, 디자이너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 정도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 양성에도 상당한 지원을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순히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뛰어넘어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인재 양성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바라는 것은 아마도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거대 플랫폼이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해가고 있기는 하나, 틈새시장에서 우리만의 기술로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_ 앞으로 메타버스는 어떤 세상을 열게 될까요?

세상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메타버스 세계가 활성화되더라도 우리의 현실 세계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디지털 문서를 복사해서 또 다른 문서로 저장한 뒤에 기존 내용을 수정하거나 완전 새로운 내용으로 바꾸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본을 다시 복사해서 고치는 작업이 우리 현실과 메타버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능성을 찾는 것인데요. 꿈을 꾸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많은 기업이 나와서 재미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미에 작가의 <달려구트 꿈 백화점>은 꿈을 사면 다양한 주제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서비스해주고, 그런 꿈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꿈이나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누군가는 제시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 행복을 느끼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메타버스의 미래일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메타버스에 탑승해요!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나갈지 가능하기 어려운 '메타버스'라는 미래.
하지만 차근차근 알아나가고 준비하면 어느새 익숙한 일상이 되어 있을 거예요.
메타버스 세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디지털'과 친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고용노동부의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과 'K-디지털 트레이닝'을 주목해주세요.





**디지털 완전 초보라면?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도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가 생소한 청년과 중장년 구직자를 위해 2021년부터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청년, 중장년 구직자들이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기초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상반기 7개 훈련기관, 20개 훈련과정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 24개 기관이 118개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과정은 코딩, 빅데이터 분석 등 기초 프로그래밍 과정부터 메타버스, 사물인터넷(IoT), 3D 디자인 등 최근 관심받고 있는 과정까지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클래스101, 팀스파르타, 패스트캠퍼스 등 우수한 민간의 혁신 훈련기관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훈련기관을 발굴해 수강생들에게 양질의 훈련과정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청년, 중장년 구직자이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300~500만 원 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지 마세요 K-디지털 트레이닝과 함께 하세요

2020년 9월 43개 훈련 공급기관을 선정하여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은 엘리스, 멧쟁이 사자처럼, 삼성 멀티캠퍼스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민간 혁신 IT 훈련기관이 참여해 실제 직무에서 쓰이는 코딩 기술을 배우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디지털 분야의 기술 트렌드와 채용 트렌드 두 가지를 모두 이끄는 기업들도 함께 참여해 기업이 제시한 실무 문제를 풀어어나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변화하는 채용시장의 흐름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청년 취업실태에 발맞춰 올해에는 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청년에게 훈련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4월12일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확대 운영'에 대해 발표된 바와 같이 디지털 신기술 분야 능력 개발 프로그램으로써,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의 지원 규모와 참여 가능 인원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이 수도권에 집중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 훈련과정 개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다양한 지역의 양질의 훈련 과정을 발굴, 선정할 계획입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유형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존의 K-디지털 트레이닝(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훈련과정뿐만 아니라, 2021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훈련과정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지원대상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 마찬가지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야만 가능합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유형	내용	주요과정	훈련분야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기존 K-디지털 트레이닝)	참여기업의 훈련수요를 기반으로 참여기업과 훈련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 후 설계된 현장 프로젝트 중심의 디지털·신기술 분야 훈련과정	부스트캠프 AI Tech	AI
		우아한테크코스 웹 백엔드	클라우드
		우아한테크코스 웹 프론트엔드 과정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벤처기업협회 등 협·단체가 회원사의 인력수요를 조사하고, 훈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채용연계형(훈련생의 50%, 협·단체 회원사) 훈련과정	엘리스 SW Engineer 트랙	웹&콘텐츠 개발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 내 인력수요를 바탕으로 참여기업과 훈련기관을 발굴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현장 프로젝트 중심의 훈련과정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과 개발을 한 번에! DevOps 부트캠프(부산)	클라우드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삼성의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KT의 에이블 스쿨 등 디지털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훈련과정	청년SW아카데미(SSAFY)	빅데이터
		AIVLE School AI개발자	
		AIVLE School DX컨설턴트	AI
		청년 AI, Bigdata 아카데미	빅데이터
		SKT FLYAI	AI
		Kakao 클라우드 개발자 양성과정	클라우드
Kakao 클라우드 엔지니어 양성과정			

K- 디지털 트레이닝 주요 훈련기관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매년 약 2만 7000명을 양성할 수 있는 314개 훈련과정(145개 기관)을 순차적으로 개설,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과정은 훈련기관에 따라 개설 시기가 각각 다르며, 현재 운영 중인 훈련과정은 HRD-Ne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개설된 훈련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명	훈련과정	분야
CONNECT (네이버 커넥트)	부트캠프 AI Tech	AI
우아한 형제들	우아한테크코스 3기 백엔드 과정	클라우드
멋쟁이 사자처럼	멋쟁이사자처럼 인공지능 통합과정	AI
	멋쟁이 사자처럼 스타트업 스쿨	클라우드
모두의 연구소	인공지능 전문가 과정	AI
	인공지능 개발자 양성과정	AI
	AI deep DIVE 코스(부산, 울산, 대구)	AI
엘리스 /*elice*/	인공지능 서비스 기획 개발 트랙	AI
그랩/프로그래머스	인공지능 데브코스	AI
	자율주행 데브코스	자율주행
	데브코스: 클라우드 기반 백엔드 엔지니어링	클라우드
	데브코스: 빅데이터 플랫폼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코드스테이츠	AI 부트캠프	AI
	블록체인 개발자 양성 부트캠프	핀테크
	프로덕트 매니지먼트(PM) 부트캠프	빅데이터
	그로스 마케팅 (GM) 부트캠프	빅데이터





삼성 멀티캠퍼스	온오프 연계 AI활용 지능형 서비스 개발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엔지니어링 전문가	빅데이터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 개발	빅데이터
	서비스 산업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서비스 산업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실무	빅데이터
	딥러닝 기반 AI엔지니어링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IoT 서비스 개발	빅데이터
	융복합 프로젝트형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개발	AI
	융복합 프로젝트형 IoT 서비스 개발	IoT
	융복합 프로젝트형 클라우드(MSA)서비스 개발	클라우드
	Goorm 구름	쿠버네티스 전문가 양성 과정
AI기술 자연어 처리 전문가 양성 과정		AI
팀스파르타	실무형 클라우드 엔지니어 양성 과정	클라우드
	AI 웹개발자 양성 과정	AI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핀테크 과정	핀테크
한양대학교	PBL 센서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과정	빅데이터
	PBL 머신러닝 기반 빅데이터 분석가 양성과정	빅데이터
SK인포섹	클라우드 보안 융합전문가 양성과정	클라우드
	클라우드기반 데이터 보안 전문가 양성과정	클라우드
	클라우드 AI 융합 전문가 양성과정	AI
스마트인재개발원	지능형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개발자과정	빅데이터
	스마트그리드기반 IoT융합 SW전문가과정	IoT
	인공지능서비스 개발자 과정	AI

HRD-Net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은 다른 건가요?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기초지식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 초급·중급 수준의 훈련을 제공하며, 언제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도록 100% 원격으로 진행됩니다. 5시간부터 88시간까지 훈련시간도 다양합니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300~500만 원 외 별도로 50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을 수강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다른 과정도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수료 후 K-디지털 트레이닝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체 훈련비용의 10%를 자비로 부담하는데 이는 과정 수료 시 전액 환급됩니다.

반면, K-디지털 트레이닝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7~8시간씩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강의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최초 신청할 경우,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강 기간동안 훈련장려금도 지급되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야만 해요

K-디지털 트레이닝과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여러 교육 과정을 무료, 혹은 일부 지원을 받는 상태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시행 2022.2.18)'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의 자까지 발급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직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또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의 발급 과정은 매우 간단해요. 온라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HRD-Net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도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다면 HRD-Net에 로그인한 후 다양한 훈련 과정 중 내가 원하는 과정을 신청하기만 하면 K-디지털 트레이닝 수강 준비 완료입니다!





Chapter 2

내 일 로



부업

우리 함께 희망찬 내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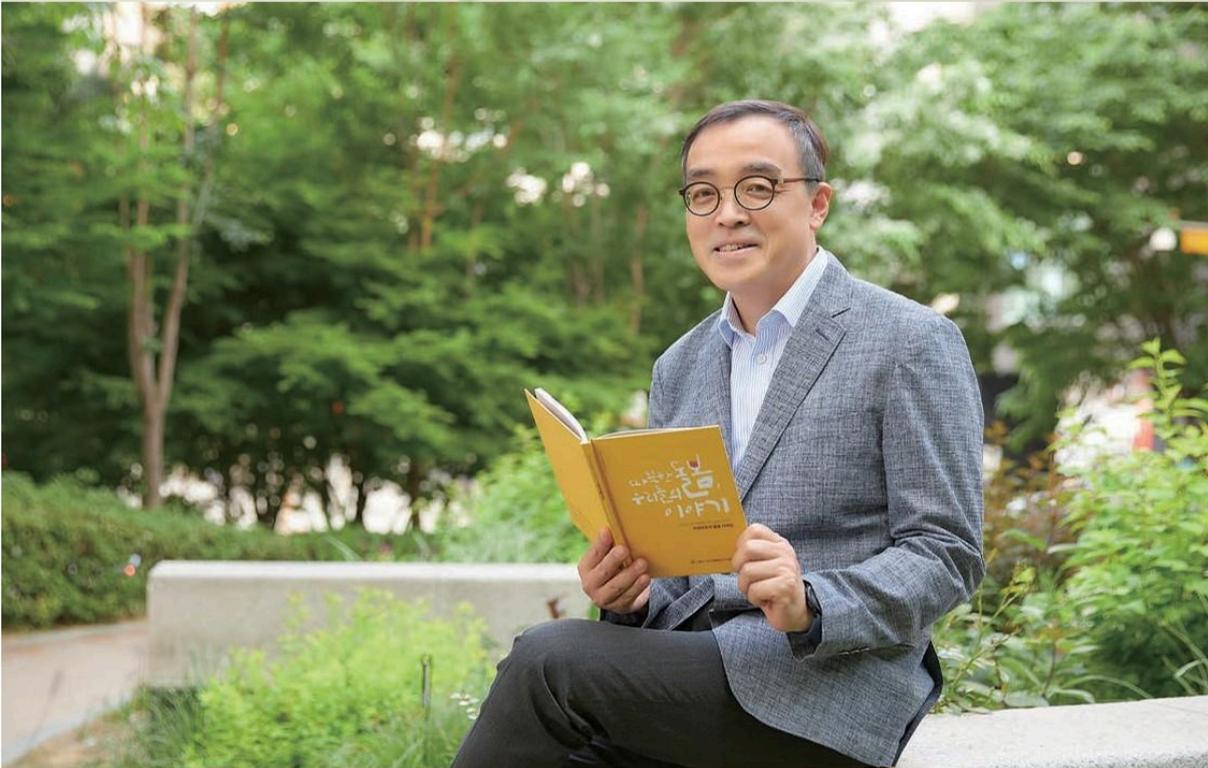
자신만의 걸음으로 앞으로

남들과 같은 속도로 달려야 할 필요 없어요.
자신만의 걸음으로,
자신만의 보폭, 속도, 방향으로
나 자신에 집중하며 내일로 나아가볼까요?

스스로 만든 두 번째 기회

김현서 올림두레돌봄사회적협동조합

서울50플러스재단의 50+인턴십 사업을 통해 취업까지 연결된 김현서 씨는 마포구에 자리한 올림두레돌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정직원으로서 회계, 인사 등의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50+인턴십 사업의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김현서 씨는 그 비결을 “꼰대가 되지 않는 것”으로 꼽았습니다.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기도 했고, 제가 하던 일을 그대로 살리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바로 인턴십을 갈 수 있었어요. 직원을 관리형과 실무형으로 나눈다면, 저는 회사에 다니며 나름대로 자격증 과정을 준비해 자신을 실무형으로 단련시켰습니다.

정년의 끝에서 만난 우연

오랜 시간 IT 관련회사의 재무, 회계, 인사, 급여 등 경영지원을 해온 김현서 씨는 2021년 초 정년퇴직을 앞두고 그간의 경력을 활용해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리라 마음먹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였지만 '65세까지는 당연히 회사 생활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김현서 씨는 우연히 지하철 광고판에서 50플러스재단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50플러스재단과 상담 중 중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기업이나 기관의 인턴으로 파견되는 '사회적경제(SE) 펠로우십'을 알게 됐고, 그렇게 지금의 회사와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김현서 씨의 업무 능력이 필요한 기업이 여럿 있었지만, 그는 여기가 본인과 맞는 곳이란 생각에 골랐다고 합니다. 당시 기존 회사에 다니던 시기였지만, 정년 퇴임을 앞둔 김현서 씨의 인생 2모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던 터라 가능했습니다.

“사실 인턴십을 나가시는 분들은 퇴직하고 어딘가에서 체험활동이나 준비를 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저는 운이 좋기도 했고, 제가 하던 일을 그대로 살리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바로 인턴십을 갈 수 있었어요. 직원을 관리형과 실무형으로 나눈다면, 저는 회사에 다니며 나름대로 자격증 과정을 준비해 자신을 실무형으로 단련시켰습니다.”

김현서 씨의 말처럼 그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인생 2모작을 위해 전산 회계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준비합니다. 잘하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턴십 과정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김현서 씨는 관리형이 아닌 실무형 인재가 됐습니다.

성공적인 인턴십과 고용 연계

김현서 씨가 인턴으로 일하게 된 울림두레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돌봄 관계망을 통한 안심 돌봄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생활지원단,

65세까지는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은 바람이 커서 직장생활을 계속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합에 있으면서 구인 사이트도 많이 봤죠. 다행히 지난 2021년 6월 정직원 전환이 되며 불안함이 사라졌어요.



이용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협동조합입니다. 지난 2007년 한뫼두레를 설립한 이래 2008년 두레지원센터 설립, 2019년 돌봄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김현서 씨가 인턴으로 들어갔을 당시, 이곳은 협동조합이 으레 그렇듯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있진 않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운영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김현서 씨는 회의 기초부터 웹사이트 화면 구성, 취업 규칙 등 잡혀 있지 않은 시스템을 손보는 데 힘썼습니다.

“찾아보니 서울시에서 노무사를 파견해주는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제가 신청해 미팅하기도 했어요.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갖춘다든지 회사에 맞는 서식을 만든다든지 하는 식이었죠. 없는 걸 창조할 순 없었지만, 그동안 해왔던 일이나까 일을 찾아서 한 거죠.” 6개월간 인턴생활을 하며 약 60만 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현서 씨가 한 일은 월급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노동이었습니다. 차츰 동료 직원들에게도 인정받게 됐고, 결국 조합의 제의로 더 오래 일할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정직원이 되진 않았어요. 65세까지는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은 바람이 커서 직장생활을 계속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합에 있으면서 구인 사이트도 많이 봤죠. 다행히 지난 2021년 6월 정직원 전환이 되며 불안함이 사라졌어요. 취업하기 쉽지 않은 나이인 만큼 조직에 구성원으로 몸담고 있는 것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곧바로 정직원이 되려는 노력

김현서 씨는 프로의식을 가진 '탈 끈대'입니다. 신입사원도 아니면서 주어진 일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력자로서 회사에 도움을 주되, 본인이 아는 것이 맞다는 소위 끈대식 마인드도 지양합니다. 조직이나 기업 그리고 본인의 부족한 점을 빠르게 판단하고 인정할 줄 압니다. 직원들에게 부족한 점을 먼저 알리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생각하는 조직에 대한 이해와 구성원에 대한 배려입니다.

“IT기업에 있다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하다 보니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직무 숙지와 관계기관인 서울시, 건강보험공단과의 소통 등이 처음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생경했던 업무가 손에 잡힌 데에는 저의 노력도 있었지만, 많은 분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우리 조합에는 이사장님, 사회복지사, 코디네이터 그리고 저 이렇게 네 명의 사무국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이 없을 겁니다.”

서툴지만 꾸준히 김현서 씨는 본인의 과업을 다했습니다. 급여 시스템을 엑셀로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밤을 새우기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컴퓨터활용능력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 2모작을 위해 뛰어난 현장에서 삶의 본질을 접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을



만나 도움을 주다 보니 선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가치관을 정립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현서 씨는 인생 3모작을 65세 이후로 잡고 지금부터 잘 대비해 나가려 합니다. 인생 3모작은 대학교에 입학해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김현서 씨는 이 모든 목표가 50플러스 재단을 만나지 못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심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해”라고 하잖아요. 전 그만큼 무책임한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 번도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보거나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사회에 나오면 정말 막막해요. 50플러스재단이나 고용노동부에 찾아가 적극적으로 상담 받아보세요. 많은 분이 도와주실 것이고 그곳에서 감춰진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Tip.

사회적경제(SE) 펠로우십이란?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와 동료, 지지자를 뜻하는 펠로우(Fellow)를 합친 말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이어가는 앙코르 커리어를 뜻합니다. 50+세대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해당 기업이나 기관의 사회적 연대 확산과 경제적 가치 증진,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 프로그램입니다.

푸른 미래 가득한 청년의 꿈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김민성 씨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풍요롭지 못한 가정 환경에 머물러 멈춰 있지 않고, 언제나 꿈과 희망 그리고 긍정이란 단어를 좇아간 김민성 씨는 스물여섯이라는 짙은 나이보다 훨씬 말갈게 웃습니다. 그가 순수한 웃음과 긍정적인 미래를 꾸려갈 수 있었던 데에는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힘든 유년기를 이겨낸 긍정의 힘

김민성 씨는 어머니가 없는 한부모가정에서 몸이 아픈 아버지를 모시고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동생까지 보살펴야 했던 민성 씨는 유년기에서 소년기로 넘어가던 시절, 밤낮으로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정을 지킬 수 있으면서 꿈을 꿀 방법은 무엇인지 포기하지 않고 찾았습니다. 학교 진로상담도 여럿차례. 결국 적성에 맞는 공업고등학교 기계과에 진학해 설비 엔지니어라는 구체적인 직업을 목표를 잡게 됩니다. 진학 후에도 민성 씨는 설비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열심히 성적관리를 하고 설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뛰어난 취업 시장은 높은 벽을 실감케 했습니다. 설비 엔지니어가 대부분

경력자를 선호했기 때문이죠.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를 대신해 민성 씨를 키워 주신 할머니가 치매로 쓰러져 병간호를 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집 근처로만 취업해야 하는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누군가는 불우하다고 할 수 있는 가정환경이었지만, 민성 씨는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속엔 주위의 도움을 비롯해 그 시절 자주 봤던 다큐멘터리에서 어려운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잘 견디며 사는 것을 TV로 보며 힘을 냈어요. 타인의 고통을 저와 비교한 게 아니라, 그들이 힘을 내서 살아가는 모습이 저에게 용기를 주더라고요. 할머니 병간호가 겹치며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일 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저같이 힘든 청년에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전액 지원해주고 있었어요. 직업훈련도 다양한 학원과 연계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었죠.”

한 번의 실패와 철저한 준비

백방으로 노력하던 민성 씨에게 동사무소의 직업 상담사가 연락해 온 것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과거 “사기업은 경력이 없어 취업하기 어려우니, 신임을 뽑는 일자리가 나오면 꼭 알려주세요”라며 직업 상담사에게 말을 해둔 민성 씨를 기억한 겁니다. 시 산하의 지방공기업에서 기계 설비와 관련된 직무를 뽑는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민성 씨는 블라인드 채용 공고 방식을 처음으로 접하고 깜깜한 터널에서 빛을 본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천금과 같은 기회였죠. 경력을 보지 않고 오로지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직무능력표준 시험, 면접만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집 근처라 할머니 병간호도 걱정 없었고 그동안 꿈꿔온 기계 설비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여기 아니면 안될 것 같았죠. 그런데 지원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필수 국가기술 자격증인 ‘에너지관리기능사’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에도 민성 씨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곳에서 매년 기계 직무를 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민성 씨는 ‘내년에는 꼭 이곳에 취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했습니다. 실기시험이 작업형이라 학원까지 다녀야 했죠. 민성 씨는 오래전 대학교에서 들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떠올렸습니다.

“어느 학원이든 최소 50만 원은 필요했어요. 취직도 못하고 집안 상황도 좋지 않은 저에겐 부담스러웠죠. 그런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저 같은 저같이 힘든 청년에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전액 지원해주고 있었어요. 직업훈련도 다양한 학원과 연계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성공한 취업

학원은 열정 가득한 선생님들이 민성 씨를 정성껏 교육해주었습니다. 배관 절삭부터 가스용접, 최종 조립까지 차근차근 알려주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1:1로 따로 수업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민성 씨는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지난해 안타깝게 넣지 못한 기업이 2021년에 다시 채용 공고가 뜨길 기다리면서 말이지, 또 설비직 무에 도움이 될 만한 직업훈련인 공조냉동을 다시 한번 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훈련이 끝나갈 때쯤 기다리고 기다리던 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최종면접에서 합격합니다. 마침내 2022년 봄, 민성 씨는 안양 도시공사 종합운동장사업부의 주임으로서 설비 엔지니어로서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채용공고가 뜨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기계 설비 업무나 보조 업무, 유지 관리 쪽 민간기업에 취업을 시도하려 했어요. 많이 불안하고 두려웠죠. 그럴 때마다 가족, 친구들, 여자친구가 큰 버팀목이 돼 주었어요. 특히 여자친구는 오랜 기간 제 옆에서 지켜주며 저를 좀 더 긍정적인 사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어요. 힘든 문턱에서 좌절하려 할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이제 취업했으니 값이줄 날만 남았어요.”

민성 씨는 취업에 성공하게 된 첫 번째 비결을 망설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꼽습니다. 더해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에 놓은 구직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학원비 걱정부터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면 무척 낮은 비용으로 학원에 다니고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무척 수준이 높고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세요. 저도 했으니,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어요. 저 역시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퇴근 후 직업훈련을 받아 기계 설비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도 취득하고 업무에 관한 공부도 열심히 해서 기계 설비전문가로 성장할 겁니다.”

Tip.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비롯해 HRD-Net을 통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을 이수하기 바랍니다. 구직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직업훈련을 통해 배운 기술과 지식이 면접에서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남들보다 그 직무에 대해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이점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취업에 성공하고 나니 '왜 이런 제도를 미리 알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나의 대명사로 성장하기까지

아이버스터



아이버스터는 '세상에 놀라거나, 세상을 놀라게 하거나' 라는 생각으로 제품을 기획하고 만드는 회사입니다. 사람들의 새로운 생각, 재미있는 생각, 불편함에 대한 생각들을 현실로 풀어내죠. 아이버스터는 직원들이 생각을 마음껏 펼쳐 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아이버스터는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청년 친화 강소기업이 되었습니다.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모바일 액세서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요소, 보호와 디자인을 합성한 개념의 프로자인은 당시 시장에 없던 새로운 혁신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 셀 수도 없이 다양한 스마트폰 종류에 맞춰 제품을 만들기란 경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립톡의 모든 것

스마트폰 핸드 그립 '그립톡'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과거 링 형태이던 핸드 그립의 트렌드가 서서히 손가락 사이에 끼울 수 있는 그립톡으로 바뀐 지는 꽤 오래 됐습니다. 최근 그립톡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유명 연예인들은 본인의 얼굴을 넣기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신의 반려동물 얼굴을, 아이들은 귀여운 캐릭터 모양으로 스마트폰을 꾸미기도 하죠. 최근엔 한 지자체가 '외국인들을 위한 범죄예방 가이드' QR코드 활용방안으로 그립톡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두가 대명사로 알고 있는 그립톡이 사실 한 회사의 브랜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아이버스터입니다. 아이버스터는 2014년 스마트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케이스를 화면으로 씌운 획기적인 제품 프로자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

준히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 액세서리를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모바일 액세서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요소, 보호와 디자인을 합성한 개념의 프로자인은 당시 시장에 없던 새로운 혁신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 셀 수도 없이 다양한 스마트폰 종류에 맞춰 제품을 만들기란 경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동훈 대표는 당시를 회상하며 아찔하게 웃습니다.

“기종이 너무 많아서 비용적으로 따라가는 게 힘들었어요. ‘모든 휴대폰 기기에 쓸 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나온 것이 그립톡이었어요. 2016년이었죠. 프로자인으로 익힌 스마트기기를 보호하는 능력에 그립감을 더한 것이었죠. 아이템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 쉽지 않은 않았어요. 링을 오랫동안 낀 분들이 그립톡으로 습관을 바꾸게 하는 게 어려웠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덕분에 방송에도 몇 번 나왔고요. 그때 배운 커뮤니케이션이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카카오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협업하게 됐고, 결과가 좋았죠.



MZ세대 공략법

고민 끝에 남동훈 대표가 선택한 타깃은 지금의 MZ세대였습니다. 캐릭터를 접목하기 시작했죠. 다양한 아트 작품을 적용하며 좀 더 편안하면서도 사용 시 디자인이 보여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거치대로 브랜딩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카카오 그림톡은 MZ세대들에게 지금의 그림톡을 알리게 된 중요한 계기였죠.

“첫 출시 이후 그 누구도 저희와 협업할 생각이 없더군요. 브랜드 인지도를 위해 젊은 층을 공략하려면 다양한 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참 어려웠어요. 카카오에 가

서 매달리다시피 했어요. 사실 저는 특전사에서 5년간 근무하고 전역 후 보험회사에서 지점장을 했어요. 그때도 우선 부딪쳐가며 몸을 움직였어요. 무작정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덕분에 방송에도 몇 번 나왔고요. 그때 배운 커뮤니케이션이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카카오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협업하게 됐고, 결과가 좋았죠.”

남동훈 대표가 우선 몸으로 부딪치고 일을 벌이는 적극적인 성격이라면, 그와 창업부터 함께한 이종수 부대표는 분석과 데이터를 근거로 움직이는 차분한 성격입니다. 정반대인 두 사람은 보험사 시절부터 만나



지금까지 많은 것을 공유하는 파트너입니다. 너무도 다른 서로의 성격을 잘 알다 보니 간섭하지 않고 믿고 맡깁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가 되었죠. 젊고 잘 맞는 두 임원 덕분에 직원들은 퇴사를 제로에 가까운 아이버스터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근하고 싶은 회사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두 임원의 신념입니다. 간섭하고 지켜보고 지시하기보다는, 가능한 선에서 모든 요구를 들어주면서 일할 수 있

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브랜드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도 제품을 기획하고 만드는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근무 환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창업했을 때 여러 회사에서 좋다고 하는 복지는 다 넣어놨어요. 나중에 힘들어서 빼는 한이 있어도 일단 좋다는 건 다 하자는 생각이었죠. 직원들이 원하는 것도 가능한 한 해줘요. 사실 물어보면 딱히 무리한 요구도 없어요. 좀 더 좋은 커피 머신을 쓰고 싶다, 맛있는 과자를 간식으로 먹고 싶다는 등이죠. 저희가 충분히 제공할 수 있거든요.”

덕분에 직원들은 아이버스터에 입사하면 퇴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시 출근과 정시 퇴근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격증을 따면 축하금을 지급하고 도서를 구입해 주고 먹고 싶다는 간식을 무한 제공합니다. 생일에는 생일축하금과 조기퇴근 혜택이 있습니다.

“원래 점심 식대가 없었어요. 저희와 함께 식사하고 저희가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혼자 밥을 먹고 싶거나 특별히 그날 따라 다른 것이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점심 식대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첫날 모든 직원이 도시락을 싸 오더라고요. 그러길래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휴게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아이버스터의 두 임원은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는 시간 중 대부분은 회사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회사에서 힘들고 짜증 나게 일한다면 얼마

나 불행할까요. 회사에 출근해서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힘들고 짜증 나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아이버스터는 돕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TIP

체력 단련비 지원

취미 활동비 지원

매월 첫째 주 금요일 패밀리데이

장기근속 포상

자녀 학자금 지원

스포츠로 만드는 따뜻한 세상

스포잇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스포츠, 그중에서도 축구로 취약계층과 소통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거창함까진 아니지만,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스포잇은 참여와 협력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직접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렵풋이나마 사업을 구상한 것이 이때부터였어요. 부모님이 사업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곳의 방식이 좋다는 것을 깨닫고 이 사회가 왜 이런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고민했어요.

은퇴한 프로 축구 선수가 만든 사회적기업

한국 최초로 골키퍼로서 유럽 프로 리그에 진출한 권정혁 대표는 16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치고 지난 2019년 스포잇을 창업했습니다. 핀란드에서 선수 생활을 하던 시절, 그곳 선수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업 기간이 길고 불안한 국내 축구 선수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권정혁 대표는 언젠가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길 바라면서도, 후배들 역시 느낄 은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경쟁만 알던 30대 초반에 만난 핀란드는 권정혁 대표에게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단순히 복지국가로만 알고 왔지만, 생활하며 협력의 의미를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연봉과 경쟁이 아닌 협력이 좀 더 높은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권정혁 대표는 이 시절이 인생의 가치관을 크게 바꿔 놓았다고 회상합니다. “어렵풋이나마 사업을 구상한 것이 이때부터였어요. 부모님이 사업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곳의 방식이 좋다는 것을 깨닫고 이 사회가 왜 이런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고민했

어요. 스포잇을 시작할 때도 방향을 그쪽으로 잡게 됐고, 그것이 사회적기업으로 오게 됐죠.”

대부분의 선수는 프로 축구 선수가 되더라도 1~2년 안에 관두는 것이 현실입니다. 은퇴하거나 은퇴 후에 할 것 없이 불안함에 떠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자는 것이 권정혁 대표가 시작한 스포잇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정기적인 일자리를 주지는 못해도 스포츠를 배우려는 아이들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스포잇이 추구하는 진정한 협력이 시작된 것이죠.

취약계층 아이들과 은퇴 선수를 잇는 플랫폼 구축

2년 남짓 지난 지금, 스포잇은 은퇴 선수와 유소년 축구 꿈나무 선수 혹은 동호인이 만나 가르치고 배우는 매칭 플랫폼 ‘모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영상 촬영과 아카이브를 활용해 선수들의 이적 혹은 학생 선수들이 진학할 때 필요한 하이라이트 동영상 촬영, 편집해 판매하기도 하죠. 직접 풋살장을 마련해 취약계층 아이들의 축구 교육을 제공하는 드림 스타트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축구대회를 개최한다거나



취업 준비생을 위한 스포츠 직업 토크 콘서트도 진행합니다. 프로스포츠협회와는 여러 종목의 은퇴 선수를 위해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준비와 미디어 크리에이터 육성 과정을 운영하기도 했죠.

이 외에도 K리그 드림어시스트, KFA 레전드 클리닉, KFA 레전드 플레이그라운드 등 다양한 축구 관련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포잇은 은퇴 선수와 유소년선수, 여자축구 등 스포츠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1년 9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보람을 가지면 일을 잘하게 되고, 더 잘하고 싶어져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과거 축구가 돈 없는 사람들의 운동이었다면

요즘은 돈이 많이 들거든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집안이 어려운 친구들이 꽤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맹의 예산으로 사업 운영을 돕고 있어요. 아이들이 프로 축구 선수 출신의 멘토를 만나 관심받으며 운동하면 적극적인 마인드가 생기고 실력도 늘어요. 축구부 선생님께서부터 직접 전화가 온 적도 있어요. 어떤 아이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이 많이 늘었고 자신감도 생겨 너무 고맙다고요. 그럴 때마다 행복하고 스포잇을 만들기 좋았던 생각이 들죠.”

유럽에서 배워 온 '협력'의 진짜 의미
사회적기업이긴 하지만 권정혁 대표의 요즘

아이들이 프로 축구 선수 출신의 멘토를 만나 관심받으며 운동하면 적극적인 마인드가 생기고 실력도 늘어요. 축구부 선생님께서부터 직접 전화가 온 적도 있어요. 어떤 아이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이 많이 늘었고 자신감도 생겨 너무 고맙다고요.





고민은 '어떻게 수익구조를 만들어 회사를 성장시킬까' 하는 겁니다. 회사가 성장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부담도 크니까요. 최근엔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공단, 프로스포츠협회 등에서 홍보 마케팅을 위한 영상이나 블로그 운영 등을 통해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꾸준한 포트폴리오를 쌓아오며 지표를 만들어낸 덕분에 정부 지원 사업까지 활로를 넓히게 됐습니다.

"창업자로서 가장 관심사는 생존이죠. 아무리 사회적기업이라 해도 생존이 안되면 가치창출은 불가능하니까요. 월급 주는 날엔 너무 흥분해요. 매일 치열하게 일하고 월급날이 되면 내 일을 했구나 싶거든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모두 직원

들이 잘 따라와 준 덕분입니다."

권정혁 대표는 스포잇을 통해 핀란드에서 보고 겪은 '협력'을 실천하려 합니다. 어느 분야든 그렇겠지만, 스포츠 분야에도 꼭 필요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스포잇은 이것을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협력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식회사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회사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공통의 꿈을 가지는 거잖아요. 저만의 꿈이 아닌 직원들이 동일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저는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처음에 사회적기업이라

부담스럽지 않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사실 저희는 서로의 월급 빼곤 모두 법인 계좌를 볼 수 있을 만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들은 이런 것을 직접 보고 느끼다 보니 이제는 자신의 능력치 이상으로 스스로 일을 찾아 하고 있어요. 고마울 뿐이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스포잇은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앞으로는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견고히 하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사람들이 불평등을 느끼지 않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스포츠가 모든 사람에게 닿도록, 공 하나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스포잇은 협력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MOEL News

1

21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제출된 2021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국가승인통계 제118030호)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3.10%로 전년 대비 0.02%p 증가했으며, 전 부문에서 중증·여성 장애인 비중이 늘어났는데요. 특히 중증 장애인 비중은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 중 중증 장애인 비중(30.8%)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2.97%로 전년과 비교하여 0.03%p 하락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률이 3.92%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이 3.68%로 뒤를 잇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작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교육청의 공무원 고용률은 1.94%로 전년 대비 0.03%p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5.83%로 전년 대비 0.29%p 상승했으며, 네 부문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이끌었는데요. 특히 중증 장애인 비중이 45.5%, 여성 장애인 비중이 40.9%로 네 부문 중 가장 높아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성별 고용격차 완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3.78%로 전년보다 0.26%p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고, 민간기업(의무고용률 3.1%)의 장애인 고용률은 2.89%로 전년 대비

<'21년 말 장애인 고용현황>

구분	사업체수	상시 근로자수	고용 의무인원	장애인 고용 인원 ²	중증 장애인 (비율,%)	여성 장애인 (비율,%)	고용률 (%)	'20년말 대비	증감률 (%p)	의무 고용률 (%)	
								증감 인원 (명)			
계	30,478	8,674,826	259,072	268,663	66,304 (31.9)	55,057 (26.5)	3.10	7,837	▲0.02	-	
정부 부문	공무원	317	931,368	31,829	27,618	3,950 (16.7)	5,986 (25.3)	2.97	348	▼0.03	3.4
	비공무원	305	401,933	13,514	23,418	7,711 (45.5)	6,929 (40.9)	5.83	2,188	▲0.29	3.4
공공기관	764	586,801	19,562	22,179	3,708 (20.0)	4,588 (24.8)	3.78	2,164	▲0.26	3.4	
민간기업	29,092	6,754,724	194,167	195,448	50,935 (34.3)	37,554 (25.3)	2.89	3,137	▼0.02	3.1	

0.02%p 하락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장애인 근로자가 1,844명 늘어난 결과 장애인 고용률 3.47%를 달성하여, 3%에도 못 미쳤던 작년 고용률 (2.62%) 대비 큰 폭의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가 이어졌던 민간기업의 경우, 규모별·업종별로 회복 속도가 다른 경향으로 인해 작년보다 상시 근로자 수는 15만 489명 늘었으나 장애인 근로자는 3,137명 늘었는데 그쳐 비장애인 고용 대비 장애인 고용의 회복이 다소 느린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던 상황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하고 전 부문에서 중증·여성 장애인 비중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22년도부터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는 만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기조에 따라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법인기준) 총 30,478곳
- 의무고용 사업체는 매년 1월 전년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상황과 고용부담금 등 신고
2. 장애인 고용인원은 중증장애인 2배수제 적용한 값

2

강소기업에서 꿈과 미래를 키워보세요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강소기업」 1만 6655개소를 선정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은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기업과 직접 신청한 기업 4만 7309개소를 대상으로 심사가 이루어졌고,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공개 체불 기업,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 등 7가지 결격사유¹⁾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선정했습니다.

<강소기업 결격사유 기준>

- ①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 공개 체불 기업(사업주), ② 3년 이내 2회 연속 동종 업종·규모별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③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 ④ '신용평가 등급'이 B- 미만 기업,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⑦ 기타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은 규모별로는 20인 이하 기업이 6,599개소(39.6%), 21~50인 이하 기업이 6,354개소(38.2%) 순으로 많고, 200인 초과 기업은 508개소(3.1%)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1만 381개소(62.3%), 도·소매업 2,168개소(13.0%), 정보통신업 1,745개소(10.5%) 순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6,400개소(38.4%), 서울 3,194개소(19.2%) 등 수도권에 57.6%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22년 선정된 강소기업 중 3년('19~'21년) 연속으로 선정된 기업이 6,544개소, 2년 연속('20~'21년) 선정된 기업이 9,296개소나 되고, 특히,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여가친화기업, 대전시의 매출의탑, 경남형청년친화기업, 월드클래스플러스가 새롭게 선정됐습니다.

2022년 강소기업 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강소기업에는 워크넷을 통해 기업정보, 채용정보 등을 제공하고, 네이버와 연계하여 기업 홍보²⁾를 지원하고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정기 세무조사 제외사업장 선정 시 우대하는 등 재정·금융 및 각종 선정 시 우대 혜택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강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구직등록 후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에서 구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입사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강소기업 중에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임금과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수준을 반영하여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별도로 선정하고 있고, 지난 연말에 총 1,214개소의 기업을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고 근로조건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청년들이 기업정보를 잘 알지 못해 취업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청년들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우수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청년친화적 매체를 통한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1. 2012년부터 선정했으며 2020년 1만 5658개소, 2021년 1만 5962개소 선정
2. 네이버에서 기업을 검색할 때 기업정보에 강소기업 인증 현황 제공



강소기업 지원 내용

구분	지원사업	지원 내용	사업 개요	연락처(누리집)	
취업 지원	·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테마별 채용관)	· 강소기업 일자리정보 별도 DB 관리, 기업정보 제공 등	· 테마별 채용관을 통해 청년 및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www.work.go.kr)	
기업 홍보	· 현장일착형 맞춤 홍보	· 청년서포터즈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청년의 시각에서 현장정보 발굴·홍보	· 고용노동부에서 선발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서포터즈가 사업장에 사전 연락 후 현장 방문 취재→기업 정보, 인터뷰 내용, 사진을 누리집에 등재	청년워크넷 강소기업 (www.work.go.kr/jobyoung/smallGiants)	
	· 기업 정보제공 채널 확대	· 네이버를 통한 인증현황 제공 · 청년워크넷-강소기업 누리집을 통한 기업 홍보	· 네이버에서 강소기업 검색 시 인증현황 제공 · 청년워크넷-강소기업 선정기업에서 기업정보 제공	네이버, 청년워크넷	
재정 금융 우대	·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금융 우대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시 보증우대 * 보증기간 최장 11년, 보증비율 100%, 보증료 0.2%P이상 차감 등	·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간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청년고용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우대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업 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기업, 일경험 참여기업 중 고용센터가 추천한 기업 등	신용보증기금	
	·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 선정 시 우대	· 우선 지원 (최대 10억원, 연리 1.5%)	·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안전보건 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의 산업재해 예방시설 용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해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누리집(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 KB증권 퇴직연금 가입시 기업 운용관리수수료 할인	· 강소기업에 한하여 기업 운용관리수수료 할인 (구간별로 10% 추가 할인)		KB증권 (www.kbsec.com)
		· NH투자증권 퇴직연금 가입시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할인	· 강소기업에 한하여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50% 할인		NH투자증권 (www.nhq.com)
· 현대차증권 퇴직연금 가입시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할인		· 강소기업에 한하여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50% 할인		현대차증권 (www.hmsec.com)	
선정 선발 우대	·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선정 시 우대	· 자격요건 중 부적격 사유 제외(강소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기업까지 예외 적용)	·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CS 기반 현장훈련 실시 후,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제도	일학습병행 블로그 (https://blog.naver.com/run-learn)	
	· 중소기업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 기업선정시 우대	·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 기업 발굴시 우선 배정	· 일경험 기회가 적은 만 15세에서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에게 우수한 중소-강소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진로탐색과 직접적인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일 경험 확대 및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운영기관-고용센터에서 체험 기업 사전 발굴 누리집(중소기업청년직무체험) (www.work.go.kr/exper)i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선정 시 우대	· 가점(5점)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지원선정 시 우대 *사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고용노동(지)청 기업지원부서, 누리집(고용보험) (www.et.go.kr)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우대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대상 선정 시 가중치 부여 · 클린사업장 인정(제조·서비스업) 1천만원 추가지원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재정 능력이 취약해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클린사업장조성지원 누리집 (https://clean.kosha.or.kr)	
	· 청년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선정 우대	· 우선 참여	· 청년채용박람회(강소기업 박람회 등) 개최 시(수시) 강소기업 사업장 우선 섭외		
세무 조사 제외 우대	· 정기세무조사 제외사업장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선정 시 우대	· 고용비를 계산시 강소기업은 가중치(2배)부여	·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일정비율(2~4%)이상 고용창출한 기업	국세청 누리집(지원내용) www.nts.go.kr 국세청 홈택스(신청) www.hometax.go.kr	

3

공정한 채용질서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전한 채용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자율개선 지도 및 집중 점검을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은 새 정부의 네 가지 국정 운영 원칙(국익, 실용, 공정, 상식) 중 하나로, 특히 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는 첫 단계인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이에 새 정부는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신임 이정식 장관도 지난 5월 11일 취임식에서 "건전한 채용 질서가 뿌리내리도록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22년 상반기 집중 점검 기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 방향

- ①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을 위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속도감 있게 추진
- ② '선(先) 자율개선 → 후(後) 현장점검'으로 기업의 자발적 노력 유도
- ③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을 포함하여 600개 이상 사업장 점검 ('21년 하반기 대비 30.7%↑)
- ④ 점검과 함께 현장 의견 수렴 병행하고 점검 결과 피드백을 통해 노사의 공정채용 확산 노력 뒷받침



①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속도감 있게 점검을 추진합니다. 이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질서²를 바로잡고, 건전한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16.~5.27.) 자율개선 지도<1,800개 사업장> → (5.30.~6.10.) 집중 신고기간 운영 → (6.13.~6.30.) 현장 지도·점검<600개 사업장>
* 일정과 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② 현장의 자율적인 법 준수와 개선을 장려합니다. 건전한 채용 질서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 이전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데요. 이에 약 1,8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발송하고, 카드뉴스 게재, 안내문 제공 등 홍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노사 간담회, 「채용절차법」 설명회 등을 통해 공정한 채용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③ 공정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지도·점검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약 30% 늘어난 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해 현장 점검 시 과태료, 시정명령 사항뿐만 아니라, 법상 권고사항이지만 구직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항(예> 채용 일정 및 채용 여부 고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집중 점검 기간에도 120개³의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채용절차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범부처 합동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⁴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입니다.

④ 현장 점검이 공정 채용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법 위반 여부 점검을 넘어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법 개정 및 정책 수립 시 참고하고, 공정채용 문화의 민간 자율 확산을 위해 정부 지원사업⁵도 적극 안내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주요 위반 유형, 우수·미흡 사례, 시사점 등을 현장·중앙에서 노사와 공유하여 노사의 자율 개선과 공정 채용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시작인 ‘채용에서의 공정성 확립’이라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점검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불공정채용 관행이 있다면 지속해서 모니터링과 점검을 하겠다”며

MOEL News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채용법」으로의 개정과 공정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노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 점검 기간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를 받고 있으며,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온·오프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국정과제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2. 주요 점검 항목 : ▲출신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강요 등 금지, ▲채용심사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
3. 현장 점검 사업장 수 : ('21년 하반기) 459개 → 600개 이상, 30.7% ↑
4. 건설현장 120개소는 전체 점검 사업장(600개)의 20%를 차지하며, '21.하반기 건설현장 점검 규모(71개소) 대비 69.0% 증가
5. 정부 합동 “건설현장 신고센터” : 044-201-4112 / con112@korea.kr
6.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마당 >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
(오프라인)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전화 등을 통해 신고



4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5월12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예산안 중 증액사업의 규모는 8,611억 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7,111억 원, 70만 명)

(지원대상)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70만 명

※ 1차 추경 집행 잔액<1,000억원>을 활용하여 10만 명 추가 지원 예정

(지원규모) 1인당 100만 원

(지원절차)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100만 원 지급, 신규 신청자는 소득 감소 심사 후 100만 원 지급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1,500억 원, 7.5만 명)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법인) 택시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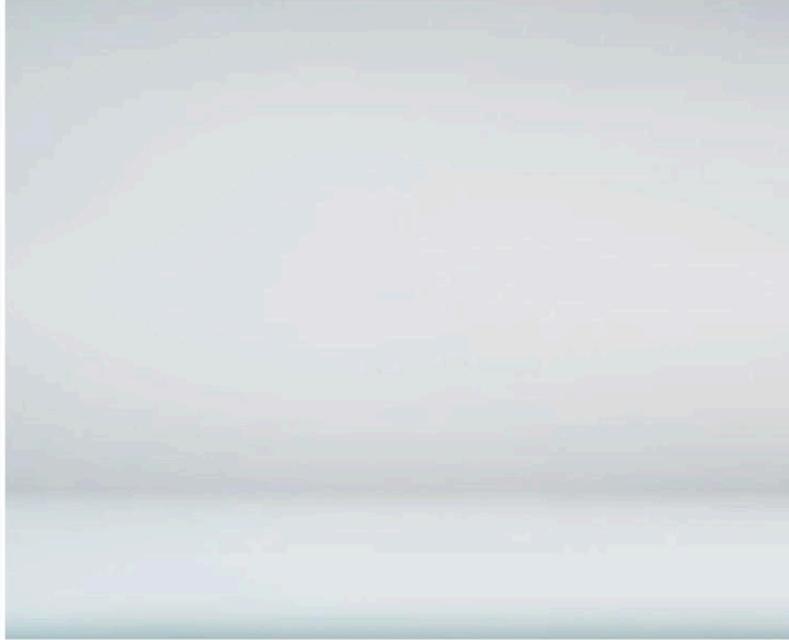
(지원규모) 1인당 200만 원 지급



MOEL News

5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적극적
시정제도가 신설됩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는 기존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하던 것에서 나아가 차별받은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의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지방노동위





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각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 행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직권으로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심리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시행이 일터의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용상 성차별 등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상 차별



날마다 레벨업

우리 함께 더 나은 내일로

트렌드에 민감하다면

트렌드를 알아야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트렌드에 민감하시다고요?
남들보다 빠르게 캐치하고 싶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실속만점, 꿀정보를 소개합니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속 흥미로운 노동법 이야기

첫바퀴 같이 반복되는 권태로운 삶을 사는 세 남매의 행복 소생기를 다룬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견딜 수 없이 촌스럽지만 또 견딜 수 없이 사랑스러운 가족, 친구의 이야기가 웬지 모를 공감을 불러일으켰죠. 드라마 속 흥미로운 노동법을 알아볼까요?



“요즘도 그런 바지를 입고 다니냐?” 해방될 대상은 모르는 법



대형 카드회사 디자인팀의 계약직으로 일하는 셋째 염미정은 팀장의 지속적인 폭언을 견디며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과업을 해가면 노골적으로 “쫓” 소리를 내며 과도한 수정을 요구하는 건 기본이죠. “디자인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무시하거나 급기야는 염미정의 옷을 지적하며 “그런 바지는 어디서 사? 언제 샀냐고 물어봐야 하나? 바지 끝단이 무거운 여자 간만 이라. 보기에도 답답하지 않아? 패션이나 디자인이나 디테일이 없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염미정은 사내 동호회 ‘해방클럽’을 두고 “무엇으로부터 해방되는 클럽이냐?”고 비아냥거리는 과장에게 “지겨운 인간들한테서요”라며 목직한 한 방을 날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견디기 힘든 대우를 받나요?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해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그 또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이 있다면 업무상 질병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심사 앞두고 사내 스캔들 누명?!
“떨끄러우니까 너 나가”**



계약직으로 입사한 엄미정은 뛰어난 디자인 감각과 업무 능력으로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도 희망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엄미정이 정규직이 될 거라고 믿고 있던 그때, 그를 미워하던 팀장이 사내 불륜 상대의 이름을 ‘엄미정’으로 등록해 놓은 것이 드러납니다. 팀장이 엄미정을 미워한다는 걸 아는 회사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죠. 불륜 상대를 진작 알고 있던 엄미정은 그녀에게 치욕적인 말을 듣고 서로 폭행하며 싸우기까지 합니다. 회사 내에서도 감사가 이뤄졌지만, 정작 불륜녀과 팀장은 불륜 사실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결국 엄미정은 “정규직 심사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다”며 심사에서 탈락하고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비정규직으로 불리한 차별을 당했나요?

사업장에서 필요에 의해 시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 대우를 당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은 5월부터 전국 350개의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예방 및 개선을 위한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운영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1년 차일단은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의 고용상 차별 요소를 진단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했고 그 결과 198개 사업장의 개선이행을 이끌었습니다. 재단은 비정규직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울사무소를 비롯한 인천, 대전, 대구, 경남, 전북 등 6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용차별에 대해 문의나 상담하고자 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2089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근 시간은 수수께끼?
카페에서 야근하면 주 52시간이 넘나요?**



드라마 초반, 세 남매의 엄마는 염미정에게 구 씨에게 전해줄 음식을 쥐여주며 “아빠는 아침 7시부터 일할 건데, 구 씨는 9시까지 와도 된다 그래. 그냥 9시까지 오라고 하지 말고”라는 아리송한 말로 출근 시간을 말합니다. 눈치 빠른 구 씨는 7시에 출근하죠.

한편, 팀장에게 가져간 디자인 시안을 수정해야 하는 염미정은 야근을 자주 하는데요. 견디기 힘든 마음이 들 때면 업무를 싸 들고 근처 카페로 가죠. 지나가는 사람들 많은 카페에서 외로움을 참으며 행복한 상상을 하는 염미정의 야근은 시청자들의 많은 공감을 샀습니다.



여기서 잠깐!
주 52시간씩 일 하고 있나요?

근로 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종속된 시간을 말합니다.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제 구속시간을 의미하죠.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는 반면 사기 진작이나 친목을 강화하기 위한 회식은 인정되지 않죠. 지금은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해서 주 최대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가상 현실 기술, 어디까지 왔나?

최근 몇 년 사이 가상 현실 기술은 실제 현실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VR(가상 현실)뿐 아니라 AR(증강 현실), MR(혼합 현실), XR(확장 현실), SR(대체 현실) 등 다양한 용어가 등장했는데, 비슷하면서도 각기 다른 가상 현실 관련 개념들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XR(확장 현실)

ER 혹은 XR이라고도 불리는 '확장 현실'은 'Extended Reality'의 약자입니다. VR(가상 현실)과 AR(증강 현실), MR(혼합 현실)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또한 XR은 MR이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앞으로 개발될 신기술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XR에서는 MR보다 현실과 가상 세계의 결합 및 상호작용이 더욱 강화됩니다. 현실 공간에 배치된 가상의 물체를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가상 공간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격 회의 시 디지털 공간에 자료를 띄워 공유하거나 의료, 제조, 군사 산업 등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험 상황을 훈련할 때 XR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SR(대체 현실)

SR은 'Substitutional Reality'의 약자로 '대체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인지 과정을 왜곡해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나 사건을 새롭게 구현하거나 현재와 과거의 영상을 혼합해 실제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인지 뇌과학이 융합된 기술입니다. 체험자는 영화 <인셉션>에서처럼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혼동과 착각을 경험하게 되죠. VR, AR, MR과 달리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고 스마트 기기에 광범위하고 자유롭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SR의 장점입니다. SR의 완벽한 구현은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심리 치료와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VR(가상 현실)

VR은 'Virtual Reality'의 약자로, 실제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인 '가상 현실'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를 현실로부터 완전히 차단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 것처럼 몰입감을 주는 것이 핵심이죠. 사용자는 머리에 착용하는 VR 디바이스 HMD(Head Mounted Display)를 통해 가상 현실에 접속해 현실감을 극대화한 시청각적 콘텐츠에 몰입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무게감이 있는 헤드셋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안경에 가까운 작고 가벼운 형태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VR 기술은 IT, 의료, 제조, 자동차, 영화, 음악, 쇼핑, 게임, 건축, 관광,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과 의료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도 기술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AR(증강 현실)

AR은 'Augmented Reality'의 약자로 '증강 현실'이라고 합니다. VR과 달리 위치와 지리 정보 등 주변 환경을 기반으로 가상 정보를 주는 것으로, 현실 세계에 가상 세계가 중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때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포켓몬 고' 게임이 증강 현실을 잘 구현한 대표적인 사례죠. AR은 현실과 가상 현실을 연결하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증강 현실을 적용하면 실제 도로 장면에 주행 정보를 추가해 보여주고, 인테리어 시 가구를 사기 전 미리 공간에 배치해볼 수 있습니다. AR 역시 디바이스가 필요하지만 스마트폰이나 AR 글라스, 손목 밴드 등 훨씬 간편한 기기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MR(혼합 현실)

MR은 'Mixed Reality'의 약자로 '혼합 현실'을 말하는데요, VR과 AR의 장점을 합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R과 작동 방식이 비슷하지만, 현실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보여주는 AR과 달리 MR은 현실 공간에 가상의 오브젝트를 배치해 상호작용하거나 현실의 오브젝트를 인식해 그 주변에 가상의 공간을 구성합니다. 현실과 가상의 정보를 융합해 더 진화된 가상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죠. VR과 AR은 시각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만 MR은 시각, 청각, 촉각 등 오감을 접목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MR 기술을 구현 가능한 플랫폼이 많지 않지만 교육, 의료, 스포츠,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직장동료과의 궁합은? 팀장님 MBTI는 뭘까? 직장인의 MBTI

알파벳 8개로 성격을 나타낸다는 MBTI. 한 번도 MBTI 테스트를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질문 몇 개로 장신의 성향을 정해주니 놀랍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MBTI로 우리의 직장생활을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MBTI는 ISTJ, 소독이 높은 유형은 ENTJ, 가장 낮은 유형은 INFP라는 조사도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회사에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 많은지, 내 동료, 팀장님의 MBTI는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볼까요? 꽤 흥미로운 거예요. 단, 재미로만 보세요! 과몰입은 NO!



E

외향
(Extraversion)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사교적, 정열적, 활동적이다

S

감각
(Sensing)

오감에 의존해 실제의 경험을 중시하며,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정확하게 철저하게 일을 처리한다

T

사고
(Thinking)

진실과 사실에 주로 관심을 갖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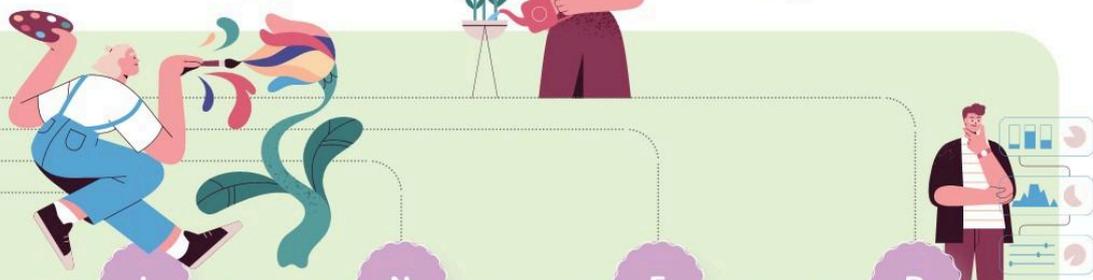
J

판단
(Judging)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으며 기한을 엄수하고 철저히 사전계획하에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한다



* TIP
**직장생활 속 MBTI
 성격 유형은?**



<p>I</p> <p>내향 (Introversion)</p> <p>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조용하고 신중하게 이해진 다음 경험한다</p>	<p>N</p> <p>직관 (Ntuition)</p> <p>육감 내지 영감에 의존하며 미래지향적으로 가능성과 의미를 추구하며 신속, 비약적으로 일을 처리한다</p>	<p>F</p> <p>감정 (Feeling)</p> <p>사람과 관계에 주로 관심을 갖고 상황적이며 정상을 참작한 설명을 한다</p>	<p>P</p> <p>인식 (Perceiving)</p> <p>목적과 방향은 변화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인정이 달라지며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다</p>
--	--	---	---

- TIP MBTI 유형별 회사 내 위치**
- 타고난 리더십, 하지만 끈대 : ENTJ / ESTJ / INTJ
 - 존경받는 상사 : ISFJ / ISTJ
 - 이달의 우수직원 스타일 : INFJ / ENFJ / ESFJ
 - 직장 생활은 가늘고 길~게 추구 : ISTP
 - 열심히 하지만 욕 먹는 타입 : ENFP / INFP / ISFP
 - 누가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암체 : ENTP / INTP
 - 조직생활에 안 맞음 : ESTP / ESFP



6월 1일 의병의 날, 6월 6일 현충일, 6월 10일 민주항쟁 기념일, 6월 25일 한국전쟁, 6월 29일 제2연평해전까지. 6월은 기억해야 할 날들로 가득한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콘텐츠들을 소개합니다.

기억하는 6월,
호국보훈의 달
전쟁 테마 문화 큐레이션



서해를 수호한 영웅들
영화 <연평해전>

전국이 붉은 함성으로 가득 찼던 2002년 한국과 터키의 3, 4 위전 경기가 열리던 날, 서해 한 가운데서는 커다란 포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 우리 해군의 고속정을 향해 기습 공격을 해온 것이죠. 영화 <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벌어졌던 남북 간 해상 교전, 제2연평해전의 실화를 담았습니다. 무려 6명의 해군이 목숨을 잃었지만 당시 월드컵 열기에 묻혀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비극적인 사건. 영화는 그날의 영웅들을 재조명하고자 했습니다.



터키 병사가 품은 한국 전쟁고아
영화 <아이리>

영화 <아이리>는 한국전쟁에 파병됐던 터키 병사와 전쟁통에 고아가 된 5살 한국 소녀의 감동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군인 솔레이만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어린 소녀를 부대로 데려와 '달'이란 뜻의 아이리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떨처럼 돌봅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 정든 아이리를 몰래 터키로 데려가려 했으나 결국 발각돼 홀로 떠나게 되죠. 이후 둘은 서로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소식조차 알지 못하다 무려 60년 만에 재회하게 됩니다. 참전국의 시선으로 한국전쟁을 바라본 영화 <아이리>는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기억해야 할 학도병들의 전투
영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

6.25 전쟁의 판도를 뒤집었던 인천상륙작전.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서쪽을 친다는 '성동격서(聲東擊西)'를 잘 보여준 작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동'의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단 2주의 기초훈련만을 받은 학도병 772명이 동원된 '장사리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전투 경험이 없는 학도병들은 쏟아지는 총알 속에서 인민군의 보급로 차단에 성공하지만 결국 이들 중 소수 인원만이 살아남습니다. 영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은 인천상륙작전과 마찬가지로 기억되어야 할 장사리 전투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기록되지 못한 마지막 전쟁
영화 <고지전>

1951년, 2년 2개월이라는 세계 역사상 가장 긴 휴전회담이 시작됩니다. 모두가 전쟁을 멈춘 이때에도 최전방 '고지'에서는 끝없는 싸움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한국전쟁의 총 사상자 400만 명 중 약 300만 명은 바로 이 기간에 중부전선의 고지쟁탈전에서 희생되었습니다. 고립된 공간에서 싸우는 이유조차 잊은 채 마지막까지 싸우다 죽어간 그들. 영화 <고지전>은 '한국전쟁이 어떻게 끝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한국전쟁의 마지막 전쟁과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명합니다.



고통의 시대를 나아가다
소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다룬 <나목>이 박완서의 등단작이라면,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는 그가 생애 마지막까지 직접 다듬고 매진 유작입니다.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작품은 작가의 20대, 한국전쟁의 한기운데부터 시작합니다. 의용군으로 갔던 오빠의 부상과 죽음, 생존을 위해 빈집을 털어야 할 만큼 남겨진 가족들이 겪은 뼈아픈 가난, PX에서 일하다 만난 남편과의 결혼까지. 소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는 한국전쟁 시기 작가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특유의 풍요롭고 능란한 언어로 풀어냅니다.



남과 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남자
소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안재성의 장편소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는 북한 노동당 청년간부로 한국전쟁에 참가했다가 포로로 잡혀 10년간의 수용소, 감옥 생활을 겪은 실존 인물 정찬우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쟁의 참상을 그린 작품입니다. 어린 시절 금주성 일대의 이름난 수재였고 김일성대학을 졸업한 북한의 엘리트였으나 전쟁에 참여한 그는 끔찍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가 포착한 전쟁의 단면은 동족 간의 전쟁을 강요당한 사람들 간의 무자비한 폭력과 갈등이었죠. 작가는 소설을 통해 불행했던 우리 역사의 외면된 진실을 복원하고자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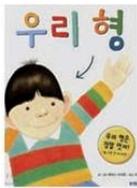
생존을 향한 끝없는 갈망
소설 <태양의 그늘>

총 3편으로 구성된 박중희의 장편소설 <태양의 그늘>은 일제강점기 말부터 광복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우리 민족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한 가족의 일대기를 통해 그리고 있습니다. 넉넉한 집안에서 평탄한 삶을 살던 남평우와 윤채봉이 부부의 연을 맺은 후 격변의 시대에 내던져지며 겪어야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데올로기보다는 가족 간의 유대감, 인간의 실존적 가치, 생존을 향한 끝없는 갈망을 담아냈으며, '되찾은 땅에서 빼앗긴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비극을 생생하게 풀어냈습니다.



이념 대립이 만들어낸 비극
소설 <순교자>

소설 <순교자>는 한국계 최초로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른 재미작가 김은국의 대표작입니다. 남북의 이념 대립으로 인해 열두 명의 순교자가 발생했던 목사 집단 처형 사건에 대한 진실을 미스터리 형식으로 추적해 갑니다. 또한 절망에 빠진 인간이 신앙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줍니다. 이 작품은 출간 즉시 미국 언론과 문단의 관심을 끌며 미국 전역에서 20주 연속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켰으며, 세계 10여 개 언어로 번역, 출간됐습니다. 또한 1965년 영화화 되었고 연극으로도 여러 차례 각색된 바 있습니다.



전쟁이 앓아간 우리 형
동화 <우리 형>

열두 살 터울의 형은 아우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알려주고, 못 하는 것이 없으며, 아우가 위험에 처하면 쏠살같이 달려와 구해주는 형이었죠. 그렇게 '큰 산'과 같던 형이 입대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터졌습니다. 소식이 끊어진 형을 그리워할 새도 없이 죄 없는 마을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참혹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림 동화 <우리 형>은 '보통 사람들'이 겪은 전쟁의 두려움과 상처, 아프지만 기억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해 어린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리고 있습니다.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전쟁
동화 <그해 유월은>

어린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1950년 6월은 어땠을까요? 평화롭던 주인공 종희네 가족은 어느 날 시작된 전쟁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아빠와 오빠는 전쟁터에 끌려가고, 할머니와 동생은 피난길에 폭격을 맞아 세상을 떠났죠. 엄마의 생사도 알 수 없었지만 종희는 곳곳하게 외가를 향해 길을 나섭니다. 그러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아이들이 모인 고아원까지 가게 되지만 언젠가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놓지 않습니다. 동화 <그해 유월은>은 어린 종희의 시선을 통해 한국전쟁의 비극을 그려냈습니다.



최후 방어선의 치열했던 전쟁사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으로 제작됐던 안동 MBC의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은 제48회 한국방송대상에서 작품상을 수상했던 작품입니다. 한국전쟁 초기 대한민국의 최후 방어선이었던 낙동강 전선의 치열했던 전쟁사를 뉴욕 중군기자 마가렛 히긴스의 1인칭 관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배경인 죽령전투를 비롯해 민간인 지계부대의 시작이 된 영주전투, 백병전이 치열했던 문경 이화령전투, 민간군경이 하나 됐던 상주 화령장 전투 등 경북지역의 격전지를 재조명했습니다.



송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음반 <내 나라 대한> -송소희

젊은 경기소리꾼 송소희가 지난해 현충일에 맞춰 발매한 싱글 앨범 <내 나라 대한>은 나라를 위해 살다 간 수많은 이름에 대한 감사함이 담긴 앨범입니다. “긴긴 시간이 흘러도 / 찬란만 할 순 없어도 / 그때 이름들이 우리를 지킨다”, “대한이 살아온 걸음걸음 / 그 힘으로 일어나 / 우리들 사는 이 땅 위에서 꽃을 피우자” 등 몽클한 가사가 돋보입니다. 송소희는 이 곡에 대해 “이 나라를 지킨 이들에게 바치는 헌정곡이자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하는 응원곡”이라 표현했습니다.



전쟁 발발부터 정전 이후까지
다큐멘터리 <특별기획 한국전쟁>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방송됐던 KBS 다큐멘터리 <특별기획 한국전쟁>은 세계 100대 다큐멘터리에 선정됐던 1990년 <다큐멘터리 한국전쟁>의 후속작으로, 이후 새롭게 밝혀진 내용과 자료들을 더해 10부작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미국, 소련, 영국, 대만 등 각국 참전용사들의 증언을 더했습니다. 1편 '분단'을 시작으로 2편 '전쟁의 시그널', 3편 '폭풍', 4편 '북진', 5편 '후퇴', 6편 '또 다른 전쟁', 7편 '전쟁의 그늘', 8편 '정전', 9편 '끝나지 않은 전쟁', 10편 '에필로그-반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애환을 노래했던 곡들
음반 <A New Road> -임형주

<A New Road>는 세계적인 판페라 테너 임형주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2019년 광복절에 발매했던 디지털 싱글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 '새로운 길'에서 영감을 받은 앨범명이라고 하는데, 독립을 염원하며 고달프고 험난한 길을 개척해 나아갔던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들의 송고한 정신을 되새기고자 했습니다. 앨범에는 임시정부 시절 수많은 국민들에 의해 불렸던 '독립군 애국가'를 비롯해 윤심덕 선생의 '사의 찬미',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효시라 불리는 '희망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칼퇴를 맞은 사람들에게 '야근송'

어차피 해야 할 야근이라면
미뤄뒀자 시간만 늦출 뿐!
에너지 부스터 같은 야근송 들으며 얼른얼른 처리하자고요.



1.



헤븐리시티
밤샘작업

야근과 밤샘은 다르지만
먹고 사는 것이 바빠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2.



헵지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면
어떡해**

아니, 정말 이렇게 야근으로 하루가
지나가면 어떡해...
사라진 내 하루를 찾습니다!

3.



이영지
HATE ME(feat.유라)

고등래퍼 이영지가 직장인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주네요.
이렇게 야근하는 내가 싫다...
싫어...

4.



The Strike
Overtime

1980년대 밴드사운드와
시원시원하게 뽀는 보컬이 야근하는
직장인 Power Up!
힘내요 직장인들.

5.



이이영
칼퇴근

배우에서 트로트 가수로 변신한
이이영의 신곡.
내일은 칼퇴근 하리~~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는?

7월의 주제는 '휴가 안 가도 휴가지처럼 느껴지는 '기억 조작송'입니다. 월간내일 웹진 이벤트 게시판에서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월간내일 웹진을 통해 추천해준 야근서를 위한 야근송 플레이리스트.
노래를 들으며 거침없이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해볼까요?



1.



여자아이들
TOMBOY

시원하게 내뿜는 노래가 야근하는
내 속을 뽕 뚫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김민정님 추천곡

2.



장미여관
퇴근하겠습니다

6시 정각에 "퇴근하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꿈꾸며
이하나님 추천곡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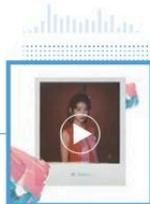


부석순(Seventeen)
거침없이

거침없이 하이킥 아니고,
거침없이 야근을 하고,
거침없이 집으로~!!

김현진님 추천곡

4.



아이유
이 지금

가사 중에 "이 하루 이 지금 우리
눈부셔 아름다워" 이 부분이 비록
야근으로 힘들지만 소중한 하루
하루를 살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오세린님 추천곡

5.



블랙핑크
마지막처럼

이 업무가 마지막처럼, 마-마-마-
마지막처럼, 오늘의 마지막 업무인
것처럼!

자기암시곡!!!
이정숙님 추천곡

지구를 지키는 이유있는 편식 함께 '하루 한끼 비건' 실천해요!



2020년 기후 위기 상황에서 기후 비상 사태로 변화했습니다.
유엔환경계획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연간 온실가스 배출을 7.6%씩
감축해야 한다고 분석했어요. 그런데 왜 식단을 바꾸냐고요?
전 세계 온실가스의 1/4이 식량시스템에서 배출되고 있고, 그 중 축산업이 80%를
차지하지 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채식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식단이라는 이야기죠.
갑자기 지구를 위해 매 끼를 채식할 순 없지만 하루 한 끼라도 이유있는 편식을 해보면 어떨까요?
6월에는 늘봄이와 함께 하루 한 끼 채식습관을 길러보자고요!

21년 12월

04 Intro

You did a great job

08 Topic

아듀 2021 통계로 돌아보는

고용노동 정책

12 System

2021 고용노동 정책

세대별로 돌아보기

20 People

2021년 월간내일

인터뷰이들의 말말말

28 슬기로운 한국판뉴딜 생활

데이터 리터러시, 누구나 기를 수 있어요!

-K-디지털 크레딧 '빅데이터 분석 첫걸음

시작하기' 수료자 박지선 씨

32 굿&굿 오피스

장애인 근로자에게

'일의 행복'을 선물하다

-행복두드리미(주)

36 인생 2막

끝이라고 생각한 곳이 시작이더군요

-박승욱 씨

대구고등법원 청소업무 공무원직

40 청년꿈터

미지의 꿈을 향한 달콤한 도전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조수미 씨

44 내일잇슈

정책기자단이 전하는

흥미진진 고용노동 정책 이야기

48 고용노동 뉴스

64 미디어 속 노동읽기

유미의 세포들 속 일터풍경

함께 살펴볼까요?

68 JOB툰

안녕 2021 · 즐길 수 없다면 피해라

70 고민타파

대전환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74 주말에 뭐 할래?

12월 영화·음반·공연 추천

80 #내일스타그램

월간내일 독자들의 사연

82 애독자 퀴즈

2022년도

고용노동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성장률과 일자리증감, 연령별

고용증감률, 기업규모별 취업자 수 통계를

살펴보면 모두 2020년보다 2021년 개선된

수치를 보이고 있네요.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고용률과 취업자 수 수치가 점점

회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요.

2022년에도 더욱 긍정적인 수치가 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